

무원 스님(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보시행에 한국불교 미래 있어"
다문화 포교는 평생의 서원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23호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불교 유치원, 미래 불교 위한 투자"

불교 영유아 교육 활성화 과제는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불자 A(女 · 38)씨는 올해 직장 인근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입학을 포기했다. 종일반을 맡아줄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다 들리는 조계사를 보며 "사찰에서 불교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한다.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라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A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믿고 맡기기에는 종교계 유아 시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는 영등포 근처 교회에서는 유치원을 대부분 운영해요. 그렇다고 불자인 제가 아이를 기독교 유치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11~12월이 되면 한국사회의 엄마들은 큰 전쟁을 치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다. 마음에 드는 유치원의 전형일 꼼꼼히 살피고 입학 설명회를 나가고 추첨에 운명을 건다. 유치원 입학을 속칭 '로또 당첨'에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교계 유치원도 이미 특화된 인성 교육 등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전국에 불교계 유치원의 현황은 어떨까? 지난 2006년 (사)동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관련 어린이집은 27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나 불교 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색책을 가질 수 없다. 불교적 심성을 영유아 시기부터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교 종립 유치원'이다.

특화된 인성교육이 '강점'

불교 종립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최대 장점은 특화된 인성교육이다. 불교 종립에서만 할 수 있는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청도 운문사가 운영하는 부설 운문유치원으로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인성교육 유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다도명상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음률교육을 비롯해 운문사 수목원에서의 숲 체험활동, 유아 체육, 영어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아들은 매일 어린이 생활 오계 실천을 다짐하며 연말에는 졸업식과 수계법회를 함께 진행하며 회향한다.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연비 의식대신 꽃비로 대체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입학 '로또 당첨'
신뢰가는 종립 유치원 선호
인성 특화 프로그램 강조
불교 유치원 강점 '충분'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며
사찰서 유치원 설립해야

여기에 유치원 건물도 현대적인 디자인에 최신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2008년 개원 당시에는 제31회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여주 신륵사가 운영하는 부설 연꽃어린이집도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는 보육시설이다. 원장 혜응 스님이 아이들에게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주고 1분 정도의 짧은 명상도 병행하며 타종을 유도하는 등 재미있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륵사와 함께 하는 동자승 체험의 경우에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륵사 연꽃 어린이집 담당 교사는 "동자승 체험의 경우 1주일간 절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의젓해지고 안먹던 야채도 먹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늘 합장 인사시키는 등 기본 예절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 아이들이 '예절이 바르다' 고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에도 노력 필요해

불교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다. 아이를 당장 불자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불교에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장 도진 스님은 "영유아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하는 것은 불교적 심성을 가지게 해 바른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사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불교 유치원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현재 불교계 유아보육교사 양성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불교유아보육학과와 유아교육학과가 유일하다. 두 학과에서 매년 배출하는 졸업생은 65명 남짓이다. 이들이 불교 유치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경 동국대 불교유아보육학과 교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인력은 필수"라면서 "불교 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좋은 인재를 불교 유치원에 영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불교아동교육연구소가 있어 불교 유아교육 지도자, 교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종단에서 유아 교육을 위한 전담 연구소를 만들어 일선 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 배현진 기자

시멘트에 갇힌 석굴암 앞 석등 하대석

보호각 보수 하며 시멘트 구조물로 덮어



시멘트 구조물에 갇힌 석굴암 석등 하대석. 현재는 뚜껑이 덮혀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경주 석굴암 보호각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석굴암 석등 연화문하대석을 시멘트 구조물로 덮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석굴암은 최근까지 보호각 보수공사를 위해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으로 덮혀 있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가설 덧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졌다. 이 콘크리트 바닥 구역에는 석굴암 앞의 석등 하대석의 위치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석굴암 석등 하대석 부분을 남긴 뒤 주위를 콘크리트로 덧집 기단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 하대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석굴암을 찾은 강우방 前국립경주박물관장은 "석굴암 석등은 석굴암의 전체 구조물 중 일부"라며 "보호각을 보수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하단부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석등의 하대석을 묻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처음 석굴암 가설덧집이 세워질 때부터 문제를 지적했다"며 "지반 약화, 진동 등으로 석굴암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한데 굳이 강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조물의 시멘트 부분을 제거할 때 석굴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석등 하대석도 석굴암 일부
보수 이유로 매몰 '어불성설'

문화재청은 공사가 완료돼 가설 덧집은 제거한 상태며, 시멘트 구조물은 연내 철거할 예정이다.

공사를 담당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관계자는 "현재 석등 하대석은 나무로 덮은 다음 보호조치를 취해논 상태"라며 "보호각 보수에는 가설 덧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관계자는 "구조물 철거는 현재 무진동 무소음의 최신공법으로 할 예정이기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진동을 최소화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석굴암의 영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심담은 핫팩으로 따듯한 군생활을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12월 10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2월 10일 전군 77개 부대에 핫팩 25만개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은 "혹한의 날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듯하게 군생활을 하길 기원하는 불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김희옥 총장, 18대 총장후보 전격 사퇴

이사회 뜻 반영, 보광 스님과 조의연 교수로 후보 압축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자로 나선 김희옥 현 총장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희옥 총장은 12월 1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4년간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고 대학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임의 뜻을 가지고 모교 발전을 위해 한번 더 봉사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종립대 총장직은 1회로 한정함이 좋고 연임은 적합하지 않다는 종단 내외의 뜻을 받들어 재임의 뜻을 철회하고 제18대 총장 후보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면, 비록 제 몸은 떠나도 마음은 언제나 모교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동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 고위직 스님들과의 오찬 회동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총장으로 수고했고, 앞으로 정부 고위직을 맡게 되면 계속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이사 스님들이 차기 총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보광 스님과 조의연 교수 2명 가운데 1명을 18대 총장으로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총장 선출 관련 차주 상보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경력기자 수습기자	각 0명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가 :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박희진

법인 등록 내년 2월까지 유예

조계종, 9일 간담회… "선학원 분원 예비등록 추진"

조계종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종단 등록이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같은 시한까지 면제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12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 이사 중 2/3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한다' 고 명시해 재가 이사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다만 사찰보유법인 대표자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한다. 선학원과 대각회는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하고 선학원 이사의 1/4을 총무원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게 한 부분은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 교육기관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미등록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종단등록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권리제한 및 징계규정의 적용도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정만 스님은 "내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둔 것은 종도로서 의무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법인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면서 "법인관리법 개정안은 종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표되며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만 스님은 선학원과 법보선원 등 법인관리법 현안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특히 법보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선학원 분원에 대한 예비등록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학원 정상화 특별법' 에 의한 종단 위원회 구성을 내년 초까지 마쳐 갈등 해결에 나선다.

정만 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종도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예비등록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군승 파송 국방부 제동에 '반박'

10일 성명서 발표… "부결 이유 밝히라" 유감 표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출범 이후 군승 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천태종이 군승 파송을 부결을 결정한 국방부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부결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2월 10일 총무부장 월도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11월 26일자로 보내 온 공문에서 아무런 해명 없이 한 문장의 짧은 부결 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실망을 느낀다"며 "국방부는 부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말했다.

천태종의 성명에 따르면 천태종은 2013년 군법사 파송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으며 '기존 진출한 조계종과 합의해야 한다' 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해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에서 조계종과의 합의를 요구한 조치는 위법행위로 판단했으며 감사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합의를 요구는 위법행위이므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자격과 요건을 갖춘 종단의 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11월 19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천태종의 군승 파송에 대해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한다' 고 결의했다.

천태종은 "최근 5년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승자원은 매년 13~16명이지만 수급인력은 50% 정도에 머물러 해마다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다"며 "천태종의 군종 진입 부결은 불교계의 군불교 진흥 여망에 대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천태종은 국방부에 대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는 지적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가 3월 "병역법상 자격이 있는 조계종 이외 종단 승려의 임용을 허락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로 국방부 감사를 진행했다. 대불총은 12월 5일부로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00인 대중공사, 현안 해결 '광장' 될까

추진위 9일 회의… 출범 내년 1월 28일로 변경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인 대중공사의 명칭과 출범 시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조계종은 12월 9일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 명칭, 출범 계획 등을 확정했다.

대중공사의 명칭은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로 결정했다. 목적은 불교중흥을 위한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종도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있다.

출범 시기도 변경됐다. 원안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회향하는 12월 23일 함께 출범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8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100인 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도 마련됐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집행위원장인 일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12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공사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10여 차례의 대중공사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원력이 있어야 하며, 종도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100인위 위원 구성은 1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범과 함께 첫 회의도 진행
주제 · 운영방식 · 공개여부 논의
100인위 구성 1월 중순 결정

그간 토론 결과 반영 '물음표'
실효성 있는 운영 · 실천이 숙제

100인 위원 인물 선정은 교구본사주연합회, 전국선원수좌회, 전국 비구니회 등 대표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정인원을 추천할 것을 요청키로 했으며, 종단중진, 시민사회단체, 재가불자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추천 · 섭외할 계획이다.

본래 잡혀있던 10개의 주제와 야단법석식 운영 방식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1월 28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주제와 토론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처음에는 10가지 주제를 선정했지만 100인 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전체회의와 분과 토론 등 진행 방식과 대중공사 공개 여부까지 1차 회의에서 모두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운영 방식과 공개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은 100인 대중공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100인 대중공사의 출범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전략이라는 비판부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종단쇄신위원회와 결사본부 대중공사에서도 적지 않은 토론과 논의들이 이뤄졌지만 이것이 종책에 반영된 예는 거의 없는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지점이다.

일감 스님은 "종책 반영 문제는 100인 대중공사 숙제"라고 인정하며 "100인 대중공사 자체가 종단 변화의 기회다. 종단 사부대중이 모여 주체적인 토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간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공동추진위원장의 개회사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치사,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의 격려사, 출범 선언, 100인 위원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1차 대중공사는 오후 1시 '종단의 현실과 미래, 100인 위원에게 듣는다' 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원로의원 고우스님의 기조 연설과 주제 선정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100인 위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야"

조계종 화쟁위원회 10일 대중공사 열고 그간 성과 · 과제 정리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2월 1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쟁의 길을 묻다' 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화쟁의 길 성과와 한계' 제하의 발제에서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가지 못했던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화쟁위원회가 불교 내부 문제조차 화쟁으로 풀어내지 못해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면서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활동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위원장은 "다뤄온 의제들이 대부분 미완성으로 남은 것은 상황을 극복할만한 현장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1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쟁의 길을 묻다' 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하고 화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었다.

하지만 화쟁위원회가 불교계와 한국사회에서 거둔 성과는 높게 평가했다. 특히 불교계의 사회 참여 저변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찬했다.

정 위원장은 "화쟁을 매개로 종단과 불교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진전됐고 이웃종교계와 교류 연대도 깊어졌다"며 "공감대 형성으로 종교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화쟁위원회가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재 노력을 해주셨다"며 "지난 11월13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로 쌍용차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태만 前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파업 당시 정치권도,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화쟁위원회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처럼 앞으로도 화쟁위원회가 정치와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선발

오는 26일까지 접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승가교육과 관련 연구를 담당할 교육아사리를 위촉한다. 위촉분야는 초기, 대승, 선불교와 근현대 한국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참여불교이며 근현대 한국불교사와 계율과 불교윤리 분야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를 수지한 승납 15년 이상의 스님으로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을 갖췄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스님,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스님, 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번역 및 연구 성과가 있는 스님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 뒤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5년 1월 면접 후 위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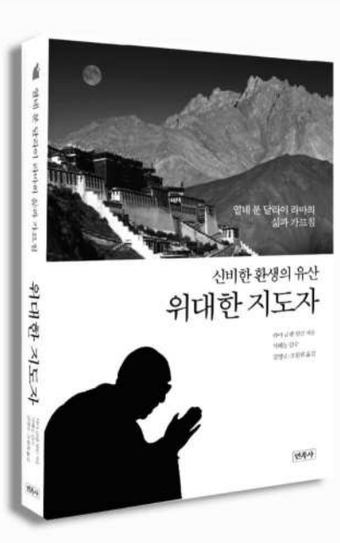
한편 교육아사리 위촉기간은 3년이며, 위촉기간 동안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또 승가교육기관 교수 임용시 우선 추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신성민 기자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쌈바와의 예언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예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 · 세속적 지도자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리마 글렌 멀린 지음
석혜능 감수
김영로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452쪽 | 값 23,500원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운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 값15,000원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전통사찰 원형 회복, 등재 지름길”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 학술세미나서 학자들 한 목소리

“한국의 전통사찰은 다른 불교국가 사찰들과 차별화 된 한국문화 아이콘이지만 전란에 의한 잦은 중창으로 원형의 연속성 등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찰 환경이 원형을 이어온 것이라는 부분을 개선해야 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다.”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있는전통사찰의 등재를 위해 원형 회복에 정부와 불교계가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자승)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세계유산과 한국전통산사의 재조명’ 학술대회에서는 역사 · 조경 · 문화 · 건축 등 분야에서의 주문이 쏟아졌다.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한국조경학회 회장)는 “잠재등록된 7개 사찰의 조경현황 중 석단의 축조기법, 지당의 디자인, 식물종의 잘못된 도입 및 위치선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경에 있어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또 유네스코에서 이런 부분이 창건 당시 전통을 이어온 부분이라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잦은 중창, 등재 단점으로 지적
연지 · 식물종 등 환경 개선 제시
사찰 역사 정확한 자료 주문

홍 교수는 전통사찰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불교전래지인 중국, 그리고 일본의 사찰과는 엄연히 다른 경관적 정체성을 보이며, 입지에서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가증 큰 특징이기에 이를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한국사찰이 가진 고유성은 사찰의 입지에서부터 발생한다”며 “자연환경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지형적 조건에 어울리도록 건물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 점, 지형처리과정에서 불교교리를 접목해 수용한 점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림 상명대 교양대학 교수도 “풍수사상이 유입되기 전인 9세기 이전 창건된 사찰은 한국적 자생풍수에 의해 입지했기에 높은 가치를 지닌다”며 “창건 당시 화엄 · 자장 · 법화 · 선교 등 각각의 사상에 기초해 창건된 뒤 시대적, 사회적, 교리적 특성을 반영해온 전통사찰은 한국불교의 특징인 통불교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 전통산사의 창건연대의 불확실성, 현재 사찰위치가 창건당시 사찰인지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며, 중창 등을 거쳤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란 요인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밝혀내는 등 입지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국난 속에 중창 등을 거쳤지만 이 과정에서 사찰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통사찰들은 전란 이후 중창과 중수를 통해 가람영역을 확대하고 수행의 전당이 된 것이 오히려 특징”이라며 “봉정사는 대웅전 영역 확대, 통도사는 삼전 체제 확대, 대흥사와 마곡사는 하천을 넘은 사역의 확대 등을 통해 사찰이 지닌 본 의미를 더욱 충실히 확보해나갔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어 “중수 과정에서 왕실뿐만 아니라 승속의 시주들이 이어진 것은 당시 한국인 모두의 염원이 모아진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해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는 한국만이 가진 선 · 교 융합의 통불교적 사상과 생활 문화의 종합적 기능을 함께 지닌 곳”이라며 “자연경관에 한국전통 건축의 미를 합친 유산의 전형으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추진위는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총 7곳의 전통사찰에 대해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 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거친 뒤 2018년까지 등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단 주차장 허용하면서 사찰 주차장은 불허”

원주 구룡사 주차장 · 소방로 공단측 반대로 무산

사찰의 소방도로와 경내 주차장 건립은 불허하면서 수익 기반을 위해 국립공원 내 버젓이 주차장을 만드는 공원관리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 원주 구룡사(주지 적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폐교부지내 계획한 주차장 건립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와 사찰 인근 상가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되면서 시름이 깊어졌다.

주지 적천 스님은 “등산객들과 사찰 신도들이 사찰 경내 주차장이 없어 3Km 이상의 먼거리를 걸어 와야 하는 등 구룡사를 출입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아 경내 폐교부지에 50대 정도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금강송 등 산림훼손을 이유로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공단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스님은 “폐교부지에 한번 가본다면 설사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해도 환경훼손이 될만한 나무들을 베어내는 일은 어불성설이란걸 금방 알텐데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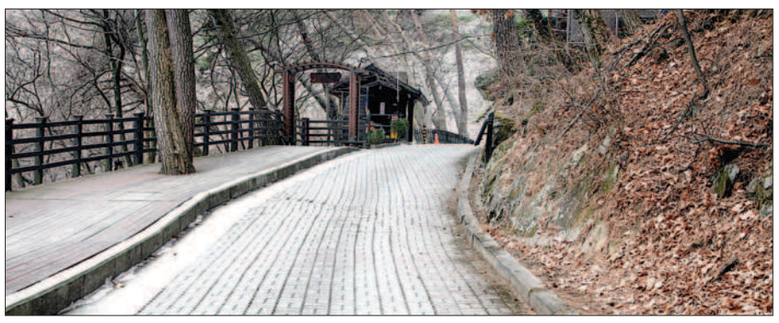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환경훼손 때문에 구룡사 주차장은 반대하면서 구룡사 반대편인 황골 입석사 인근과 신림면 상원사 방면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는 공단측이 주차장 이용객이 감소되면 수입이 격감할 것을 걱정하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구룡사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철거’에 따른 확인 소송중이다. 적천 스님은

2004년 진입로 없어 소화 못해
소방로 필요해도 공단 ‘나몰라라’
주차장 반대도 ‘이중잣대’ 논란

“차량 회차 구역과 상가들의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말로 끝나면 연장계약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요청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천 스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현안문제인 소방도로 진입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적천 스님은 “주차장 건립은 마음을 접었지만 소방로는 반드시 공사를 해야한다. 10년전인 2004년 구룡사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대웅전이 불타는 아픔을 겪었다”며 “소방도로 건립도 환경훼손이라고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원주 구룡사는 진입로가 협소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구룡사 측은 소방도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큰 화재를 경험한 구룡사는 현재 방재시스템을 만만히 갖춘 상태지만 경내까지 이어지는 소방도로는 확보하지 못해 산불이 빈번한 계절이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관련법도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된 구룡사는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찰 증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해 현실상으로는 소방도로 건설에 어려움이 따른다. 적천 스님은 “소방도로는 법적으로 6m 정도지만 현재 매표소부터 일주문 전까지 약 3백미터의 일부 구간이 4m도 채 안돼 이 구간만 확장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관리공단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차장 및 소방도로 건립을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룡사 경내 화장실에 사찰과 협의 없이 몰래 녹음장비를 설치해 구룡사가 강하게 항의하자, 치악산 관리사무소측이 녹음기를 몰래 철거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원주 구룡사=김주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3기 자문위원회 위촉

포교 · 신도종책 · 포교연구 분야에 스님 · 재가자 32명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포교의 전문 · 효율화를 위해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제3기 포교원 위원회를 위촉했다.

포교원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원 3개 위원회 2차 연석회의’를 열고 △포교 △신도종책 △포교연구 등 3개 분야에 스님 29명, 재가자 3명 등 총 32명을 포교원 제3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포교위원회 위원으로는 불암사 주지 일관 스님, 대륜사 주지 덕신 스님, 곽명희 포교사단장 등 9명이 구성됐다. 신도종책위원회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백련암 감원 진각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으며, 포교연구위원회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등 13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포교원과 관련부서에서 시행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문을 맡게 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불교 자원을 대중화 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위촉된 포교 자문위원회는 포교현장에서 쌓은 지혜를 공유해 포교원이 나아가야 할 정책에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2015년 포교원 전략 과제 및 핵심사업 등을 소개했다.

포교원은 “중앙과 교구본사 포교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한 인천 · 제주 · 서해내포 지역 포교 활성화의 후속조치에 대한 연장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역 세 곳을 선정해 연찬회와 지역별 워크샵을 가질 계획”이라며 “이밖에 불교 명상 대중화를 위한 명상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해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포교의 전문 · 효율화를 위해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제3기 포교원 위원회를 위촉하고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타행의 본보기, 영원히 기릴 것”

동국대, 9일 단원고 교사 故최혜정 동문 추모비 제막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단원고 교사 故최혜정 씨의 추모식이 모교인 동국대에서 동문 후배들의 추모 행렬 속에 열렸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2월 9일 동국대 사범대 건물 앞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최 씨의 숭고한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한 추모비 제막도 함께 진행됐다.

김희옥 총장과 유가족, 역사교육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은 △故최혜정 씨의 약력보고를 시작으로 △추모비 제막 △헌화 및 묵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추모사 △역사교육과 재학생 추모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옥 총장은 추모사에서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이 나가겠다’고 한 故 최혜정 동문의 헌신적인 마지막 말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다”며 “故최혜정 동문을 제자 사랑과 이타행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동악의 교정에 추모의 비를 세워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여기에 모인 후배들이 혜정이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 82학번 동창회는 故최혜정 추모기금 1500여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동국대는 이 돈을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불교경영자 CEO과정 법문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12월 3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CEO) 고승초청법회에서 법문했다.



민추본 10차 월례강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은 12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제10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땡큐붓다콘서트

영종불교회관 주지 자명 스님은 12월 14일 논산훈련소 내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땡큐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군종특별교구지원금 기탁

서울 구룡사 주지 각성 스님은 12월 2일 군인들에게 전달할 핫팩 지원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지정기탁했다.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법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은 12월 14일 길상사 극락전에서 창건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12월 20일부터 1박2일간 월정사에서 청년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행복' 주제 토크콘서트

혜민 스님은 12월 24일 오후 4시 수원 경기대 컨벤션센터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02)725-4277



기부자 명예의전당 조성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2월 12일 교내에 기부지 예우공간인 '명예의전당' 조성 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조경인상 수상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12월 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올해의 조경인 시상식'에서 올해의조경인상을 수상했다.



새해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

부산 새말귀선원 춘당 이황우 선원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새해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051)759-1097

"영호남 불교연구 중심처로 우뚝 설터"

이종수 남도불교문화센터 센터장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설립 최초 의미

2015년 국제세미나 개최 예정

불교기록문화유산 DB구축 계획

국립 순천대에 남도 최초의 통합 불교연구기관이 세워졌다. 바로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산하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가 그것이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이종수 센터장은 12월 10일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산하에 설립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호남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불교문화연구기관으로, 향후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 삼보사찰과 구례 화엄사, 태고종 순천 선암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남도는 신라와 백제 불교문화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신라 구산선문 중 다섯 개 산문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수행결사와 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남해 등이 있는 한국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지역 불교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습니다."

이종수 센터장은 "순천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 남도불교문화를 연구하는 최적지"라며 센터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수 센터장은 "그동안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서 HK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불교관련 연구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며 "우선적으로 조선 숙종 시대, 가흥 대장경이 남도 지역에서 유통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고문서와 금석문, 불서 등을 조사하는 등 불교기록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남도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어 "19일 오후 2시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리산권 불교문화의 위상과 연구과제'를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열며 2015년 가을에는 중국, 대만, 일본 학자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창립 기념학술세미나에는 김용태 동국대 HK교수, 화엄사 효광 스님, 순천대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이종수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선후기 지리산권 불교와 부휴계',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연구과제', '지리산권 불교의 특징과 연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계표, 조명제, 전병철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간에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식도 진행된다.

이종수 센터장은 "국립대에서 불교연구기관을 발족한 것은 불교계 연구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통해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남양주 세심사에 명상수련원 개원한 무문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장 무문 스님〈사진〉이 이끄는 명상 수련도량 '무문명상수련원'이 12월 8일 남양주 세심사에 문을 열었다.

남양주 세심사에서 열린 수련원 개원법회에서 무문 스님은 "명상은 자신과 만나는 한 방법"이라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 누구나 수련원을 찾아 염불과 명상을 함께 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문 스님은 "명상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명상을 활용한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문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장과 용산 보광사 주지를 맡아 자비나눔 실천과 도심포교에 앞장서 왔다.

무문 스님은 "명상 수행과 함께 자비실천도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군포교는 불교의 미래로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법음을 실천하도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법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 명예회장이자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으며 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학명 스님은 "명상수련원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가수 김흥국의 15번째 자비보시행

12월 13일 제15회 장학금 전달식



김흥국장학재단(회장 김흥국 · 사진)이 12월 13일 서울 이태원동 중식당 마오에서 제15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김현준 학생(화계초 6학년)외 9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 원로가수인 안정애 씨와 오기택 씨에게는 1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김흥국장학재단은 2000년 2월 26일 설립돼,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2014년 현재까지 초등학생 138명, 원로가수 7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김흥국 이사장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여 15번째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는 15~20명 정도의 더 많은 학생들과 원로 선배님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원로가수들은 저에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안타까워 장학금 전달을 갖게 됐다. 몇몇 선배님들은 장학금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기 까지 했다. 해병대 선배인 오기택 선생님은 지금 병상에 있어 직접 찾아뵙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흥국 이사장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전국사찰 순회법회를 다니는가 하면 어린이 축구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국민 803-21-0319328 (02)745-0306

이나은 기자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불출협)가 주관하는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12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불출협은 '올해의 불서10'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 심는 사람들)가 우수상에는 김성철의 〈붓다의 과학이야기〉(참글세상)와 성낙주의 〈석굴암, 법정에 서다〉(불광출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400 만원이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교직원, 학생들에게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회장 고창택)는 12월 9일 경주시내 식당에서 2014학년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경상학부 4학년 김경민 학생과 한의학과 2학년 양소은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고창택 회장은 "재직동문회가 친목단체를 넘어 후배 학생들에게 면학 의지를 높이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 생필품 전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2월 9일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중국공상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4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전달행사에서 중국공상은행 직원들은 다양한 생필품을 직접 선물박스에 담아 2인 1조로 각 가정에 배달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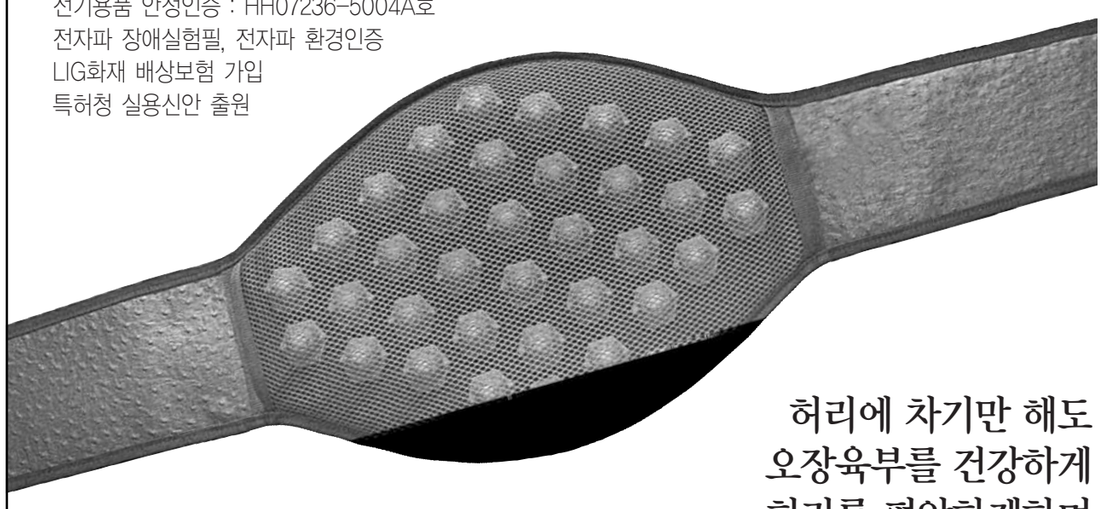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하는 부산지역 사찰 재가자 동안거에 2000여 명이 입재했다. 입재한 재가자들은 각 사찰에서 기본 수행과 선택 수행 등으로 90일 동안 정진에 들어간다. 사진은 12월 10일 미타선원 참선 수행 현장.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자 동안거 입재가 12월 5일 부산 동명불원에서 진행됐다.



미타선원 포살법회 장면. 수행경험, 마음나누기로 진행된다.

“도반과 함께 정진… 수행의 기쁨 맛보아요”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자 동안거 입재–미타선원 수행 현장

부산 재가 수행자들이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갔다. 12월 6일 전국에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재가자들은 굳건한 의지로 용맹정진을 약속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에서 주최한 재가자 동안거에 16개의 사찰 2000여 재가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부산조계종연합회는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에서 첫 재가자동안거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안거에 입재한 재가자들은 각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며 90일의 안거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재가자 동안거 입재 사찰 중 하나인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의 수행현장을 12월 10일 찾았다. 동안거에 입재한 재가자들은 수행지침에 맞추어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철원(77) 씨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 안거 입재 때 받은 수행록을 체크하며 하루 동안 행한 신구의(身口意)를 점검하고 알아차림(사띠)’ 을 더욱 견고히 한다. 이 씨는 “수행록에 있는 신행 지침들은 구체적이며 효율적이어서 신행 활동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며 수행록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재가안거수행록’ 에는 안거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기본 수행법과 선택 수행법으로 나누어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 수행법은 수행 기간 동안 매일마다 지켜야 하는 수행으로 △삼귀의 △나와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7보 선행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7보 선행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신 후 사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걸으신 뒤 “삼계가 고통에 잠겨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선언에서 기초했다. 수행뿐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희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살행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수행지침이다.

7보 선행에는 가족과 이웃, 도반을 위한 작은 선행, 환경을 위한 작은 선행, 생명을 위한 작은 선행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사랑의 표정과 언행 유지하기△웃으며 인사하기 △대형마트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상점 이용하기 △물은 한번 이상 재활용하기 △채식 위주의 식단 실천하기 등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7보 선행 중 가족과 이웃, 도반을 위한 선행을 실천 중이라는 김유리자(75) 씨는 “가장 먼저 제 마음의 변화를 가족들이 느끼고 행복해한다”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마다 제 자신도 행복해지니 남편도 수행 뒷바라지를 해주며 격려해 준다”고 말했다. 선방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강혜숙(63) 씨는 “총무라는 소임은 봉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웃을 위한 수행 발심 후 더욱 하심하게 되고 봉사하는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본 수행과 함께 재가자들은 선택 수행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수행의 깊이를 더한다. 선택 수행은 재가안거를 운영하는 각 사찰에서 추천 혹은 제안한 수행법으로 108배, 108 관음염송, 108미소자각, 참선, 사경, 경전 7독, 기도문 · 발원문 염송 등이 포함된다.

미타선원의 선택수행으로는 금강경 1품 독송, 매일 10분 이상 명상, 월1회 이상 법회 참석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안거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성장을 발원한다는 심경옥(54) 씨는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며 법회에 꾸준히 참석해 제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복적인 서원에서 벗어나 지혜가 성장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짐을 전했다.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수행 시스템 외에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자자포살법회도 진행한다. 수행 경험 · 마음 나누기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자자포살법회는 보름 또는 한달 동안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으로 각 사찰 일정과 여건에 맞게 진행된다. 또한 수행에 대해 주지 스님의 법문과 도반들의 수행과정 및 경험을 나누며 수행 정진을 독려한다.

부산지역 16개 사찰 동시 입재
2000여 재가자 용맹 정진
기본 · 선택 수행법 등 지침 제공
“수행 습관 기르는 계기 마련”



재가자동안거에 입재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들.

미타선원도 12월 9일 지장재일을 맞아 첫 포살법회를 진행했다. 포살법회에 참여한 이선혜(60) 씨는 “다른 도반들의 수행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에 대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다”며 “재가안거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행 중이었는데 우연히 참가한 포살 법회를 통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포살 법회 후 재가자 동안거에 바로 등록했다. ‘도반이 수행의 전부’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원장이자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수행에 동참하며 가져야 할 주의점에 대해 꾸준함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하림 스님은 “수행록을 확인 체크하며 매일마다 수행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 내어 꾸준히 하다보면 그 길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수행에 투자하고 시도하면 안거를 마칠 때 즈음 정말 잘 다듬어진 나만의 수행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격려했다.

한편, 재가안거수행 프로그램은 12월 6일부터 90일간 진행, 2015년 3월 5일 해제한다. 입재후에도, 안거기간 동안 수행 정진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수행점검 받기를 원하는 재가 신도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동참금 2만원과 함께 재가안거를 진행 중인 각 사찰 중 한 곳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해제식 때는 안거증도 수여 받는다.

또한 재가안거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하는 사찰은 조계종부산연합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sbuddhism에서 운영사찰 신청서를 다운 신청하고 등록하면 된다. (051)501-7554

부산지역 재가자 안거 참여 사찰

사찰명	전화번호
해인정사	(051)291-1176
선암사	(051)803-7573
영주암	(051)754-2210
관음사	(051)294-9300
가야사	(051)809-0428
동명불원	(051)626-4337
황련사	(051)756-5794
홍법사	(051)508-0345
혜원정사	(051)866-7771
발원사	(051)403-6893
대광명사	(051)742-7610
원오사	(051)542-7949
미타선원	(051)253-8687
수도사	(051) 891-3912
대운사부산불교학당	(051)701-7559
감인선원	(051)723-2216

하성미 기자



'붓다스터디' 개척자학교 제1기 수료자 배출

내년 1월 6일부터 중급과정도 개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부설기관인 불교아카데미는 김재영 법사를 모시고 '붓다 석가모니' 영상 10부작을 교재로 하는 '붓다 스터디' 개척자 학교를 개설, 지난 12월 2일 2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청보리'가 제작한 10부작 영상 '붓다 석가모니(Buddha Sakyamuni)'를 교재로 하는 '붓다 스터디 개척자 학교'의 첫 수료자가 배출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부설기관인 불교아카데미는 김재영 법사를 모시고 '붓다 석가모니' 영상 10부작을 교재로 하는 '붓다 스터디' 개척자 학교를 개설, 지난 12월 2일 2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붓다스터디 개척자 학교는 부처님의 생애를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 역사적 통찰일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개척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1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친 강의에서 김재영 법사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이전에 '다함없는 사회적 헌신의 과정, 개척과 변혁의 과정 그 자체'다. 불교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되, 순간순간 그것을 넘어서는 고결한 정신적 각성의 삶, 청정범행(Brahma-cariya)"등을 갈파하며 "사회 · 개인적 불의 · 불법을 대면 · 대결하고 극복해 가는 것만이 불교가 앉은뱅이 관념론에서 탈피하고 개척정신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개척자학교 제1기 중급과정도 개설한다. 2015년 1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5강으로 매주 화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기초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집중강좌가 12월 16, 23, 30일 열릴 예정(문의 02-2278-3419)이다. 이 밖에 경기남부지역 개척자학교 기초과정이 12월 17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문의 031-251-108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봉은기초학당 수강생 모집

주 · 야간 200명 선착순…1월 6일 마감

봉은사(주지 원학)는 불교의 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봉은기초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주 · 야간 각 200명 선착순모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주간반, 오후 7시 30분 야간반으로 구성되어 2시간씩 교육 진행된다. 총 11강 3개월 과정으로 내년 1월 13일에 개강한다.

조계종인가 기본교육기관으로 알려진 봉은기초학당에서는 은사 스님들이 기초예절부터 예불과 기도, 사찰의 의미와 구조, 삼보의 이해 등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수강생들을 지도한다. 또한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야간반은 도심 속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접수마감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등록비 5만원으로(교재비 포함) 직계가족 동반시 한사람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교무교육팀, 새신도안내연등,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봉은사에서 운영하는 선불합창단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에 불교대표로 초청돼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선불합창단은 '살아 있음에' '금시벽해' '금시조' 등을 부른다. (02)3218-4822

이나은 기자

사찰 해맞이 하며 '送舊迎新'을

송구영신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30여 곳에서는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이번 해맞이 템플스테이는 남녀노소 모두 함께 새 아침을 여는 뜻 깊은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올해도 15일 남짓 남았다. 힘들고 번잡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이다. 신년을 맞기에 고즈넉한 산사만한 곳은 없다. 거기에 재미있는 해넘이 해맞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30여 곳에서는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이번 해맞이 템플스테이는 남녀노소 모두 함께 새 아침을 여는 뜻 깊은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특히 송구영신 법회를 여는 사찰들은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전부터 타종식을 비롯한 풍등띄우기, 송년기도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또한 다음 날 새해에는 아침 일찍부터 해맞이를 위한 산행을 비롯해 숲길걷기, 탑돌이 등을 진행한다.

먼저, 천년고찰 화엄사에서는 '2015년 해맞이 노고단 등반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 예절, 스님과의 차담, 노고단 등반 및 새해 서원 세우기 등을 진행하며,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도 '굿바이 2014년, 2015년 행복선언'이라는 주제로 민속놀이, 닷집 태우기, 풍등 띄우기, 타종체험, 꿈등 발원 등 재미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 산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 노고단 일출 등반부터
풍등, 타종 등 프로그램 '다채'
가족 위한 템플스테이도 눈길

이와 함께 가족, 친구와 함께 하면 좋을 가족형 템플스테이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푸른 숲 맑은 도량으로 잘 알려진 가평 백련사의 '2015년 한바탕 웃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자! 소망 템플스테이'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소통과 나눔의 장에서는 동요 부르기, 사랑하고 반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소원등과 소원지 쓰기 등 서원의 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본다.

대구 동화사의 '조용한 양들의 대화'에서는 소망편지 쓰기, 촛불명상, 타종, 비로봉 일출, 다도 등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용솟음 템플스테이'로 희망찬 새해를 여는 계룡산 갑사도 눈여겨 볼만하다. 소원을 담은 108 염주와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차담을 비롯해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영광 불갑사의 '새해맞이 행복한 템플스테이'에서는 108배, 사경, 사불을 비롯해 소원지 쓰기까지, 산사이기에 더욱 특별한 행복 체험을 만나본다.

성주 심원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월 2~4일은 고등학생을, 1월 28~30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가야산 트레킹' '소금 만다라 명상' '별빛 달빛 축제' 발우공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54-941-6887)

이 밖에도 '선무도와 함께 하는 2015 해맞이 템플스테이(골굴사)', '다~잘 될거야(법주사)', '산사에서 따뜻한 송년의 밤 보내기(용문사)' 등 전국의 다양한 사찰에서 풍성한 해맞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강화 전등사는 새해 희망을 기대하는 타종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등사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경내에서 '2014 타종식 일념통천(一念通天)'를 개최한다. 법고를 시작으로 희망을 발원하는 촛불기원을 비롯해 풍선에 새해 소원을 담아 띄우는 행사등이 마련됐다. 행사 전에는 가족영화제, 고구마 · 떡국 나눠먹기 등이 진행되며 새해 아침에는 삼랑성을 돌며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월정사는 12월 31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월정사 전나무 숲에서 '기쁨해 새해맞이 삼보일배와 탑돌이'를 거행한다.

행사 일정은 작은음악회 진행 후 전나무 숲으로 이동해 약 1㎞를 삼보일배 하며 탑돌이를 봉행한 후 1월 1일 0시에 월정사 동종을 타종할 예정이다. 참가 제한은 없으며 삼보일배를 위한 무릎 보호대와 팔 토시 등은 지참해야 한다.

월정사는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경제속에 서로반목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삼보일배와 탑돌이를 통해 녹여내고 새해에는 서로를 위해 보듬는 자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 이나은 기자

2015 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지역	운영사찰	프로그램 제목	내 용
서울/경기	화계사	송구영신 법회	108배, 송구영신 법회(타종식), 해맞이, 스님과의 차담
	법륜사	해맞이 행복선언 템플스테이	닷집 태우기, 풍등 띄우기, 재야 타종체험, 한남정맥 문수봉 해돋이, 떡국공양, 새해 꿈등발원, 스님과의 다담
	백련사(가평)	2015년 한바탕 웃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자! 해맞이 소망 템플스테이	소통, 나눔의 장(2014년을 내려놓기, 동요 부르기, 사랑하고 반성하고 용서하기), 서원의 장(컵등 만들기, 소원지 쓰기), 나를 깨우는 108배, 떡국공양, 차담
	용주사	송구영신 템플스테이	촛불명상, 서원 세우기, 타종식, 해맞이
	흥국사(고양)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08배 염주 만들기, 윷놀이, 연등만들기, 탑돌이, 발원문 작성, 새해맞이 일출, 다도체험
강원	월정사	비로봉 새해 해맞이	스님과의 차담, 소원지 쓰기, 비로봉산행
	삼화사	삼화사 해넘이	추암일출, 떡국공양
	백담사	해넘이 해맞이 희망 템플스테이	108배, 촛불발원, 타종, 동해바다 해맞이, 시심즉불
충청	서광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버킷리스트 만들기, 탑돌이, 풍등 띄우기, 일출, 차담
	갑사	새해맞이 용솟음 템플스테이	소원을 담은 108염주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스님과의 차담, 윷놀이
	법주사	새해 첫 아침, 속리산 법주사에서! 다~잘 될거야	새해 특별 축원이 담긴 법문, 소원지 만들기, 108배와 명상, 수정봉 해맞이, 떡국 공양
	영평사	장군산 영평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소원등 만들기, 소원지 만들기, 소원초 밝히기, 스님과의 차담, 장군산 해맞이, 민속놀이, 떡국공양13
경상/부산/대구	골굴사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5 해맞이 템플스테이	선무도와 동해에서 해맞이
	불국사	–	108배 참회와 다보탑돌이, 석굴암 일출, 떡국공양
	심원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108배, 소원지 쓰기, 탑돌이, 윷놀이, 타종체험, 떡국먹기, 일출
	은해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해맞이, 새해 타종, 모닥불 놀이, 소원탑돌이
	옥천사	–	송년기도(저녁예불), 법문, 소원지 쓰기, 타종식, 야외 장작불, 해맞이
	용문사(예천)	산사에서 따뜻한 송년의 밤 보내기	나에게 쓰는 편지, 따뜻한 송년의 밤
	범어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타종식 체험, 떡국먹기, 일출
	동화사	조용한 양들의 대화	조용한 양들의 대화(팀별, 가족별), 새해소망편지쓰기, 촛불명상, 재야타종, 비로봉 일출, 다도체험
전라	미황사	해넘이 해맞이	새해타종, 해맞이 산행, 참회와 발원, 108염주 만들기
	화엄사	해맞이 노고단등반 템플스테이	사찰예절, 차담, 노고단 등반 및 새해 서원 세우기
	불갑사	새해맞이 행복한 템플스테이	연실봉 해맞이, 108배, 소원지 쓰기, 사경, 사불
	송광사(순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망수봉 일출
	쌍봉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소원지 쓰기, 소원 빌기, 계당산 해맞이
	개암사	우금암 해맞이 템플스테이	해맞이 숲길산행, 108염주 만들기, 소원문 쓰기, 차담
	실상사	해넘이 해맞이	둘레길 걷기, 만두 빚기, 타종체험, 발원문 쓰기, 자비명상, 해맞이 산행(약수암)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www.hyunbulshop.com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캠프하고 장난감 빌리고… 도서관의 진화

도서관이 다양해지고 있다. 개수도 종류도 폭넓어졌다. 자치구마다 한 곳 정도 있을까 말까했던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동네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으로 도심 한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책만 빌리는 줄 알았던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대출하기도 하고 캠프를 벌이기도 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도서관에는 역동성과 자생력이 숨어 있다. 탑골공원에 이동도서관을 설치한 것 역시 어르신들이 직접 이러한 생동감을 이끌어내 탑골공원을 특색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교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도서관을 모아봤다.

장난감도서관

아이들의 급변하는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장난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영유아를 둔 가정들은 서로 장난감을 돌려쓰고 나눠써보지만 아이들은 정을 뗀 장난감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호기심을 채워줄 도서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장난감을 책처럼 대여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백, 수천 점에 달하는 장난감을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다. 가계비 부담도 덜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최근 부모들에게 인기다.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선) 부설 '부곡장난감 대여센터'의 경우 3천점의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다. 걸음마 연습 기구, 미끄럼틀, 미니자전거 등이 인기 대여 품목이다. 3천원에서 8천원까지 크기별, 기능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으며 한번에 4개까지 빌려갈 수 있다. 기간은 3주다.

육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초보 부모들을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놀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장난감을 이용한 작은 운동회' 등을 통해 각종 육아 정보도 공유한다. 회원간 육아용품 바자회도 종종 열린다.

이동도서관

서울 탑골공원에 가면 책이 가득실린 파란색 트럭을 자주 볼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운영하는 탑마을 이동도서관이다.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장서수는 약 천여권에 달한다.

공원을 찾는 어르신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여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30여명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이 구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다.

가을이 되면 북콘서트를 통해 참가자들이 소개하고 싶은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로 책을 공유 할 수 있는 '도서 바자회' 등도 이루어진다.

대상별 '특화' 도서관 변화 늘어
한옥 · 장난감 도서관 등 '눈길'
책읽는 공간넘어 복합적 기능

한옥도서관

지난달 11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 도서관이 생겼다. 한옥으로 지어진 어르신 전용, '별별별 도서관'이다. 노년기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의 발달을 돕기 위한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여느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루와 평상을 살려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관 스님은 "한옥이라는 특성을 살렸다"며 "어르신 도서관이지만 손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에 탄력성을 뒀다"고 말했다. 도서관에 손자녀를 맡기고 어르신들이 편히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어린이도서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학수)이 운영하는 반달어린이도서관은 수원시에서 2004년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도서관이다. 3만2천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만 책을 대출할 수 있다.

도서관이 즐겁고 재미있는 장소라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루어진 옹기종기 봉사단이 매주 마다 동화구연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형극 해님달님의 공연도 이루어졌다. 분기별로 어린이가 추천한 도서를 전시하며 서평쓰기 등을 통해 또래끼리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한편 삼전복지관(관장 현관)내에 위치한 삼전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나 사서가 없다. '동화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임'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도서 대출, 반납도 어머니 자원봉사자 몫이다.

지난 8월에는 도서관 내에서 1박2일 캠프도 진행했다. 친구들과 함께 책과 관련한 다양한 그룹 작업에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이순신, 유관순 등의 연대기를 책을 찾아 만들어보고 신문지 등으로 역사적 인물이 입었던 옷을 표현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잠자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초심 되새기며 자비행 다짐… 근속자 표창

조계종자원봉사단, 연말연수


조계종자원봉사단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비보살행 실천에 앞장 선 조계종직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해를 회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연말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근속 우수자원봉사자 25명과 15년 이상 활동해온 자원봉사 16개 팀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와 군법당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목우재 팀의 정진숙 씨는 "10년 넘게 봉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봉사자들은 해금 연주 등의 공연을 즐기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동료 봉사자와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12월 치료비지원 환자 선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 판리판록… 섬유증 앓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치료비 지원 선정 환자로 판리판록(남/33세/피부 흉터병태 및 섬유증)씨를 선정했다.

판리판록씨〈사진〉는 10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다. 일용직을 전전하다 거제 조선소에 용접공으로 취직해 일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얼굴을 비롯해 손, 허벅지 등이 심하게 손상돼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지만 귀와 코가 심하게 변형되고 눈썹까지 잃었다.

현재 환자는 화상 후 비후성 반흔을 비롯해 흉터병태 및 섬유증 정도가 심해 일생생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향후 3차례 이상의 재건성형수술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무하던 회사 측에선 초기 화상치료비는 지원해줬으나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치료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환자를 퇴사 처리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판리판록씨의 가족이 사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모두 그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마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판리판록 씨가 병원비를 마련해 다시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서울 최초 父子가족시설 선재누리 개관

진각복지재단 운영, 20세대 5년간 거주 가능


12월 8일 선재누리 개관식 당일 관계자들이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 부자가족복지시설 '선재누리'가 12월 8일 서울 성동구에 개관했다. 불교계 최초의 부자보호시설로 진각종유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운영 및 관리한다.

선재누리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입소 기간은 3년이지만 심사를 통해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선재누리는 대지면적 2,921.6㎡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하에는 식당, 공부방, 상담실 등 공동 생활공간이, 지상에는 방2칸과 거실 겸 주방이 갖춰진 독립된 생활공간이 갖춰져 있다. 부자가정 한 세대가 생활하게 되는 공간은 17평 정도다. 총 20세대(총60명)를 수용할 수 있다.

선재누리는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구도자인 선재동자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구도의 이상적인 모델인 선재동자처럼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부자 가정은 2010년 기준으로 25만 가구에 달한다. 전국에 한부모 복지시설은 총 124곳이지만 대부분 모자시설이며 부자를 위한 곳은 두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 '아담채'에 이어 선재누리가 두 번째다.

회정 정사는 "부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이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리사 뿐 아니라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사무직원 등 선재누리에 상주하는 직원도 6명이다. 아이들이 방과후 방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사인 생활지도원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시설에는 16세대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달 말 한 세대가 더 입소할 예정이다.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없으며 신청은 서울 성동구청 보육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02)2286-5433

배현진 기자

장애인 작가 고정욱의 희망이야기

홍천군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교양 강좌


고정욱 작가(사진 좌)와 시민이 고작가의 책을 가운데 들고 웃음짓고 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에서는 12월 8일 장애인 작가 고정욱 씨를 초청해 장애인식개선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고정욱 씨는 베스트셀러 아동도서인 〈가방 들어주는 아이〉 〈까칠한 재석이 뿔났다〉 등 다양한 집필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250여권의 저서를 발간한 저명한 동화작가다. 하지만 어릴적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가 1년 평균 135회 이상의 강연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다.

이날 고정욱 씨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소재로 장애인의 삶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장애인에게는 희망이 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배려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강좌에는 복지관 이용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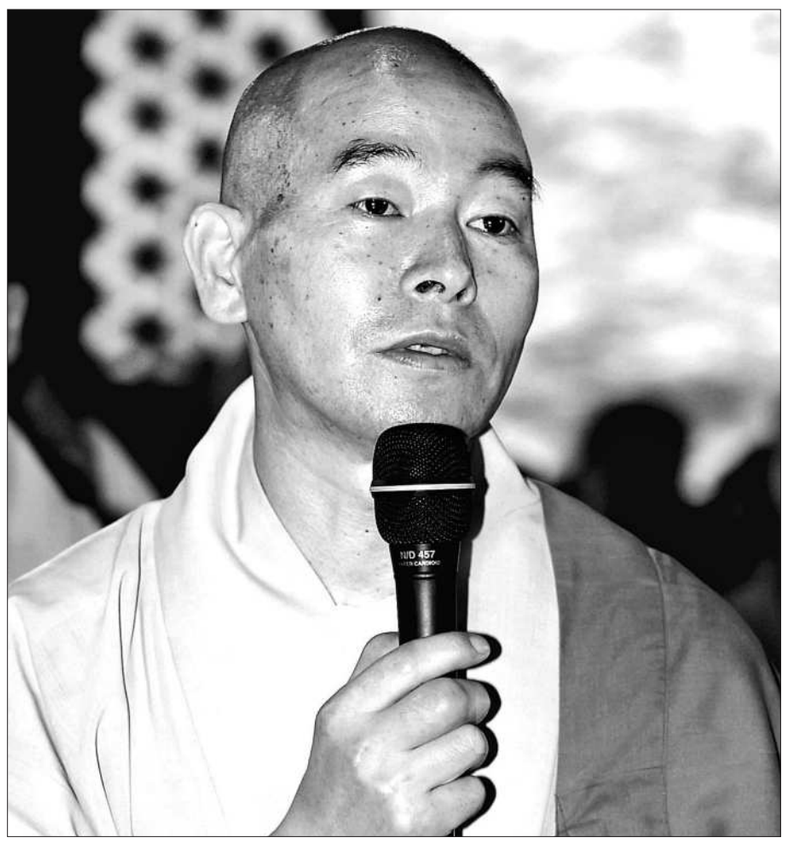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 사 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 전 문 과 정 2년
• 연 구 과 정 4년
• 교수사과정 7년
◘ 개 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 록 금 : 년 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

“네 가지 相 타파하면 일체가 무진법문”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삶은 고(苦)라고 한다. 특히 요즘을 사는 현대인에게 삶은 버겁고 흉흉하기만 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우리의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편해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4가지 상을 타파하면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이자 무진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다음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11월 18일 법문한 내용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지현 스님은 …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77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해인율원을 졸업했다. 이후 송광사 재무국장과 해인사 도서관장 및 승가대학 학감을 거쳐 1989년부터 부산 관음사 주지로 있다. 현재 송광사 율주,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 대표이사, 두송자활후견기관 관장,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대표이사, 사단법인 동련 이사 등을 함께 맡고 있다.

신도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촌락을 떠돌며 유리걸식하던 거지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도, 고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돌다가 고향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눈물이 흐를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부처님의 본성, 자성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육도윤회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0~50년을 눈뜬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살다가 부처님을 만나 이제 눈이 뜨이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의롭겠습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 금강경을 읽고 또 읽어서 나와 금강경이 하나가 될 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금강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모든 생명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 사람의 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그리고 또 나를 칭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까지 전부 부처님의 무진설법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온갖 번뇌 망상을 다 비워 버려보세요.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이가 엄마를 보면 반가워 날 뛰는 듯한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도 졸음만 오고 한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업(業)이 지중하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무겁고 업은 두텁고, 복은 가볍고 정근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이 맑고 복이 두터운 정근이 깊은 사람은 한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공경합니다.

인욕바라밀을 성취해야

부처님이 연세가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친척이었던 코살라국의 왕이 부처님 고국인 카필라국을 공격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땀을 흘리며 앉아 있는 부처님을 보고 유리왕이 인사를 드리며 말합니다. “시원한 나무그늘도 많은데 왜 하필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 앉아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친족의 그늘은 이 세상 어떤 그늘 보다 시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코살라국 왕은 발걸음을 돌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세 번은 코살라 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을 업신여겼던 과보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은 전쟁을 말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필라국의 많은 백성들이 코살라국에 억압당하고 잡혀가고 죽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활절신체(活截身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다”고 하십니다.

> “금강경 심오한 가르침 알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공경하며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내려놓을 때 세상 변하게 돼”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를 성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내는 듯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 몸을 찢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인욕바라밀의 성취입니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 해결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일’

1963년 베트남의 사이공 시내에서 틱광득 이라는 스님이 베트남전쟁과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붐비는 사거리에서 분신을 합니다. 틱광득 스님은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가만히 미동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 분신사건을 접한 틱낫한 스님은 ‘권유’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약속하세요. 하늘 한가운데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동안 내게 약속하세요. 누군가 태산 같은 증오와 폭력으로 당신을 산산이 부수더라도, 한 마리 벌레를 대하듯 당신의 삶을 짓밟더라도, 당신의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다 꺼내더라도, 형제여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란 걸. 오로지 당신의 사랑과 자비만이 스러지지 않고 멸함이 없으니, 증오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중략)”

틱낫한 스님은 시를 통해 진정 나의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사실을.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해와 달이 우리를 지켜주듯,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원망과 미움을 갚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198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다툼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눈을 꼭 감으면 한마디도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십쇼. 미움과 분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공격하는 중국 사람들을 티베트 난민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랑을 티베트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부처님의 말씀이고 행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거기다 모든 권력을 다 주신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태양보다 빛나고 달보다 밝고 바다보다 넓은 그런 모든 덕성을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만 그렇겠습니까.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도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나를 내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이들, 실패한 이들, 범부이든 흉악범이든 그 마음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와 중생 차별 없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평등한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치는 모든 사람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내가 해침을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현생의 몸을 갖고서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전생에 남을 해쳤던 업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해침을 입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희망 줘야

우리는 무량 겁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원력을 세우면서 정근을 지어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량겁의 생에서 나는 이번 생에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허허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해 한다는 것은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편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4가지 상의 타파를 수행의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아상(我相)은 자의식.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말하죠. 내가 생기면 남이 생기고 비교하게 됩니다. 인상(人相)은 비교의식을 말합니다. 당신의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그 마음을 열등의식, 즉 중생상이라 합니다. 저 역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대인공포증이 생기는 등 그런게 다 열등의식 아닐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나를 부정하고, 나를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나고 모자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밖에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남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남들에게 간·쓸개를 빼놓고 살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에도 권모술수를 쓰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금강경에 의지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무진법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한량없는 공덕이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세계이고 마음이 세계입니다. 좀 더 접근하면 가정이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세계가 파괴된것 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식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며 절을 하세요. 자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수자상). 나는 중생이라는 한계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절을 세 번씩 꼭하십쇼.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버리는 일이고, 버리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업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마음을 부처님 공덕으로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못난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고요히 부처님과 나는 동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시오.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세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경전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나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 연관이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만 덕을 보려는 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산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정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삿된 법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부 정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정법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부 삿된 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대인(훌륭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대법이 되지만 이미 사소한 일에 집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대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야기 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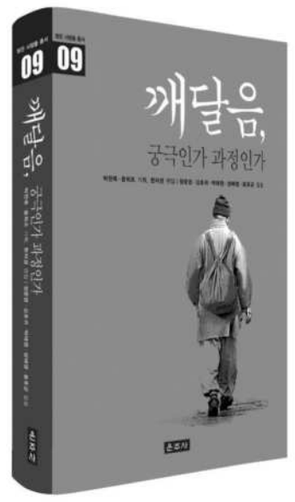
밝은사람들 총서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3672-7181 • 팩스 0505-7181 • 주문 02)3672-7181 • 다음카페 :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종교에 음식문화가 미친 영향 최초 연구

김미숙 교수팀 '인도종교 음식문화와 심신수행 기제연구' 진행


인도 알라바드 지역에서 힌두교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인 '마하 쿰' 페스티벌에 참석한 힌두교도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고 있다. 김미숙 교수(사진 원 안)의 연구팀은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의 음식문화와 수행전통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인도에서 음식문화는 불교의 생성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대 종교의 심신수행에 있어 음식문화가 미친 영향을 고찰 하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음식과 수행, 심신발달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국내 최초로 진행된다.

김미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원)는 12월 8일 '인도 종교의 음식문화와 심신 수행의 기제연구' 가 한국연구재단 2014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숙 교수는 1년간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연구팀에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와 김재민 동국대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겸임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김 교수의 연구팀은 인도종교의 음식관을 분석하고, 각 종교의 생성단계에서 이러한 음식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각 종교는 수행법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를 밝혀낸다.

특히 중세 인도에서 서민들이 쓰던 프라크리트어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로 된 원전과 한문경전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배경과 사상적 기반도 연구할 예정이다.

1차 연구과제로는 인도의 3대 종교로 꼽히는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각 종교에서 규정하는 음식에 대한 원칙과 관습이 어떠한지 먼저 조사한다. 이어 고유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해 각 종교별로 심신수행의 기제 이론을 정립한다.

2차 연구과제로는 3대 종교를 통합한 인도종교 특유의 심신수행론과 음식관을 도출해낸다.

음식문화와 심신수행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는 그동안 연구가 된 바 없는 미답의 영역이다. 인도 종교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번 과제와 일치하는 선행연구 또한 찾기가 힘들다.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지원도 최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10년 넘게 발전하고 있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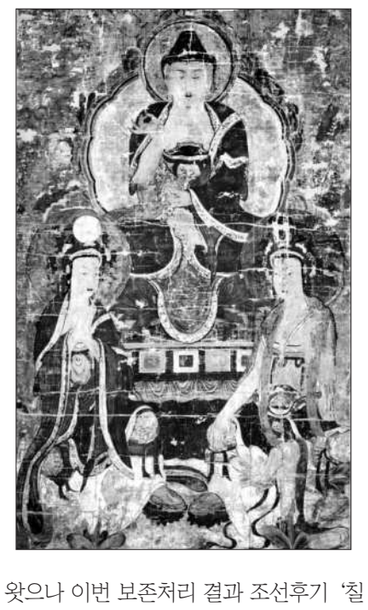
김 교수는 "연구주제를 불교 · 힌두교 · 자이나교의 음식관으로 압축한 이유는 불교와 자이나교는 슈라마나 전통을 대표하는 출가 중심의 종교이며, 힌두교는 브라마나 전통의 재가 중심 종교로서 두 전통 사이에는 식생활에 대한 차이로 매우 독특하며 상이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세 종교의 음식관의 차이점으로 인도 종교문화 변천에 미친 영향과 불교 전래과정에서 각국 사상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인도 종교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까닭에 향후 종교와 음식관계 분야의 초석이 될 연구"라며 "한국 사찰음식 심화에서 신선한 동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년의 노력… 세상에 나툰 영국의 '칠성도'

국립중앙박물관 복원, 영국박물관 "삼존도 인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최근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 칠성도(七星圖)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박물관은 2011년 '한국회화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상호협약' 을 맺고 한국회화 보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칠성도는 2012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진행됐다. 영국박물관은 보존 처리된 한국회화를 모아 한국실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칠성도는 족자 형식으로 장황된 견본채색화로 1950년대부터 영국박물관에 소장돼왔다. 가로 꺾임에 의한 균열과 결실부분이 많고 화면 오염이 심해 그 동안 전시되지 못하고 보관만 되어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덧칠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 원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했다. 영국박물관에서 칠성도의 훼손이 너무 심해 그동안 '삼존도' (Seated Buddha and two attendant Bodhisattvas)로 명시해 왔으나 이번 보존처리 결과 조선후기 '칠성도' 라는 것이 밝혀졌다. 노덕현 기자

"가람은 출재가 공동의 수행·문화공간"

원행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제6차 세미나서



"가람의 본의미는 출 · 재가가 수행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21세기 가람은 지금까지의 부처님의공간, 스님들의 수행공간에서 더 나아가 재가자들의 신앙공간이며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꿔가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찰 토지를 활용하고, 신규 불사시 불자들의 문화공간, 법회장, 주말농장 등 일상과 소통하는 공간 구성을 배려해야 합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사진〉은 중앙승가대 부설 불교학연구원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사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불교학연구원이 개최한 제6차 불교학연구원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문화와 사상 속에서의 가람' 을 주제로 '문헌' , '회화' , '민속' , '유구와 출토유물' 등 분야에서 가람이라는 불교건축구조와의 연관성이 모색됐다.

원행 스님은 '불교사상 속의 가람' 기조강연을 통해 "오늘날 가람은 '승려가 살며 불도를 닦는 곳' 으로 정의하지만 5세기까지만 해도 승려거주지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거주와 생활 공간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지칭했다"며 "가람은 불법승의 삼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불교를 신앙화 하는 공간이기에 승려 만의 공간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금산사의 가람불사사례를 예로 들었다. 원행 스님은 "2005년부터 8년간 10여채의 당우를 불교전통에 의해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문화기념관을 세우고 대불련 총동문회, 한전반야회 등의 법회장소, 합동수계식 공간, 템플스테이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외형적인 불사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 사찰 측에서는 가람불사에 있어 재가신도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용범 부산대 교수의 '송광사의 불사와 경제관계'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불교회화 속 건축이미지와 가람' , 중앙승가대 오인스님의 '가람의 한국민속적 요소와 의미' △히시다 테츠로 (菱田哲郎) 교토후리츠대 교수의 '유물로 본 고대 일본의 불교가람'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정조문선생 유지이어 문화재 환수를"

동북아불교미술硏,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대회



재일교포 1세대로 일본에 산재한 한국문화재를 수집해 교토에 고려미술관을 세운 故정조문 선생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기념전이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주최 하에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정조문 선생〈사진〉의 생애를 그린 영화 '나는 재일조선인이다' 상영을 시작으로 문을 연 학술대회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고려미술관 소장 불교문화재 현황' 을 통해 정조문 선생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故정조문(1918~1989) 선생은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출신으로 6살 때인 192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재일 조선인이라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를 모았다.

최 위원은 "정조문 선생이 세운 교토의 고려미술관에는 현재 1700여 점의 한국문화재들이 있다. 이는 정조문 선생이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일본인의 손에서 '조선' 을 되찾아야겠다는 집념으로 문화재를 수집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정조문 선생은 '남북통일이 되면 유물을 조국에 기증하라' 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통일 조국을 염원했던 문화애국자"라며 "정조문 선생의 바람과 같이 교토 고려미술관의 한국문화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다시 재현한 작가들이 작업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전통 제작 방식을 밝히기도 했다. △노정용 대안조형연구소 소장은 '고구려 소조불상 제작 과정 연구' 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고구려 소조불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제작한 것이기에 일본 교토 후지이유린칸,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에 분산되어 있는 완형과 편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봉석 목조조각장의 '고려미술관 색난스님 作 목조불감의 재현' 등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는 '잊혀진 문화재…정조문을 만나다' 를 주제로 관련 전시회를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폭설로 보물 대조사 미륵보살입상 파손

문화재청 12월 7일 긴급보수 실시


사진 원 표시 부분이 파손된 갓부분

문화재청은 보물 제217호인 충남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머리를 장식한 보관(寶冠)의 일부가 지난 7일 폭설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적설량 120mm를 기록한 이번 눈에 부여군 보호수 제163호인 불상의 주변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보살입상의 보관을 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는 지난 1979년 8월7일부터 부여군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된 부재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은 고려시대인 12세기에 제작된 높이 10m의 대형 석조상이다. 노덕현 기자

베일에 가려진 경주 월성 발굴된다


경주 월성 디지털 조감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한국 고대사에서 베일에 가려진 신라 궁성인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발굴조사를 시행한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2월 12일 관련기관 관계자, 경주시민, 관심 있는 일반인을 초청해 고유제(지역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조사단의 안전과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발굴조사 전 과정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월성 발굴조사가 다른 유적 발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지역 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광자원화 해 신라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 힐링 베 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 답답, 우울, 수면 장애, 어깨 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 (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지장본원경’ 원력 모아 최고의 지장성지로

12월 7일 선운사, 지장보궁에 황금경판 봉안

지장기도 성지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 지장보궁에 황금으로 된 지장경판이 봉안됐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12월 7일 지장보궁에서 ‘지장본원경 황금경판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법회에는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재덕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 등 선운사 스님들을 비롯해 박승규 24교구 신도회장과 울산, 부산, 대구, 밀양 등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지장기도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대중들의 지장경 독송을 시작으로 관욕, 상단불공, 법공양, 승가공양, 축하공연, 관음시식 등으로 진행됐다.

봉안된 〈지장본원경〉 경판은 총 41장으로 옥천사 지묵 스님이 1년 6개월간에 걸쳐 새긴 것이다. 폭 40㎝, 길이 2m 80㎝의 은행나무에 17,096자의 〈지장본원경〉을 석보체로 양각했다. 지묵 스님은 제작기간 동안 직접 글자를 새긴 뒤 7번의 옻칠과 한 자 한 자 글자마다 금박을 입혔다.

원로 재곤 스님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보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부질없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경판 봉안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에 감사인사를

1년 6개월간 새긴 41장 경판

석보체 양각·옻칠 후 금박 입혀

기도모임 회원들 승보공양도 진행

전하고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며 “지장기도 내지 참회기도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미래까지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 지장보궁 기도모임 회원들은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원로스님들과



12월 7일 지장보궁 내에 황금경판으로 된 〈지장본원경〉이 봉안됐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스님들께 승보공양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로스님들은 이 공양금을 모두 어린이 포교와 복지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다시 고창어린이집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 지장보궁 기도모임 회원들은 선운사 신도회와 함께 자비의 쌀 2,000kg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봉안법회에 이어 지장전 앞마당에서는 최근 음반을 발간한 백양사 수안 스님, 국악인 김영임, 가수 한태진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매 주말마다 지장기도 철야정진이 진행된다. 이날 법회에 이어 지장천일기도 중 400일기도 입재식도 함께 봉행됐다.



선운사 신도회의 자비의 쌀 전달식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0일 대적광전에서 불기 2558년 갑오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89명의 동참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라”며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화림선원에서 열린 17교구 교구종회는 불기 2559년도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계획안의 승인에 이어 2558년도 말사 종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계층아동 초청 사찰음식 체험전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과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초청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전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로 진행됐다.

강의를 진행한 이승환 국장은 “사찰음식의 정신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수 있도록 진행했다”며 “아동들 입맛에 맞게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 영양바와 연잎밥 등을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아동센터 설민자 센터장은



“웰빙음식인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손쉽게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2015 봉축, ‘견우와 직녀’ 주제로

광주불교연합회 12월 9일 세월호 아픔 딛고 확대 개편

광주불교계의 2015년 봉축 계획이 수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 봉축예산과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다.

먼저 ‘2015빛고을관등회’라는 기본 계획안은 ‘견우와 직녀의 생명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계획을 담았다. 지난 10월부터 구성되어 3개월 간 봉축기획단(단장 시각)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18m 장엄물이 설치되며 광주천 주변에는 전통과 생명을 상징하는 전통등이 걸린다.

전통등을 보급하기 위해 광주불교계는 10여 차례에 걸쳐 강습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16일에는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 봉축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여기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대동한마당에는 외국인문화페스티벌,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빛고을들차회 등이 열린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광주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체험행사로 펼쳐지는 시민문화한마당에는 연꽃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단주만들기를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나라 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



2014년 세월호 사태로 축소돼 열린 광주봉축행사

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사찰을 대상으로 공모행사도 진행된다.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으로는 300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가 확정돼 행사준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빛고을관등회가 광주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2559년 부처님 성도재일 기념대법회’도 논의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두환 범종 두고, 군vs광주시 논쟁

장성 상무대 설치된 범종(일명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에 대해 광주시와 육군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두환 범종은 전두환 前대통령이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하면서 생겼다.

이 범종은 지난 1994년 상무대가 광주 인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 뒤에도 현 5·18공원 내 사찰인 무각사에 보관되다 2006년 철거되어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다. 2007년 9월 장성 상무대 법무사로 옮겨졌다.

광주시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군 측은 “광주시가 반환을 받으려면 소유권 입증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국방부와 조계종도 이 ‘범종’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이 무각사를 광주시에게 양도할 때 위임받아야할 시설 및 비품 현황에 ‘범종’이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 소유권을 주장했다.

육군본부 측은 범종 반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협의에 나선 육군본부 관계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장성으로 이전 당시 비용이 부



장성 상무대 법무사에 걸린 ‘전두환 범종’

족해 범종 및 석탑을 차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 “만약 광주시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소유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종’이 무각사와 함께 광주시로 이전된 것이라면 종단 및 송광사와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불교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권 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전두환 범종’의 설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결사 진원지 강진 백련사, 일주문 낙성

백련결사의 진원지인 전남 강진 백련사는 12월 6일 일주문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련사 회주 여연 스님과 주지 일담 스님을 비롯해 강진원 강진군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백련사 일주문은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포식 목구조 맞배지붕의 전통건축물로 지어졌다. 백련사는 신라 문성왕 1년에



무염(無染)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정암사 신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위촉

고령정보고등학교(구 광주소년원)는 12월 11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 신도 이미경 외 4인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3년 간 위원활동을 펼친다.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암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소년원에서 명예부모 결연식과 맨토링활동, 장학금 지원, 음식지원 활동 등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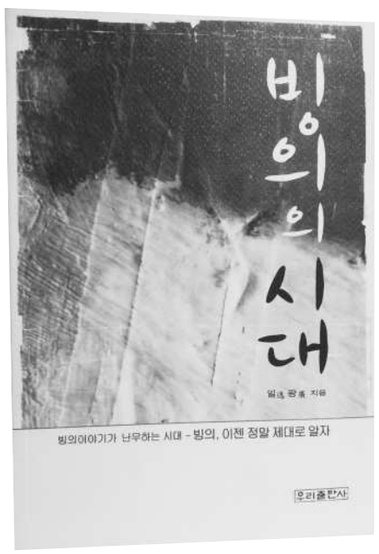


한편, 이날 청암사는 학예발표회를 맞아 소년원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逸廣 도인의 전언!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도시락 배달로 소외 어르신 돌봄이 10년

대광명사 봉사회 모임 '사무량심'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6일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량심 봉사자들은 해운대 뒷골목에 위치한 우1동, 반여동 등의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도시락을 건넸다.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손을 잡고 아픈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는 일도 잊지 않았다. 사무량심은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이면 이렇게 해운대 주변의 독거 어르신이 거주하는 100여 가구에 어김없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발원으로 지난 2006년 시작된 사무량심의 봉사활동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사무량심은 그간 꾸준히 봉사자들이 늘어 부부나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생기기도 하고 비불자들까지 봉사하러 올만큼 지역의 대표 봉사단체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부산 백병원 법우회 간호사들도 동참해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보살필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룩했다.

사무량심은 부처님의 자비희사를 강조하고 자비실천을 통해 신행을 완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초창기에 신도들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려 할 뿐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열어 경전을 익히도록 했고 참선과 신행활동을 통해 수행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완성된 것이

"자비 실천은 신행의 완성"
2006년부터 도시락 봉사 등
지역 곳곳에 자비의 손길


대광명사 봉사회 사무량심은 10여년 간 해운대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자비를 실천해왔다.

아니라 생각했다. 사무량심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마지막 단계인 보살행 '실천'을 완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그야말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사무량심이라 할 수 있다. 사무량심 이해은 회장(71)은 "처음에는 불교경전을 공부하고자 대광명사를 찾았지만 지금은 사무량심 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실천을 통해 참 지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무량심 봉사 활동을 6년 동안 하고 있는 서경의 팀장(58)은 "봉사 자체가 신행이 되었다"며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만나며 나의 상황을 돌아보며 만족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며 실천수행을 강조했다.

봉사가 부처님 자비 실천을 통한 수행 완성의 도구가 되었다면 밖으로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믿음직한 버팀목 역할도 단단히 해왔다.

사무량심은 단순히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또한 독거노인 집안 청소, 목욕도우미, 무료급식소 운영 등의 활동도 펼쳐 2009년에는 해운대구 칭찬릴레이 4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순자 할머니(80)는 "보살님들을 만나면 진짜 가족을 만난 듯이 반갑고 기쁘다"며 "작년에는 방문 앞까지 걸어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제는 운동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여름이면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운대를 청소하며 지역 정화 사업에도 적극 나서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사무량심은 점차 지원 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지 목종 스님은 "지원 가구수를 2배 정도 늘려 200가구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동화사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 법회

12월 6일 통일대불전서

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덕문)는 12월 6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6대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중앙신도회 정한신 사무총장, 각 말사 소임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간화선 도량에서 "새로 출범하는 임원진들은 화합하고 결집하여 포교에 앞장서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새롭게 취임한 손창수 신도회장은 "우리 불교계는 불자는 많으나 단결이 부족하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훼불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용서하며 참아왔다. 불자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신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포부와 다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화사는 12월 6일 6대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문학상 서인숙 씨 / 예술상 김관수 씨 / 언론상 정인철 씨 / 행원상 권현옥 씨 / 특별상 김경문 감독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원행)는 제24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5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문학상 경남문협 고문 서인숙(83), 예술상 경남사진학술연구원 원장 김관수(58), 언론상 KBS창원방송총국 前보도국장 정인철(57), 행원상 경남여의사회 회장 권현옥(53), 특별상 창원 NC다이노스 감독 김경문(57) 등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한편, 시민불교문화상은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창원불교계에서 제정해 시상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에서도 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발대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발대식이 12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 민추본) 발대식이 12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 교육감 외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민추본 본부장 심산 스님은 "민족 통일과 남북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력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과 북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과 함경북도 청진시 간의 지역적 공통성에 기초해, 부산민추본은 칠보산 개심사와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 민추본은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남북 교류를 주도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개최를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 대독에서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분단 70년을 마주한 남과 북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로를 자극하여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루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 보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통일정토를 실현하려는 고귀한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모태이며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가 그 중심에 서야 하며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방송 가청범위 진주지역으로 확대

BBS 부산불교방송, FM 88.1Mhz 진주 중계소 허가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의 가청 범위가 진주를 비롯해 산청, 함양, 의령, 고성, 남해 등 서부경남 전 지역을 거쳐 확대된다.

부산불교방송은 12월 10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진주 중계소 FM 88.1Mhz 허가 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진주 중계소 허가 축하법회

법회에는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부산 한마음선원 선원장 혜도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은 나성린 · 배덕광 국회의원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박무진 부산전파관리소 과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중계소 허가에 관련해 그간의 수고를 치하했다.

이날 수불 스님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부산 경남 전역을 가청권으로 확대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발전해 앞으로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불교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은 "가장 빠르고 품격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발원과 기도의 힘이 이뤄낸 성과"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해운정사 송년회 '화합 한마당'



해운정사 송현회 '화합한마당 잔치'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가 12월 7일 뉴대구호텔 대연장에서 제5회 송년회 '화합 한마당 잔치'를 마련했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참다운 불제자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적 봉사 활동을 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가올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슬기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발원한다"고 인사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법운 종정 스님은 "을미년 새해에는 젊은층 포교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새해의 포부를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긋이 누운 부처님 미소엔 자비가

와불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③ 의왕 청계사



편안한 자세를 취한 독특한 관음보살상



청계사 와불의 모습. 높이 2m에 길이 15m규모로 자갈을 붙여 만든것이 특징이다. 2011년까지는 채색을 하지 않아 자연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하단에는 인등부처님을 함께 모셔서 화엄의세계를 표현했다.

겨울의 산사는 화려함이 없어 좋다. 눈이 내린 청계산 속에 자리한 천년고찰 청계사에는 조용함만이 흘렀다. 불공 소리나 기도행렬의 번잡함이 없어서일까. 공기는 차지만 상쾌했고, 흙냄새도 코끝에 느껴졌다.

청계사에 가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듯 한 와불 때문이다. 신라 말 창건돼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청계사에는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가 있지만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사찰 뒤편에 자리한 거대한 와불이다.

모나고 각지지 않은 동글동글한 돌들로 이어 붙여 만든 청계사 와불은 1997년부터 2년간 청계사 신도들의 십시일반 불사를 통해 완성된 것이다. 높이 2m에 길이 15m 규모로 2011년까지만 해도 채색을 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현재는 풍화 등의 문제로 금색, 갈색 칠을 한 상태다.

청계사를 둘러보고 있으면 시선의 끝은 자연스레이 누워있는 불상으로 향하게 된다. 처음 청계사에 와본 이들은 지장전 옆으로 언뜻 보이는 와불의 거대한 불두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절로 이쪽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어느 와불이나 마찬가지로 청계사 와불은 발바닥이 크게 부각돼 있다. 부처님이 열반 당시 가섭존자가 슬퍼하자 관 밖으로 두발을 내보였다는 일화, 가섭에게 두발을 보였다는 '곽씨쌍부(槨示雙趺)'에 의한 것이다. 와불의 몸 아래와 뒤편에는 인등을 넣는 곳이 마련돼 자연스럽게 작은 부처님들이 큰 부처님을 구성하는 화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와불 앞에는 다리 한쪽을 걸치고 있는 보살상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보살상이 아니라 우리네 인간이 고뇌하듯 편안한 자세로 있는 것이 더욱 정겨워 보인다.

영험함이 전해지는 청계산 기운 느껴

와불이 내려다보고 있는 청계산은 관악산과 함께 서울 인근의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계'라는 이름은 맑을 청(淸), 시내 계(溪) 곧 '맑은 시내'라는 뜻이지만 불교에서는 흔히 불법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맑은 물에 비유하기에 불법이 맑게 흐르는 곳이란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청계사로 향하는 동안에는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산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기에 청계사에는 예로부터 많은 고승들이 득도를 위해 찾았다. 1503년 연산군이 도성 내 모든 사찰을 없애자 청계사가 봉은사 대신 선종본찰의 기능을 맡기도 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청계사의 선풍이 널리 펼쳐졌는데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선사가 바로 이곳에서 출가하면서 부터다.

이후 만공 · 월산 선사 등 여러 고승들이 청계사에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로 추정
1997년 자갈로 야외에 와불 조성
경허 스님 등 근대 선지식 정진처
보물 동종과 형태 다른 부도탑 볼거리

서 정진했다. 경허 선사의 승려로서의 삶이 청계사에서 출발했기에, 청계사는 경내에 선중흥조 오대선사를 모셔놓는 탑을 세워놓았다. 이들 오대선사의 사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을 지닌 탑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청계사 동종… 독창성 돋보여

이처럼 맑고 수승한 기운이 전해지는 청계사는 신라시대 창건되었다. 봉은사가 관장한 사찰의 기록을 담은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따르면 청계사는 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나오며 사찰에 남아 있는 석등과 부도 일부가 신라 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외의 기록은 없는 상태다.

청계사에서 중심건물은 극락보전인데 경내 중심부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다. 극락보전 처마에 살짝 남은 눈이 추위 속에서도 매우 운치가 있게 느껴진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여래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조선 후기 조성된 불상으로는 드물게 절제미가 드러나 있다.

극락보전에서 나와 마당 왼편으로는 참선기도를 하는 선불장이, 오른편으로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가 있다. 극락보전과 삼성각 등에선 오랜 시간의 흔적이 남아 천년고찰의 면모를 느끼게 하는 반면, 선불장과 요사는 최근에 지어져 현재를 느끼게 하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

청계사에서 또 볼거리는 청계사 신도들이 가져다 놓은 조그만 불상들과 동자상들이다. 극락보전 뒤에서 삼성각까지에는 작은 인형가게에 온 듯 길게 불상과 동자상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각각 다른 자세와 표정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중 몇몇은 사람들이 올려놓고 간 동전을 머리에 이고 있다.

극락보전과 지장전 앞쪽에는 보물 제11-7호로 지정된 청계사 동종이 있다. 1701년(숙종 27)에 만든 동종은 높이 110㎝, 지름 76㎝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감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종은 조선 숙종 때 승려인 사인 스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종을 만드는 장인이었던 사인 스님은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더한 것으로 유명했다.

종의 꼭대기 부분은 보통의 종과 달리 수평으로 평평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불러 있다. 그 한가운데에 서로 반대쪽을 향해 있으면서 몸이 엉켜 있는 쌍룡의 용뉴가 돌출해 있어 여기에 쇠고리를 꿰어 종을 매달았다.

우담바라, 불자들 마음 하나로 모으는 계기

청계사는 2000년 10월 극락보전의 관음보살상 왼쪽 눈썹 주변에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핀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매일 5000여 명의 불자들이 청계사를 다녀갔다. 생물학자들이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불자들에게는 여전히 상서로운 우담바라로 여겨지고 있다.

진위 논란이 있지만, 청계사에서 우담바라가 핀 해에는 국가적으로 경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에는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간에 긴장감이 해소되고 통일에 대한 기운이 무르익었으며, IMF로 인한 피해를 조기 졸업하는 등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끼는 해이기도 했다. 청계사는 이 당시 '우담바라 108일 무차전진대법회'를 열고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했다.

청계사는 이제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사찰이 되고 있다. 의왕지역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인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청계사 신도단체 20여 곳이 참여하는 자비바자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뒤돌아 나오는 길, 청계사의 와불은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알리는 듯 지긋이 사하의 마을을 보고 있었다.

청계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왕 청계사 전경



경허 · 만공 · 보월 · 금오 · 월산 선사의 부도탑

주변 가볼만 한 곳

▲백운 호수

청계사와 청계산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의왕 학의동의 백운 호수는 1953년에 준공한 인공호수이다.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북동쪽의 청계산과 남동쪽의 백운산, 그리고 서쪽의 모락산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백운호수에서는 라이브 카페, 수상스키, 각종전문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의왕문화예술길

의왕문화예술길은 청계사 입구에서 계원예술대학으로 향한 뒤 백운호수에 이르는 약 1km 길이의 도로공원을 칭한다.

2007년 5월 3일 개장했으며 조각광장, 경관공원 등이 설치돼 있다. 의왕시 중심에 있는 모락산 산행의 기점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의왕시에서 지정한 도시경관 '의왕8경'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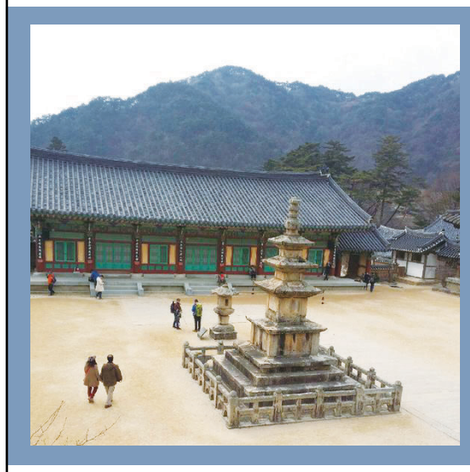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안양시 인덕원 4거리에서 청계동(지방도 342번)으로 향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당전철역에서 9504번, 9502번 좌석버스를 타고 안양 인덕원에서 하차한다. 전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오면 청계사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 인덕원 4거리에서 청계사 입구까지는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 1번을 이용해도 된다.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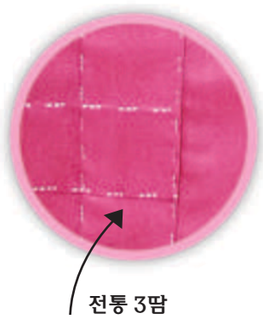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명품승복(가사전문)

발명특허 3땀가사 제10-1448820호



전통 3땀

명품승복 사장인 저는 사찰에서 관음기도 중 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상(賞)을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훼손된 석굴에는 영욕의 세월만이…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⑥ 투르판 베제크릭 석굴 〈끝〉



투르판 베제크릭 석굴 전경. 57개의 석굴이 있는 베제크릭 석굴은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 이라는 뜻이지만 석실 내부는 서구 열강의 도굴과 이교도의 훼불로 엄청나게 훼손돼 있다.



베제크릭 석굴 69굴의 벽화 중 일부. 무지막지한 훼손에도 일부는 남아 있다.



투르판은 불교국가 고창국이 있었던 곳이다. 고창고성의 한 가운데 지어진 대불사의 사지가 이를 증명해준다.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투르판은 수많은 소국(小國)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영욕의 역사 한복판에 있었다.

한나라는 현재 투르판에서 45km 떨어진 곳에 고창성을 세우고 둔전을 실시했고, 이후 한나라가 패망하고 전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피해 본토의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세력이 늘어나자 북량의 왕족 저거 씨가 450년 고창국을 세웠으나 유연의 압력으로 멸망했다. 498년 유연과 고차, 돌궐 등 북방민족은 이 자리에 국가를 세우고 고창왕이 돼 640년 당나라에 멸망하기까지 번영을 누렸다. 고창을 정복한 당나라는 이 땅에 안서도호부를 두고 서역 경영에 거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나라의 국력이 쇠퇴하자 9세기에는 텐산 위구르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몽골 제국이 정복하면서는 차가타이한국에 예속됐다.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지역의 종교 문화도 변했다. 처음의 고창국은 독실한 신심을 자랑하는 불교국가였으나 이후 이슬람 왕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슬람 문화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재에도 이런 영향으로 투르판은 이슬람 민족인 회족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투르판, 곳곳에는 불교의 자취가

실크로드의 한 지점이자 구법승들의 구법 루트로 투르판이 활용됐음 알려주는 지점은 곳곳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염산(火焰山)' 이다. 〈서유기〉에는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가는 삼장법사 현장(玄奘)은 계속 타오르는 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고 이내 손오공이 철선공주에게서 파초선을 빌려와 산불을 끈 뒤 이 산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는 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곳에서 나오는 계속 타오른 산이 투르판의 '화염산' 이다.

사실 화염산은 극한의 지역 중 하나다. 위구르어로 '커쯔러타거(克孜勒塔格)' 라고 하는데, 이는 붉은 산을 의미한다. 특히 온도가 높아 여름에 가장 더울 때의 온도가 47℃가량, 태양이 직접 내리쬐는 곳은 80℃까지 오른다. 겨울에는 영하 20℃가량 떨어진다고 하니 혹서와 혹한이 반복되는 곳이다.

고창고성도 눈길을 끄는 곳이다. 지금은 폐허만이 남은 도시 유적인 이곳은 불교사원이 성 안에 마련돼 있다. 특히 630년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1개월 동안 고창성에 머물며 설법을 하기도 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당시 고창국 국왕 국문태는 신실한 불교 신자였고, 현장 스님이 당나라의 고승임을 알고 설법을 청했다. 현장 스님은 고창국에서 1개월 간 머물며 대중에게 〈인왕반야경〉을 설했다. 감복한 국문태는 계속 고창국에 남아있길 간청했으나 구법이 여로에 있던 현장 스님은 고사했다. 스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안 국문태는 행장을 마련해 주고 그를 호위할 병사 25명과 말 30필을 내줬다. 그리고 인근 24개국 국왕에게 현장 스님을 안전하게 통과시켜달라는 편지까지 써줬다.

폐허가 된 현재의 고창고성에는 현장 스님이 머물며 설법을 했을 절터만이 덩그러이 남아 있다. 사원의 기본구조는 인도식이고 인도식 복발탑과 거대한 방형탑, 승방 등이 남아있어 당시 고창국 왕족들의 신심을 가늠케 한다.

훼불의 아픔을 간직한 석굴

투르판에서 유명한 불교 유적 중 하나는 베제크릭 석굴이다. 위구르어로 '베제크릭' 은 '아름답게 장식된 집' 이라는 뜻이지만, 찾아간 석굴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크게 훼손됐다.

그도 그럴 것이 베제크릭 석굴은 1898년 러시아의 클레멘츠가 확인한 이후 학계에 알려졌고, 독인의 그륜베델이 19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또한 영국의 스타인 탐험대,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들어 출토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는 베제크릭 석굴 도굴품인 벽화 4점을 한국에 두고 해방을 맞았고 현재 베제크릭 벽화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벽화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안병찬 씨에 의해 복원됐다. 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때 서구 열강의 탐욕과 이교도의 무지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불교국가 고창국 있던 투르판
현재 이슬람 교도들이 머물러

이교도 훼불 · 서구 열강 도굴로
베제크릭 석굴 곳곳은 상처가
일제 도굴품 일부 國博에 소장
"탐욕과 무지의 훼불 반성하라"

본래 57개 석굴 안에는 아름다운 소조 불상과 호화로운 벽화들이 있을 터였지만, 굴실 안에 들어서면 벽화들은 이교도들이 전부 긁어 훼손했고 소상은 온데 간데 없다.

이에 대해 순례의 증명법사로 나선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순례 대중에게 설했다. 설법 중간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를 절감했다. 서구 열강의 탐욕으로 벽화는 뜯겼고 이슬람의 무지로 불화는 훼손됐다"면서 "불상과 불화는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고 신실한 신앙의 형태다. 그것을 탐욕과 무지가 파괴한 것"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부처님은 탐욕과 무지를 경계하셨다"면서 "집착과 탐욕의 신앙인과 일반인들을 우리는 개도해야 한다. 개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번 순례는 더욱 가열차게 정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 진지하게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남아있는 벽화를 답사하니 불화가 매우 한국적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광배의 화염 문양과 측면을 보고 있는 보살의 상호 등은 한국의 불화와 비슷했다.

또한 베제크릭 석굴은 축조 석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토함산 석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돈황 막고굴들은 석실을 파내어 조성한 경우가 많지만 베제크릭 석굴은 흙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곳이 상당수다. 이는 인도 간다라의 붓카라 제2사원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붓카라 사원은 돌로 된 벽돌로 쌓았지만 베제크릭 석굴은 흙벽돌로 바뀌었고 한국의 토함산 석굴암은 판석으로 축조했다"면서 "이는 축조 석굴사원의 변천과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잊지 말아 할 한국인

실크로드 순례를 하면서 새롭게 조명돼야 할 두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중국 돈황학 연구 창시자 김구경 박사와 조선족 화가 한낙연 화백이다. 1899년 경주에서 태어난 김구경 박사는 근대 선종사학자로 돈황 막고굴 문헌을 교정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27년 일본 오타니대학을 졸업하고 1930년 중국으로 건너가 돈황 석굴을 연구했다.

1931~1935년 〈강원총서(薑園叢書)〉라는 전집을 출간했다. 전집에 실린 문헌 중 〈교간당사본능가사자기〉 〈교간안심사본달마대사관심론〉 〈교간대승개심현성돈오진종론〉은 돈황 문서를 교정하여 발간한 것으로 1934년 완성된 일본의 〈다이쇼신수대장경〉에도 실렸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해 서울대와 연세대에 출강했으나, 1950년 6.25전쟁 중 서울대 문리대학 교정에서 북한군의 처형 위협을 받은 직후 행방불명됐다.

한낙연 화백은 길림성 출생으로 1914년 용정보통학교를 마치고 전화교환수 등으로 일하다가 1919년 상해로 가서 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31년 파리 루브르예술학원에 입학하고, 재학 중에 당시 유행했던 신인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루브르 예술학원 졸업 후에는 유럽 각국을 돌며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으나,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돌아와 항일투쟁에 투신했다.

1941년 실크로드 여행 중 돈황 석굴 벽화에 감명을 받고 난주에서 본격적인 벽화 모사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티베트 · 하사크 · 몽골 · 위구르족 등 중국 소수민족의 생활풍습 등도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묘사 · 소개해 중국 화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늘 한글서적과 일본의 조선침략사 책을 항상 소지하며 읽고 다닐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한낙연 화백은 1947년 다시 벽화모사와 유물고찰을 마치고 난주로 돌아오던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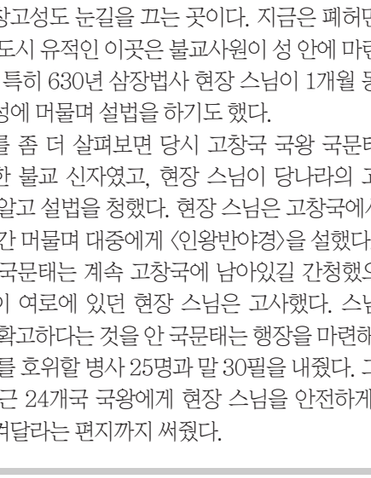
김구경 박사와 한낙연 화백에 의해 돈황 석굴의 문헌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고, 벽화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 1000년 전, 한반도 삼국의 구법승의 열정이 19세기 근대 한국인에게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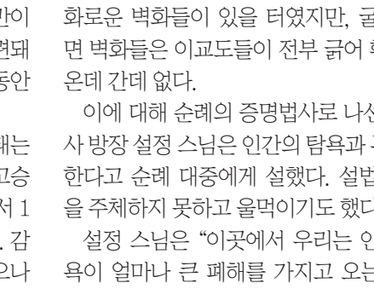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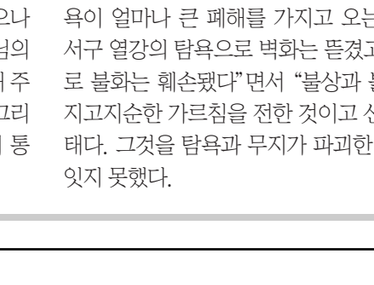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염
원로위원 석보행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2〉 운서산 장륙사 대웅전

나부끼는 주악비천의 天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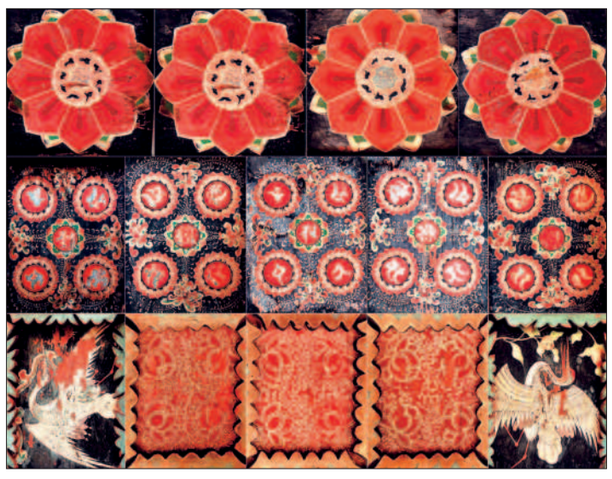
〈천의〉



대웅전 앞면 빗반자에 베푼 주악비천상과 우물반자의 오불종자불 문양. 주악비천상은 한국 사찰에 그려진 주악비천상을 대표할만큼 아름답고 율동적이다. 오불종자불 역시 유례가 없는 도상으로 역동적이며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보현보살 벽화



대웅전 천정에 장엄된 문양 일체다. 첫째줄은 좌우측면 천정문양이고, 둘째줄은 빗반자 위 가장자리 문양, 셋째줄은 천정 중앙부분의 것이다.



문수보살 벽화

나옹화상의 탄생 성지

7번 국도변의 영해에서 영해~영양~봉화를 잇는 918번, 920번 경북북부 지방도로로 내륙으로 향하면 깊고도 외진 심산유곡에 장륙사를 만난다. 고려말의 뛰어난 고승 보제존자 나옹선사께서 창건한 절로, 나옹선사와 관련한 성지다. 나옹선사는 인도승 지공으로부터 법을 전수 받아 무학대사에게 법을 부촉했다. 고려말 조선초의 고승 지공, 나옹, 무학의 3대화상을 모신 성지는 여러 곳에 걸쳐 있다. 나옹의 탄생지는 이곳 영덕군 장수면의 장륙사 인근이고, 출가한 곳은 문경 묘적암, 불법을 펼친 곳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 그리고 밀양으로 유배가는 길에 입적한 곳이 여주 신륵사이다. 회암사지와 신륵사에 나옹선사의 부도가 있고, 장륙사 홍련암에는 세 화상의 진영과 조상을 모시고 있어, 그 인연을 가늠하게 한다. 장륙사 대웅전 내부 향좌측 뒷벽에 연꽃으로 장엄한 세 칸 위패형식의 이례적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 중앙 칸에 '나무나옹대화상' 의 귀의(歸依) 예배문으로 공덕을 찬하고 있다.

장륙사 대웅전에서 나옹화상의 가사만큼이나 주옥 같은 미적체험으로 와닿는 것은 천정 빗반자와 측면 벽체에 베푼 별지화들이다. 사찰벽화가 아름다운 절집은 전국에 걸쳐 두루 산재해 있다. 양산의 통도사와 신흥사, 해남 미황사, 강진 무위사, 보성 대원사, 제천 신륵사, 공주 마곡사 등 조선시대 단청과 어우러져 벽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들이다. 장륙사 대웅전 천정 빗반자와 측면 벽체에 장엄한 벽화소재는 단순하고 집약적이다. 빗반자 널판에 그린 벽화는 주악비천상이고, 좌우 흙벽에 그린 벽화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율동성이 빼어난 주악비천 벽화

주악비천상은 현악기 비파와 죽관악기 대금을 각각 연주하는 한 쌍의 천인들을 정면 3칸, 뒷면 좌우 2칸, 모두 5칸에 같은 도상을 대칭적으로 반복해서 그려 넣었다. 비록 도상은 반복적이지만, 붓질을 끌어간 묘사력과 표현력은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합천 해인사 명부전 주악비천 벽화들과 쌍벽을 이루는 뛰어난 수작이다. 주악비천상에 베푼 주된 색상은 녹색 계열의 하엽(荷葉)과 적색 계통의 석간주(石間朱)이지만 중간색 톤의 맑고 밝은 명도로 채색했다.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은 다분히 중성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연주하고 있는 현악기는 당비파임을 알 수 있다. 비파에는 당비파와 향비파가 있다. 〈악학궤범〉의 도해에 따르면 향비파는 목이 바르고, 줄이 다섯 줄인데, 당비파는 목이 뒤로 굽고, 줄이 네 줄이다. 장륙사 벽화에서 비파의 줄은 4줄로 뚜렷하고, 목이 뒤로 젖혀져 있으며, 연주에 사용하고 있는 술대 역시 당비파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천인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가로로 잡고 부는 횡적(橫笛) 관악기 대금이다. 굵기가 가는 편이라 정악대금이라기 보다는 산조대금에 가까워 보인다. 채색기법은 단청의 기본배색인 상록하단(上綠下丹)과 한난대비(寒暖對比)의 기본원리를 응용했다. 뇌록과 석간주의 한난대비적 효과로 화면이 전반적으로 선명하고 뚜렷하다. 하지만 주악비천 벽화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천공에 휘날리는 천의 자락이다. 넓고 긴 띠의 우아한 곡선이 바람에 펄럭이는 환청을 불러 일으킨다. '표대' 라고 불리우는 천의의 띠는 전신을 휘감고 바람결에 날리는데 대단히 율동적인 운동감을 느끼게 한다. 표대의 띠는 안과 밖의 색을 초록과 적색으로 달리하였지만, 실상은 안과 밖이 없는 뫼비우스 띠다. 중중무진의 연기법계이므로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위상수학적 동일성을 이룬다. 본질적으로 펄럭이는 천의의 띠는 하늘세계의 성스러운 기(氣)와 음악적 선율을 동시에 표현하는 다중적인 장치다. 펄럭이는 천의에서 청각적 선율과 리듬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분히 공감각적인 조형기법이다. 나부끼는 천의 자락을 보고 천인의 운동방향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그 천의의 띠 형식을 빌린 신령의 구름 영기문으로 화면의 영역을 구획하고, 또 신성의 기운을 불어 넣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칸칸의 장면이 역동적이며, 여성적인 부드러움 속에서도 남성적인 힘이 흐른다. 천정장엄의 음악성은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법에 대한 예경과 찬양일 것이다. 예경을 드리는 부처님의 세계를 바로 위 우물천정 반자에 베풀어 놓았다.

점선 통한 기와 순환 흐름 묘사

문수 상구보리, 보현 하화중생 상징

앞칸문양, 힘, 신성, 미 갖춘 수작

본산중심의 동일한 화풍의 화맥형성

대칭, 순환의 생명생성원리 담아

주악비천상 바로 위 우물반자에 입힌 문양은 연화좌 형태를 갖춘 오방불 범자 종자불이다. 불보살의 자리는 붉은 색으로 신성을 부여했다. 문양은 힘과 에너지, 신성,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뛰어난 수작이다. 따뜻하고 찬 기운을 두루 갖춘 중앙의 중핵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듯 대단한 에너지가 사방으로 급팽창하고, 사방에 묶음으로 축적된 에너지는 씨방에 가일층 집약하여 대규모 폭발을 분출해서 사방에 꽃을 새로이 피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언어의 길이 끊긴 대방광불 화엄의 꽃이고, 미묘한 불가설의 묘법연화다. 바탕은 가물 현(玄)의 천공이다. 천공에는 기가 가득하다, 기의 우주적 순환구조에 다시 행성 자체의 순환구조가 내재한다.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있는 프랙탈 구조다. 기의 순환과 흐름은 고구려 벽화고분 무용총 널방에서 점선을 통한 기의 흐름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문양에서 대칭과 순환이라는 생명생성의 거대한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삼천대천에 가득한 자비력의 불보살세계를 오방불로 압축했다.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 오방불은 대일여래이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아촉불, 남-보생불, 서-아미타불, 북-불공성취불의 방위구도를 갖춘다. 불보살은 형상이 아니므로 범자종자로 미묘한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른다. 또한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예술가들에게 대단히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여지를 허용한다. 장륙사 오방불 문양은 그 독특한 회화적 표현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의 분출력으로 범종의 울림처럼 긴 여운과 깊은 감명을 안겨준다. 그 때 시각적 조형언어의 힘은 위력적임이 분명하다.

문수보살 지혜와 보현보살 자비행

장륙사 대웅전 내부에서 또 한번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장엄은 좌우 측면 흙벽에 베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별지화다. 향우측의 벽화는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이고, 향좌측의 벽화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이다. 두 보살은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상처럼 양쪽 머리를 묶은 동자상이다. 두 벽화에는 마치 기둥의 주련처럼 검은 사각형 바탕에 각각 '문수달천진(文殊達天眞)' , '보현명연기(普賢明緣起)' 라는 방제를 써 넣두었다. 〈대공양예참〉 전문에도 나오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서도 인용하는 바, 문수보살은 진리의 일체종지를 깨달았고, 보현보살은 연기의 이치를 밝혔다는 뜻이다. 문수보살은 반야의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육바라밀의 실천이며, 자비의 실천이다. 〈화엄경〉의 '입법계품' 에서 선재동자는 문수보살로부터 여러 선지식을 구하고, 보현행원을 갖추도록 권유받은 후 53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는 바, 긴 구도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보현보살이었다. 곧 두 보살벽화는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반야의 체득과 자비의 실천을 통한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체득하는 상구보리의 과정이라면, 보현보살은 하화중생의 보현원행이다. 즉 두 벽화는 사자후처럼 전광석화의 심검으로 일체종지의 진리를 구하고, 코끼리처럼 세상 곳곳 육도만행으로 자비행의 공덕을 닦아나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벽화나 불화에서 두 보살을 표현할 때는 동양의 음양오행의 원리가 대체로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좌청룡 우백호의 채색원리에 따라 동쪽의 사자는 청색, 서쪽의 코끼리는 흰 색으로 채색하지만, 장륙사의 경우 코끼리의 흰색은 유지하고, 사자의 청색은 석간주의 붉은 빛의 층단식 우림으로 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 보살을 묘사한 회화적 표현은 대단히 심미적이며, 우아하다. 천의에 초빛, 이빛으로 바림기법을 베풀어서 입체감을 살렸고, 역동적인 천의와 신령한 기운의 활발한 묘사를 통해 생동감 있는 생명력을 갖췄다. 두 보살의 반가좌의 자세는 어깨 양쪽으로 뻗치고 나온 의상과 함께 정형화 된 양식의 일종이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벽화는 제천 신륵사 극락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 파주 보광사 대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등에서 두루 나타나지만 장륙사의 경우 회화적 성취를 이룬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천정 중앙부분의 우물천정 문양은 붉은 바탕에 백묘로 묘사한 사방 연화문이다. 소란반자 내부는 넝쿨과 새싹들이 꿈틀거리는 강한 생명력의 기운으로 충만하다. 이 조형은 달성 용연사 극락전과 청도 대적사 극락전 천정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 경북일대의 화맥의 계파와 범위를 가늠하게 한다. 본산을 중심으로 단청에서 일정한 양식적 통일의 화풍을 찾아낸다는 것은 작업의 주체가 화승이며, 지역 계파에 따른 화맥을 분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거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위대하고 거룩한 성보의 붓질을 남기고 간 이름없는 예술가들에게 오체투지의 삼배를 올린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마음씨 타령 ⑦

지금으로 봐서 이 방에 나올 때는 이거 전생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세포가 많이 달라졌어.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말하는 중에도 달라지고 있어. 이 방에 있을 때는 전생, 지금은 당장, 조금 있으면 후생입니다. 또 크게 봐서 이 몸 죽어지면 죽으면 후생, 지금은 현재, 또 내가 나기 전에는 전생. 이거 사실로 전생 후생 미래 해 봤든. 삼세 삼세 삼세.. 지금 내가 말하는 중에도 과거 현재 미래 계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못 봐서 그렇지 만약 이것이 현미경쯤 되는 안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 하는데 삼세 삼세 삼세 죽 연속입니다. 이 몸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거를 굴려. 끄집고 다니는 그 자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삼세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인제 그 자리에서 다시 헛것을 나투어. 자꾸 변하는 삼세 삼세 삼세 변해 나가는 헛것을 나투어요. 나투긴 나투지만은 그러나 나투는 그 당처는 이 지구가 생기기 전 이 지구가 깨진 후에라도 의젓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로 우리가 이 도리만 알면 구차스럽게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아이고 나는 어쩌나. 내가 죽으면 어디 가나. 그러나 다시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한테 몸을 받은 후에도 자꾸 몸이 변하는데 후세상에 받는 몸뚱이도 변해지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좋은 몸 받으려면 좋은 몸 받을 수 있는 인을 심어놔야 돼. 안 심어도 무엇이라도 받아. 짐승의 몸이라도 받아. 그건 별 문제로 하고. 그러나 화분에 꽃도 좋은 흙에 심는 거와 나쁜 흙에 심는 거와 돌자갈 위에 심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진리의 나툼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다 공중의 달도 밝은데 이거는 원래 밝은 것인데, 공중의 달이 있기 때문에 물달이 환한 것인데 이 육신 물달이나 한가집니다. 본래의 우리의 법신 자리가 휘영청하기 때문에 이런 번듯한 이런 육신을 나퉜어요. 육신을 나퉈도 물론 이건 변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물달로 보면 됩니다. 수중월, 그러하니 물달로 보면 돼요. 앞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물달을 나툴 거예요. 물달을 나투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데 물달을 나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마음씨타령이 좀 깁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때는 설법 간단하게 하라는 말 듣습니다. 그래야 대중이 모여든다 이럽디다. 여러분이 좀 귀찮더라도 나는 생각에 한 마디라도 더 넣어주려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설법 시간이 늦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자꾸 좀 더 들으면 어딘가 써먹어. 나중에 그 공덕 자리에 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심 사려면 깨끗하게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 아주 깨끗하고 좋다. 이래할 겁니다. 나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 **부처님 지혜 알려줄 뿐**
> **지옥행 막지는 못해**
> **절대 누리의 주인공인**
> **자신이 지옥도 천당도**
> **만들어 낸다.**
> **내 마음이 하는 일이니**
> **누구한테 의논할 수 없다**

[강송] 한생각의 굴림새로 나고죽어서

나고 죽는 거는 한 생각 굴림새거든요. 이거 이상하죠. 전부 나고 죽어. 난다 죽는다. 우리가 모습을 나투는 건데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좋게 가지면 훌륭한 몸을 나투어. 한 생각을 좋게 못 가지면 훌륭한 몸을 못 나투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입니다.

[강송] 천당지옥 제가 짓고 울고웃으나
어즈버야 꼭두임을 이에깨칠새
지화자자 좋을씨고 장승은 뛴다

돌장승이 뛰어. 왜 그러냐. 돌장승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이나 한가집니다. 천당 지옥, 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이 이렇게 너는 슬기가 좋게 얼굴도 좋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천당 지옥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지옥도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지옥을 짓든 천당을 짓든 그건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한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까 부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마음씨를 이래 이래 가져라 가르쳐 주셨지 지옥으로 가는 걸 너 못 간다 이래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 자비심으로써 통탄만 할 뿐입니다. 전부 지가 지어서 지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누리의 주인공이 살림살이를 어떤 때는 나쁘게도 해. 어떤 때는 좋게도 해. 이것이 다를 뿐이지 나쁘게 해도 누리의 주인공이고 좋게 해도 누리의 주인공인데 우리는 천당과 지옥 다시 말해서 지옥과 극락세계 누가 짓느냐. 경에도 아미타불 극락세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 방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집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집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옷도 돈 있으면 좋은 옷을 내가 지어 입는 것이지, 남 지어 놓은 걸 내 몸에 입지 못합니다. 입었든 치수가 안 맞아. 그러하니 이 마음씨가 쇠꽃, 이 자리, 돌말자리, 이 자리가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러하니 전부 내가 지어서 이래 가는 건데, 산하대지가 다르지 않은 몸이라. 전부 내 몸이라. 지구도 내 몸뚱어리의 연장이라. 그러니 돌장승이 어찌 내 몸뚱어리의 연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변법신인데 무변법신 속에 나타난 그거 아니에요? 내 옷이나 한가지에요. 내 수족이나 한 가지거든요. 내가 뛰는데 어찌 돌장승이 안 뛰겠어요? 돌말이 뛰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무정물은 무정물대로 봐. 나는 나대로 봐. 둘로 보면 그런데 둘로 보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딱 보면 하나거든요. 내 마음이 뛴다 하면 뛰는 것이지 안 뛰는 거 뭐 있습니까. 뛰어도 뛰는 것이 아니고 안 뛰어도 안 뛰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뛰는 거나 한가지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쓸 일 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茶와 禪

茶로 가는 길에 禪의 길 있다

대저 선이란 무엇인가?

바로 수행의 방법 그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불가에서는 이를 두고 좌선또는 수선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종파까지 생겨나게 되었으니 곧 선종이 그것이며, 이의 종조를 대사라 이른다.

'선(禪)' 이란 인도의 말로서 선나(禪那)라는 한자화한 말의 약칭이다. 일찍이 인도에서는 그 백성들이 수행하는 방도로서 선나 또는 요가, 사마디, 삼매(三昧) 등으로 불리는 수행을 즐겼는데 설혹 그 방법은 서로 각양한 것일지언정 내용은 같은 뜻을 지닌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면 이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흐트러짐이 없이 침착하고 고요한 가운데 모든 사물이나 자기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을 정관(靜觀)하는 일이다.

이 정관이 소우주를 자기 마음에 키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동양의 지혜요 동양다움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선도(禪道)나 차도(茶道)를 통해, 자기가 없어도 우주,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자기도 없고 우주도 없는 마침내는 인생 또한 없이 하여 주는 경지 곧 자기와 전 우주인생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는 힘을 얻는다.

드디어 때로는 한 생각으로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그 모아진 한 생각까지를 없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안에 그 심경은 맑아진다. 마치 고인 물이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맑은 여울을 이루는 것과도 같은 경지다. 그러한 까닭으로 차와 선을 익힌 사람은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자연 거룩하게 비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것은 모든 사물에 달관(達觀)되었으므로 그 인간은 이욕락(欲樂)의 먼지 땅을 떨쳐나 있기 때문이다. 고요히 사물을 관찰하고 그로써 일상의 모든 몸가짐을 이성적으로 하고, 그 행동에 있어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고 슬기롭게 하는 일이 어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바로 '차와 선' 은 그러한 경지를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육신과 심정을 가볍고 쾌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는 길이 곧 이 '茶와 禪' 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차성(茶聖) 초의(草衣)는 이 선의 길을 선이라 부르는 것보다 지관(止觀)이라고 즐겨 말하고 있다. 이 지관이라는 말은 지(止)라는 뜻과 관(觀)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로서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한 경지에 이르렀을 경우를 지라 하고, 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떠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깨우침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는 어디까지나 관행의 과정인 것이며, 이 경지의 지가 숙련된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서 생활하여 나가게 되므로, 이것을 깨친 견해, 깨친 행동이라는 뜻에서 관행(觀行)이라고도 말한다.

> **속마음을 정관하는 '선'**
> **소우주 마음속에 키우고**
> **나와 우주 호흡하는 힘 기른다**
>
> **고요히 사물을 관찰하고**
> **몸가짐을 이성적으로 하며**
> **침착하고 슬기로운 마음가짐의**
> **경지로 가는 지름길이 '차와 선'**

이것을 원효대사는 그 〈금강삼매론〉중에서 크게 밝힌 바이며, 그 이전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도 밝힌 바이요, 또 보조선사(普照禪師)도 정혜쌍수라고 말하고 있는 바이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시 말해서 불을 피워서 물을 익혀 먹는 인생생활의 그 어느 지경도 차생활의 전부인 것이므로, 차는 모든 것을 그대로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생활한다는 뜻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살림살이' 라는 말로서 즐거이 쓰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중국의 조주선사는 그 제자들이 불도의 대의를 그에게 물을 때나 혹은 조사의 깨친 지경을 물을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말로서 "차 한잔 마시게나" 하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을 후인들은 그냥 선문답이라는 공안이라 하여 알기 어려운 의심의 표적이 되는 화두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주선사가 묻는 제자들에게 복잡한 문제거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각성생활(覺醒生活)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평상심이 곧 도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주변 즉 살림살이하는 데 있고, 이것이 선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선의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의선사 같은 이는 '무시선무처선(無時禪無處禪)' 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완당 선생은 "정좌처차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라고도 하고 "묘용시수유화개(妙用時水流花開)" 라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지경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또 한편 차는 일상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물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간의 본능적인 식생활과 계절 따라 입어야 하는 입성생활, 그리고 집을 지어 거처하며 그 주택의 주변인 정원을 꾸며 꾸려나가는 생활의 영위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이나 살림살이 않고는 못 배기는 현실에서 크게 착안한 것임을 볼 때 차도의 너르고 너른 광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선은 그 자체가 현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말하는 한편 너무 범박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방면을 치중하여 가는 선객들이 구두선(口頭禪) 또는 야호선(野狐禪) 에 떨어져 한갓 공상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을 때로는 보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선이 조주선사나 초의차성의 편에 서서 그 실다운 힘과 생생한 화로가 열렸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차로 가는 길에 선의 길 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1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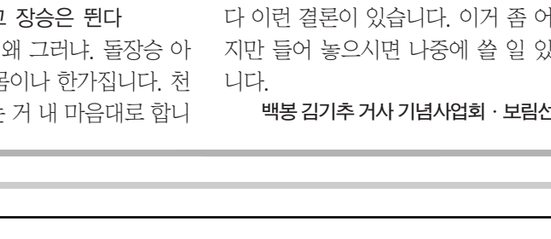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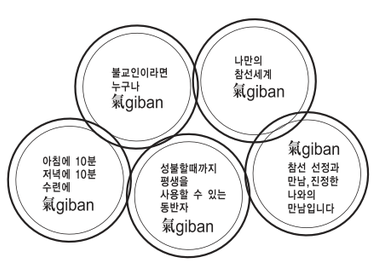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희담석의 효능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사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보시행 속에 한국불교 미래 있어”…

무원 스님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 1979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구인사서 출가한 스님은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와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원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중이며, 현재는 부산 진구 불교연합회장, 부산 진구 경승실장, 부산시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KCRP 부산대표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 부산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올 7월 15일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옛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8년 부산지역의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종교를 넘어 북녘동포를 도와오던 시민 단체다. 특히, 평양 중심의 지원서 벗어나 자강도, 함경도의 산간 지역이나 오지 등 지원이 미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결성됐다. 만들어진 이후 2010년에 들어와서는 우리민족햇빛발전소(평양태양광발전소) 건립,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 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 남포 · 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 북녘어린이 지원 사업, 재해긴급구호물자 지원, 헌책수거재활용사업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의 화려한 불교계 이력 때문에 중책이 맡겨졌다. 무원 스님은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개성 영통사 성지 순례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돕기 사업에 관해서는 국내서 손꼽히는 전문가와 활동가중 하나다. 1979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구인사서 출가한 스님은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와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내자 총무부장으로 2012년 12월까지 총무원장 대행체제를 이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직접 발로 뛰는 능동적 복지 마인드 필요

무원 스님의 별명은 포대화상(包袋和尙)이다. 넉넉한 외모에 다문화 활동에도 열심인 모습이 자비 실천을 상징하는 중국의 포대화상과 닮았기 때문이다. 특히 넉넉한 너털 웃음은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다. 무원 스님의 본격적인 다문화 사업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 다문화 사찰인 명락사 주지 시절 낯선 이국땅서 파경을 맞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인 ‘명락빌리지’를 개원해 다문화 가정 지원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겨울 엄동설한 추위에 아기 귀저기를 시주받으러 다닌 일화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훈훈한 감동을 전해 준다. 당시 무원 스님은 다문화 가정 중에서 혼자 사는 미혼모들을 모아서 도와 주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산모와 어린아이들의 귀저기가 부족해 아기 귀저기를 시주받으러 다녔다. 이를 본 신도들은 남들이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작은 귀저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무원 스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깨우침을 받았다고 한다.

무원스님은 “시설만 화려하게 만드는 외형 중심의 복지는 생명이 짧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책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복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쓰는 법이 곧 보시행을 베푸는 것이고, 보시행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작은 것 부터라도 삶에서 보시행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원 스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또 있다. 바로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이다.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 견인차 역할

2002년 천태종 사회부장 소임을 맡아 영통사 남북합작 복원, 성지순례와 남북공동법회, 개성관광 등 남북교류의 한 획을 긋는 데도 일조했다.

“아마 영통사 복원 때문에 개성을 방문한 것도 80여회가 넘을 것입니다. 육로가 열리기 전에는 주로 실무자들과 중국 북경서 만났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통사 복원에 사용되는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측은 인천서 남포로 해로를 요청했지만, 제가 가까운 육로길을 놔두고 왜 굳이 먼 곳으로 돌아가냐고 버텼지요. 수 개월간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판문점을 통해 물자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 곡절 끝에 영통사는 3년만에 복원을 마쳤다.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무원 스님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족간의 정을 앞세워 순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해 개성 성지순례도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소통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대북사업 개척
2005년 영통사 낙성 실무 책임 맡아
개성 총 80여회 드나들며 북측과 조율
수개월 설득 끝에 물자 수송 육로로

다문화 포교에 다방면으로 활동
2009년 이주여성쉼터 명락빌리지 개원
아기 귀저기 시주받으러 직접 뛰어다녀
올해 삼광사서 베트남 법회 정기적 봉행

부산 삼광사 주지로 지역 포교에 헌신
다문화다종교 평화운동…염주 나눠줘
청소년 인성교육센터 건립, 월 1회 교육
내년 1월 5백명 대상 힐링열차 운영

불자 신도 36만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사찰인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은 24시간이 모자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 포교사인 무원 스님은 지난해 2월 1일 삼광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더욱더 바빠졌다. 취임한지 2년이 채 안됐는데도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한달에 한 번씩 비행 청소년 인성 강좌를 열고 있으며, 섹스폰 음악단을 구성해 병원, 양로원 등 소외된 곳을 순회하며 음악을 통해 이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다문화다종교 평화운동도 선포해 지난해부터 무지개색깔로 된 평화염주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앞으로 12월 22일인 동지에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동지팥죽 나눔행사’도 대대적으로 펼쳐 불교문화행사로 정착 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개방적인 도시인 부산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종교인과 힘을 합쳐 불교 도시 부산에서 문화간, 종교간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원 스님은 이같은 취임사서 밝힌 것처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포교를 펼치고 있다.

삼광사 주지 취임하며 베트남인 법회 봉행

삼광사에서는 또한 지난 달 베트남 근로자와 결혼이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법회가 열렸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 지역 언론과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부산의 베트남 불자들이 그동안 말과 문화가 달라 제대로 된 법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뤄진 법회였다. 지난 7월부터 마땅한 환경과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봉행했다.

‘다문화 사찰’로서의 면모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과의 공존이 중요해지고, 또 불교계도 다문화 가정을 적극 지원 · 포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중심에 삼광사가 있다. 삼광사는 앞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삼광사의 이 같은 행보는 무원 스님이 주지로 오면서 본격화됐다. 무원 스님은 서울 명락사 주지 시절에 명락사를 국내 첫 다문화 사찰로 표방,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불사들을 진행했다. 스님은 지난해 초 삼광사로 온 이후로도 ‘다종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 ‘다문화가정 초청 전통예절문화 강좌’ ‘글로벌 친구 인연 맺기’ ‘스리랑카 승가학교 학인 스님 템플스테이’ 등 다문화 가정 불자 초청 행사를 연이어 여는 한편, ‘부산 다문화 실태와 결혼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포럼’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삼광사는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캠프, 세계전통음식 어울림 문화 한마당도 열었다.

무원 스님은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화두를 통해 어떻게 화합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풀어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책 복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 불국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문화 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는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원 스님의 다문화 포교는 사실 2009년 국내 최초 ‘다문화 사찰’인 천태종 명락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본격화 됐다. 스님은 다문화 가정, 특히 결혼이주민 중 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다문화 포교는 평생의 서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인 무원 스님이 전국다문화합창제에서 수상자들과 무대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며 웃고 있다.


2005년 개성 영통사 낙성법회 모습



삼광사 주지 취임이후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무원 스님


동티모르 축구단을 격려하는 무원 스님

첫 다문화母子 자립공간 '명락빌리지'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명락빌릴지' 이다. 명락사 바로 곁에 위치한 명락빌리지는 국내 최초 다문화모자가정을 위한 자립 공간으로, 건립 당시 중국, 몽골, 베트남 인 등 9가구 16명의 가족이 생활했다. 이들은 모두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젖먹이를 키우는 편모가정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몫이지요."

스님은 개관 당시 명락빌리지가 '수용 공간' 이 아닌 '자립 공간' 임을 강조했다. 이곳에서는 3개월 또는 반년의 시간을 주고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등도 알선하며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완전한 한국인 가정' 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이다. 예산은 모두 '다문화가족돕기1만등불밝히기' 같은 행사로 신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인데, 여기에는 일반 신자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겠다는 스님의 생각이 깔려 있다.

스님은 당시 다문화가정을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라고 말했다. 어디서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포용보다는 규제의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글로벌 시대의 견인차' 가 될 자질이 많습니다. 그 가능성을 높이 사기에 복지를 위한 역량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스님의 이런 보시행은 오래됐다. 명락사 주지 이전인 인천 황룡사에서는 새터민 돕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복지 사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스님은 "수행의 근본이 바로 희생 · 봉사 · 헌신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수행은 깨달음을 구하는 행위지만, 그 깨달음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깨달음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스님은 바로 소외된 자들에게 내미는 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희생 · 봉사 · 헌신이 바로 수행의 근본"

스님의 이런 행보는 사실 출가 시절의 인연과 관계가 깊다. 17세, 스님의 출가는 빨랐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삶과 병듦, 죽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절로 들어갔다. 3년간 오대산 일대 절에서 수행을 했고, 20살에 구인사로 들어가 남대충 대종사를 모시고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 때 스승에게 받아 평생을 들고 온 화두가 '마음 잘 쓰는 것이 도 잘 닦는 것' 이란 문구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고 거기에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잘 쓰고 있는가를 견주고 있지요."

그 '마음 쓰는 방법' 이라는 게 다름아니라 보시행을 베푸는 것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젊은 나이에 총무원 일을 맡으면서부터 그는 다짐대로 이 방면의 일을 계속했다. '한국다문화센터 정책자문단장' ,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대표' 등 이래저래 걸친 직함만도 셀 수 없다. 종교 · 이념을 떠나서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는 복지, 스님은 "그런 보시행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했다. "너무 잘하려는 것도 탐심(貪心)"이라고 하지만 스님은 지나온 발걸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음 쓰는 법' 을 고민하며 용맹정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황룡사, 경주 청강사 등 그가 세운 10여 개의 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지나가면 그만일 곳이지만 지금 삼광사에서도 꿈을 키우고 있다. 바로 삼광사를 명락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찰' 로 만든다는 것이다.

무원 스님은 "한 집안에서도 종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듯이 이제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다종교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을 우리 불교가 세계인으로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시대에 모두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문화 전법사 무원 스님의 당부다.

스님은 내년 1월에 색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삼광사 어르신 신도 5백여명을 기차로 모셔서 태백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일명 '힐링열차' 다. 그 곳에서 고구마와 감자도 먹으며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되새겨 줄 생각이다. 스님은 "설국열차보다 더 즐거운 힐링열차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지켜봐주세요"라며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짓는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법일기

주인이 따로 있다

대만의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성운대사의 "원력을 세우면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면 불사를 이룬다"는 법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이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이런 힘이 신앙과 만나면 몇 배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저 둔황의 석굴이나 용문석굴의 불가사의한 조각들은 불심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옛 사람의 표현에 '물각유주(物各有主)' 라는 말이 있다.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인데 집터나 절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터라도 누구는 자리 잡고 살고, 누구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주인을 만나면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이곳의 절도 내가 옮겨오기 전에는 그저 잡초만 무성한 묵정밭이었는데 주인을 만나서 조촐한 도량으로 변모하였다. 집이든, 땅이든 주인이 따로 있긴 있나보다. 당대(唐代)의 시인 유우석은 〈누실명(陋室銘)〉에서 '산이 높다고 좋은 산이 아니다. 그 산에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다. 물이 깊다고 좋은 호수가 아니다. 그 물에 용이 살아야 신령한 호수다.' 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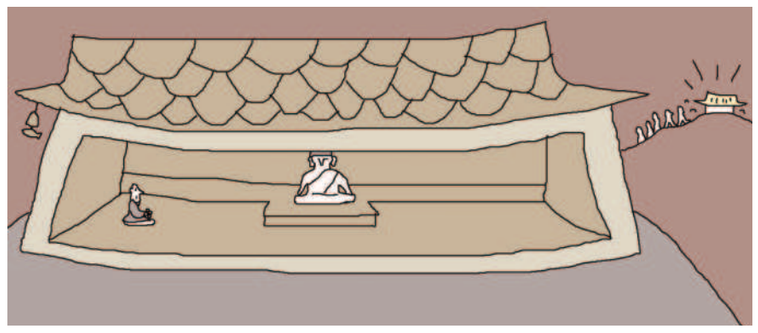
비록 비좁고 초라한 곳이라도 그 곳에 빛나는 인물이 살고 있으면 결코 누실(陋室)이 아니라는 뜻. '길인주처시명당(吉人住處是明堂)' 이라는 글처럼, 길지나 명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곳이 명산이 되고 명찰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그 터에 머물러 사는 주인들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도연명의 시에 용슬재(容膝齋)라는 정자가 등장하는데 예찬(倪瓚)이라는 사람이 그 풍경을 묘사한 〈용슬재도(容膝齋圖)〉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무릎이 닿더라도 용납되는 집' 이란 어떤 곳인가. 이것은 무릎이 부대낄 정도로 집이 좁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은자(隱者)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런 집은 비록 작고 누추하더라도 눈빛이 형형한 지사(志士)가 살았으므로 그 어떤 궁궐보다 훌륭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사원도 마찬가지다. 법당이 크고 장엄하여도 가르침을 배우거나 법을 구하는 자의 방문이 없다면 오히려 세칸 법당의 암자보다 못할 것이다. 절은 그럴듯한데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인 없는 집이나 똑 같다. 저 산중의 작은 암자라 하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이가 몰린다면 그 절은 단연코 명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저 시정(市井)의 넓고 웅장한 절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물어보는 자가 없다면 그 절은 명찰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나의 명당론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조왕 시절에 새 궁궐이 완공되었을 때 백제 사람들이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묵서(墨書)를 남겼다. 그 옛날 백제인들이 추구했던 건축의 기준은 이러했다는데, 집을 지을 때마다 이 미학의 공식을 갖추기가 참 어렵다. 너무 규모가 거대하기만 하면 오밀조밀한 멋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작은 것만 추구하면 장중함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건물은 기교를 줄여야 하고 작은 건물은 소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지나치지 않는 고졸한 조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을 새로 지을 때 저 백제인들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는데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절의 품위를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가난하고 맑은 절' 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창건 정신이 변함없는지 점검해보게 된다. 우리 모두가 절제와 가난의 미덕을 잊고 사는 시대라서 더더욱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발원했다.


그림 · 박구원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8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 가 5,000원
• 68㎝×195㎝(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印 오리사, 불교관광 버즈(Buzz)마케팅 시작

친환경 불교관광 벨트
'불교유산 산책로' 선보여

인도 동북부의 불교관광 성지를 꿈꾸는 오리사(Odisha)가 글로벌 관심을 다잡기 위해 친환경 불교관광 벨트인 '불교유산 산책로(Buddhist Heritage Trails)'를 선보였다.

〈Indian Express〉 지는 12월 10일 "오리사가 주정부 차원의 관광 프로그램 '불교 유산 산책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불교관광 성지로서의 오리사의 잠재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오리사는 숱한 불교유적에도 불구하고,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등과 비교해 관광객 사이에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ndian Express〉 지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오리사 관광청은 '관광'과 '친환경'이라는 다소 생경한 단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버즈(Buzz)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주로 상품의 속성이 어우러진 키워드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인도 동북부 오리사(Odisha)에 위치한 칸다기리 석굴(Khandagiri caves). 약 2세기 경 만들어진 고대 스님들의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동굴 · 사원 포함된 10일 순례길
불교관광 성지 입지 다지려면
힌두교 순례지 선입견 넘어서야

오리사 관광청이 이번에 선보인 '불교유산 산책로'는 10일~1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라리트기리(Lalitgiri)의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 칸다기리 석굴(Khandagiri cav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은 사원 유적과 그 벽면을 빼곡히 메운 부조가 돋보이는 곳이다. 특히 라리트기리의 탑에서는 검게 탄 뼈 조각들이 발굴됐는데, 인도 학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허물어진 언덕'을 뜻하는 칸다기리에 있는 석굴은 약 2세기 경 만들어진 고대 스님들의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오리사 관광청은 '불교유산 산책로'에 앞서 '신성한 순환길(Sacred Circuit)' '늘어난 신성한 순환길(Extended Sacred Circuit)' 등을 운영하고 있다.

〈Indian Express〉 지는 "오리사 관광청은 지난해 라리트기리를 방문한 인도인 관광객은 25,054명인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305명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관광지라면, 주정부의 홍보와 맞물릴 때 두드러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오리사 관광청의 '불교유산 산책로'는 홍보가 더해질수록 글로벌 시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오리사가 불교관광 성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우선 오리사는 힌두교 순례지로 더욱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매년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지만, 불교와 관련해서는 네팔, 보드가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인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관광지 선호도 조사에서 오리사가 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불교관광지로서 오리사의 장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Indian Express〉 지는 인도 주재 유엔 세계 관광기구의 베즈바루아(Bezbaruah) 대표의 말을 인용, "오리사가 다른 경쟁적인 불교관광지보다 보드가야나 바라니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오리사가 꿈꾸는 '불교관광 성지'로서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P.E.I에 만발한 불연(佛緣)

대만 스님들, 비불교도 로린(Lorin) 추모


대만 스님들이 캐나다에서 포교하는데 도움을 준 현지인에게 공덕문을 전달했다.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이하 P.E.I)의 대만계 불교공동체가 지난달 세상을 달리한 한 캐나다인의 추모식을 봉행하고, 그의 선행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

〈The Guardian〉 지는 "P.E.I 불교공동체가 지난달 초 타계한 로린(Lorin)의 추모제를 봉행하고, 그의 아들 도웅(Doug)에게 공덕문을 전달했다"며 "불교도도 아닌 로닌에게 공덕문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로린과 대만 스님들은 4년 전 여름, 이웃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대만 스님들은 본토 불교계의 지원을 받아 해외 포교를 위해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섬을 처음 방문했다.

싱추(Xing Zhu) 스님은 "처음 포교를 시작한 우리 스님들에게 당시 로린의 도움은 구글(Google)보다 더 유익했다"며 "이것이 불자도 아닌 한 캐나다인에게 공덕문을 전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싱후이(Xing Hui) 스님은 "P.E.I에 사찰을 여는 불사가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로린은 우리에게 시장을 찾아가는 길도 안내해주고, 그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조언해 줬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4년간 스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기뻐했다"고 말한 로린의 아들 도웅은 "아버지의 역할을 나 역시 그대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샬롯의 참불교사, 순수 미국인 불심을 잡아라

중국계 불교공동체에서 인종 떠나 '지역 불교계'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개원 20여년 만에 지역 주민 중 순수 미국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사원이 화제다.

〈Charlotte Observer〉 지는 지난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중국계 참불교사(Truth Buddhist Temple)가 개원 20여년 만에 중국계 미국인이 아닌 순수 미국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참불교사는 1990년대 초 샬롯의 주요 대로인 몬레 로드(Monroe Rd) 가에 설립됐다. 개원 당시 지역 주민 중 중국계 미국인의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껏 순수 미국인 불자에게는 외면 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순수 미국인이 일요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릎 꿇은 자세로 합장한 채 앉아 있는 일요법회 참여자들 가운데 매번 2~3명의 순수 미국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한 〈Charlotte Observer〉 지는 "참불교사는 4개월 전부터 법회 중간 중간에 영어로 법회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순수 미국인의 발길을 옮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중국계 미국인이 주류인 사찰을 찾는 게 저에게는 도전이나 다름없다"는 테드 호프러(Ted Hoffler) 씨는 "그러나 불교를 배우려는 의욕만큼은 나를 비롯해 이곳을 찾은 순수 미국인들 모두 대단하다"며 "우리는 보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 수행은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메기 펜(Maggie Phan) 씨는 "내 경험에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내 주변의 두려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하는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메기 펜 씨는 지난 9월부터 일요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활짝 열려있고 그 인과를 유추할 수 있는 불교적 운명관에 끌렸다"는 팬 지앙(Fan Jiang) 씨는 "이처럼 불교적인 삶에 충실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면, 일상에서 어느 순간 닥치지도 모를 '불행'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중국계 참불교사에 미국인 신자가 늘고있다.

"영어로 일요법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당초 이민 3세대 불자를 위한 배려였는데, 순수 미국인 불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필립 추아(Phillip Chuah) 스님은 "이를 계기로 참불교사는 일요법회 뿐만 아니라 중국어 및 영어 버전의 다양한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불교사를 찾는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아가겠다"고 말했다.

〈Charlotte Observer〉 지에 따르면, 참불교사는 현재 일요법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사 이후에 '정법 연구(Dharma Study)'라는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부처님은 누구인가?'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호흡법' 등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계는 물론 순수 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495억원 짜리 탕카 경매서 낙찰

600여년 전 명나라 영락제 때 제작된 티베트 불화 탕카가 국제 경매에서 3억 4840만 홍콩 달러, 미화로 4500만 달러(한화 약 495억원)에 팔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월 26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중국 상하이 금융재벌인 류이첸에게 이 탕카가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탕카는 지난 2002년 경매에서 미국인에게 3천만 홍콩달러에 팔리면서 불교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경매에서 팔린 탕카는 가로 213.4㎝, 세로 335.3㎝ 크기의 비단 위에 대승불교의 명상의 신인 락타야마리가 그려져 있다. 그림을 낙찰받은 류이첸은 "15세기 탕카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몇 년 동안 내가 보유한 상하이 룽 미술관에 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설치미술로 만나는 범어사 대웅전 장엄물

불화가 이수예 제6회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범어사 장엄물을 설치미술로 옮긴 '연화장 세계1' 불화가 이수예 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전이 12월 24일~30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선종의 대표사찰,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주지 수불, 보물 제434호)의 연화장 세계가 서울 도심으로 옮겨온다. 불화가 이수예 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전이 12월 24일~30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수예 작가는 대웅전 내부를 장엄했던 연꽃, 국화, 당초 등 각종 문양과 상징, 불화 등을 31개 파트로 나누어, 1년여의 작업구상 기간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500여점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조선중기 목조건축 걸작인 범어사 대웅전의 내부 목조 부재, 닫집, 벽화, 포벽, 우물천정 등에 표현된 불화와 전통문양들은 살아있는 불국토의 상징이다.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빛깔 또한 세월의 무게로 가라앉아있는 불교미술의 보물창고다. 이수예 작가는 옛 단청문양을 재현하면서도 독창적 해석과 표현으로 과거 불모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화엄 연화장 세계의 시대적 접근을 모색했다.

이수예 작가는 "법당을 예배하는 이들은 대부분 불전에 엎드려 절하지만 정작 부처님을 장엄하는 주변의 크고 작은 연꽃과 단청의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며 "내 실력으로 감히 견줄 수 없는 옛 불모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시 파트 중 하나인 '연화장 세계1' 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천장의 국화문, 연화문, 측연화문, 주화문 등을 벽으로 옮겼다. 기본 틀을 만들어 문양을 뜨고 색칠한 단청 문양들을 벽에다 걸고 장식하니 연화장 세계를 상징하는 설치미술이 완성된 것이다. 고전적인듯 하면서도 세련되고 익숙한듯하면서도 독특한 이 문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12월 24일 서울 가나아트서 개막
단청한 불화, 문양을 설치미술로
1년 구상 끝에 5백여점 선봬
연화장 세계1 · 2 눈여겨 볼만



이수예 작가의 작업 장면.

이 작가는 "그동안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전시 역시 그런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불교 미술에는 작가들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교미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업이 불교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와함께 '연화장 세계 2' 에서도 평연화 반자, 당초문 반자, 금문 반자 등을 벽으로 옮겨와 절집 천장의 신비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12월 24일 오후 3시 오픈식을 갖는다. 25현 가야금 병창과 피아노 바이올린 2중주 등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린다.

한편 불화가 이수예 씨는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장으로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범어사, 미황사, 무위사 등 전국 40여 사찰에서 성보 문화재 조성과 보수 불사에 매진했으며 불교미술대전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현재, 동국대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원예술대학 등에 출강중이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2회 불교음악상 수상자 선정



덕신 스님



지휘자 이준형



성악가 연정연



작곡가 강주현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에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이 선정됐다.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는 불교음악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대상에는 오랜 세월 찬불가 작사 및 보급에 앞장서 온 덕신 스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로상에 이준형(지휘자,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 · 연정연(성악가, 바라오페라단 부단장)씨가, 원력상에는 강주현(작곡가, E&I 앙상블 대표)씨와 추현철(성악가, 지휘자)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대상 500만원, 공로상 300만원, 원력상 1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불화로 되새기는 전통의 美

단청장 권현규 씨 개인전… 12월 23일~ 31일 충북대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단청장 (충북9호) 권현규 씨의 불화전이 12월 23일~ 31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영산회상도, 신중탱화, 지장탱화 등 30여 점의 전통불화를 선보인다.

단주 권현규 작가는 "불교미술의 쇠퇴기라 할 수 있는 조선후기 불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불화만 찾지 조선후기 불화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이번 작품은 저의 개성을 나타냈다기보다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선불화의 중요성을 되돌아보았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4살 때 절에서 본 단청에 큰 감화를 받고 단청장의 길에 접어들었다. 영봉(남인식) 스님으로부터 사사 받았으며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수료, 불교미술전람회 3회 입선했다. 또한 개태사, 화장암 등 전국 100 여개 사찰 단청 및 탱화를 조성했다. 뇌경색으로 10여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꾸준히 작업을 해왔고 올해 12월 5일~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불화가 권현규 씨의 칠성탱화

또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중국 투루판의 베제클리크석굴 벽면 등도 재현해 선보인다. 010-5443-7246

정혜숙 기자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위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12월 2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21회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위안' 이 12월 2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황학현 해피월드 총예술감독이 기획하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오민경 씨가 지휘를 하는 공연에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30명이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제 위기에 지친 대중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학현 감독은 "진정, 우리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크나큰 찬사가 아니라 입가에 스치는 작은 미소, 함께 걷자고 내미는 손,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 마디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음악회는 아이들의 해맑고 여린 속삭임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친 삶을 회복하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지난해 연주회 장면

공연은 △1부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과 치유' △2부 용기와 변화, 그리고 희망과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음보살, 우리절 연못 등의 찬불가가 공연된다. 특별출연으로는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찬불기타그룹 '메타' , 국악인 한아름, 창작찬불동요제 대상팀 '일곱 빛깔 중창단' 이 함께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전시회

12월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세 주제로 진행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 가 지화문화를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3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꽃 자연으로 물들다' 가 12월 12일~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 공모전 입상 작품 △김태연 박사 · 이송자 작가 초대전시 △정명 스님의 특별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계종 성역화 출범식 신중단에 장엄으로 올렸던 팽이난 등과 그 외 살모란, 연꽃, 불두화, 동백, 창작 지화, 장미, 함박꽃, 작법 꽃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조계종의 주요 불교무형문화유산 중 하나인, 불교지화장엄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11년 12월 8일 창립했다. 지화 전승자를 양성하고, 보존,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지에 천연염료로 물들인 전통지화를 불교계 처음으로 복원하였고 전통지화를 바탕으로 한 지화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이 12월 12일~18일 열린다.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백초율력학당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정가 20,000원 상당의 『한 눈에 쉽게 보는 백초귀장술 원도형』을 무료로 드립니다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문화人

“불음 통한 전법 여행 하고파” … 중생 위로하는 음악방송 계획

찬불가수 수안 스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내 마음과 같아서 내가 가는 곳 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나는 아마 자유롭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혼자 웃는 시간은 존재할 수 없을 거야.”

수안 스님의 ‘참 다행이다’ 中



문화 포교의 원력을 세운 수안 스님은 노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불음을 전하고 있다.

백양사서 노래로 템플스테이 열어
올 7월 첫 음반 ‘길을…’ 발매
광주 BBS서 ‘무명을 밝히고’ 진행
모바일 활용한 불음 콘텐츠 구상중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슬퍼하지만 수안 스님(前 백양사 포교국장)은 너와 내가 달라서 참 다행이라고 말한다. 제 각각 다른 모습에 다른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 노래하는 음유시인 수안 스님은 이처럼 일상의 깨달음을 노래로 말해준다.

3년전 백양사 포교국장 시절 노래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던 수안 스님은 올 여름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매했고 지난 10월에는 광주에서 콘서트도 열었다. 스님이 노래를 부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포교 현장 곳곳에서 일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를 결심했죠. 그러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떠올렸어요.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젊은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음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부러 어려운 불교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노래를 듣는 대중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바랬죠.”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 대학생 전법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으면서 대학생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일이 많았다. 또한 혜민 스님과 명상 콘서트 투어도 같이 다니며 취업문제 등에 지친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방황 하게 되면서 절에도 나가지 않던 적도 있었죠. 그때 생각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포교를 위한 원을 세웠죠.”

스님은 이른바 문화 포교의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결심 하자 스님의 숨겨진 재능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작사를 했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 하니 네 곡이 완성됐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고, 겨울을 견뎌야 새봄에 잎을 피울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내용이 노래에 담겼다. 이렇게 스님의 뜻이 알려지자 주변서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지역가수 인디언수니가 곡을 주었고 류근 시인이 가사를 써주는 등 주변의 지지를 적극 받아 지난 7월 드디어 첫 앨범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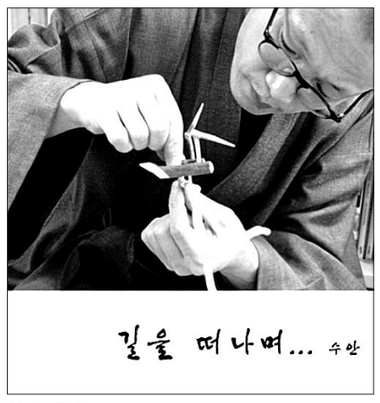
이어 10월 31일 광주 전문 라이브 공연장 보헤미안에서의 첫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다. “소규모 극장이지만 관객들이 다 못 들어올 만큼 객석이 꽉 찼어요. 이후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병원 요양시설 등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전법의 길에 나섰듯이 저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불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세상의 멘토가 되어 대중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주고자 한다. “대중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것도 스님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 대중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진행자이기도 한 스님은 팟캐스트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찬불가뿐만 아니라 가요 중에도 좋은 노랫말이 정말 많잖아요. 음악을 해설해주고 여기에 얽힌 인생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교계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포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난 10월 31일 광주에서 열린 수안 스님의 첫 콘서트 현장



음반 ‘길을 떠나며’ 표지

쌍계 건너 몇 개울이 놓였을까?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㊾ 쌍계사 (上)



쌍계사 진감국사 탑비. 남효온은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 비문을 읽고 난 술회를 장시로 남겼다.

범패와 차 역사가 시작된 곳

하동 쌍계사는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찰 중 하나다. 722년 대비(大悲)와 삼법(三法) 두 스님이 당나라에서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頂相)을 모시고 와서 옥천사(玉泉寺)를 창건한 것이 오늘날 쌍계사의 연원이라고 전한다. 정상은 정수리 뼈 즉 사리의 일종이다.

840년 진감(眞鑑) 선사가 당나라에서 신감(神鑑) 선사의 법을 잇고 돌아왔는데, 옥천사 옛터에 육조 스님의 영당을 짓고 절을 확장했다. 또 진감 선사는 이곳에서 범패를 가르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쌍계사는 대찰의 면모를 이어왔을 터이나 많은 사료가 전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쌍계사는 최근에 총림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치원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진감국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를 비롯 9점의 보물과 20점의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패가 시작된 곳이고 차 재배가 이루어진 곳이란 점에서 쌍계사는 남다른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쌍계사 진감국사대공탑비는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의 하나로 그 문체와 서체 모두가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절 입구 큰 바위에 새겨진 ‘쌍계석문(쌍계석문)’이라는 글씨도 최치원이 쓴 것으로 전해져 쌍계사 시문(詩文) 가운데는 최치원과 관련된 시문이 많다. 물론 지리산이라는 명산을 배경으로 하는 쌍계사는 산천경개를 유람하는 선비들에게도 각광받는 코스였다.

불일직부천장계(佛日直俯千丈磎)
한애초벽재유로(寒崖峭壁纔有路)
풍진불도연하로(風塵不到烟霞老)
동부창창석색고(洞府蒼蒼石色古)
동망향로폭포수(東望香爐瀑布水)
비류란쇄심여무(飛流亂灑深如霧)
백일회미홀처창(白日晦迷忽悽愴)
천풍삽삽취비우(天風颯颯吹飛雨)
학사구적청태몰(學士舊跡靑苔沒)
진결불전심독고(眞訣不傳心獨苦)
학거산공일월심(鶴去山空日月深)
사아묘연사현포(使我杳然思玄圃)

불일봉 올라서 천 길 계곡 굽어보니
찬 비탈 험한 벼랑 길 겨우 나 있더라.
세상 풍진 이르지 않고 안개만 자욱한데
아득한 골짜기에 돌 빛만 예스럽네.
동으로 향로봉 폭포수 바라보니
어지러이 뿌리는 물 짙은 안개 낀 듯하네.
대낮도 어두우니 마음 문득 쓸쓸하고
높은 바람 솔솔 불어 비를 불어 날리누나.
학사의 옛 자취 이끼 속에 묻혀 있고
참 비결 전하지 않으니 마음만 괴롭구나.

쌍계사 진감국사 탑비. 남효온은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 비문을 읽고 난 술회를 장시로 남겼다.

학은 가고 빈 산에 세월만 깊으니
내 마음 아득히 현포를 생각케 하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 〈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제1권에 수록된 이 시는 허목이 쌍계사와 지리산을 답사하며 썼다. 그래서 제목의 자리에 “경진년 9월 3일에 화개동(花開洞)으로부터 쌍계사 석문을 보고 이어 불일봉(佛日峯)에 올라 청학동(靑鶴洞) 폭포를 구경하면서 느낀 회포를 쓰다”라고 적혀 있다.

시는 지리산의 장관을 두루 관람하며 신선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심을 수려하게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의 ‘학사의 옛 자취’는 최치원을 말하는 것인데, 최치원 역시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문장으로 남아 있는 최치원의 행적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 비문을 읽고 난 술회를 30구의 장시로 남겼다. 그의 문집 〈추강집〉 제2권에 실린 ‘쌍계사 비문을 읽고’의 후반부를 보자.

차방문자자공시(此邦文字自公始)
청구학사공위수(靑丘學士公爲首)
팔영루평장죽간(八詠樓平長竹竿)
중정락엽일슬후(中庭落葉一膝厚)
청학고비고연공(靑鶴高飛故淵空)
쌍계석풍초림망(雙溪夕風抄林莽)
오가문장비장재(吾家文章非長才)
찬인공교졸구부(讚人工巧拙鳩婦)
승운공덕부가묵(僧云公德不可默)
강위각화무염추(强爲刻畵無鹽醜)

이 나라 문장이 공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 학사 중에 공이 첫머리라네.
팔영루는 평평한데 대나무 가지 길고
뜰 가운데 낙엽은 무릎까지 쌓였구나.
푸른 학 높이 날아가 옛 못 비었는데
쌍계의 저녁 바람 나무숲을 스쳐 가네.
나의 문장 솜씨는 훌륭한 재능 아니라
남의 재주 칭찬하기엔 서툴기 그지없네.
공의 덕 묵힐 수 없노라 스님이 말하며
더없이 못난 글귀를 억지로 새기누나.

시편에 드러나듯 남효온은 최치원의 글과 글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딘 글재주로 칭송하기조차 부끄럽다는 겸양을 보인다.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경우 쌍계사의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던가 보다. 그의 문집 〈월사집〉 제18권에 쌍계사를 그리워하는 시가 보인다. ‘지리산 승려 의준(義俊)의 시축에 적힌 시에 차운하여 산으로 돌아가는 그를 전송하다’를 제목으로 두수가 수록됐는데 앞의 절구 한 수가 빼어나다.

천재고운대필제(千載孤雲大筆題)
추풍귀흥일고려(秋風歸興一枯藜)
요지만학쟁류처(遙知萬壑爭流處)
도진쌍계우기계(渡盡雙溪又幾溪)

천년 전 고운이 대필로 써 두었느니
가을바람 부는 이때 다시 가고 싶구나.
멀리서도 안다네
일만 계곡 다투어 흐르는 곳.
쌍계를 건너면
또 몇 개울이 앞에 놓였을까.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 ~ 1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6	빅 마인드	데니스 젠포 메젤	정신세계사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김영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10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를심는사람들



양건식 〈석사자상〉에서 한승원 〈초의〉까지

한국 근 · 현대 불교소설 연구

고송석 지음 | 소명출판 펴냄 | 1만7천원



불교사상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관통하는 한국 전통 문학 사상의 토대이다. 고대에서 현대에까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은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다. 전통 문학 사상으로서의 불교 사상을 주제화한 불교소설은 우리 민족 정신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교소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소설에 비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최초 불교소설에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불교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위상과 가치를 고찰했다.

불교소설은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910년대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주조로 하는 불교소설은 양건식의 작품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는 한용운, 현진건, 이광수 등이 있었고, 1960~1970년대에는 김동리, 조정래, 김성동, 그리고 1990~2000년대에는 고은, 한승원 등이 맥을 잇고 있다.

책은 '불교소설' 의 개념을 홍기삼의 견해에 의거하면서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이 진화한 것' 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홍기삼은 불교문학을 ① 불교 경전 문학, ②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관적 토대로 수용한 창작 문학, ③ 경전과 창작의 중간 지대에 걸쳐 있는 불교문학의 자원(선시, 불교 설화, 승전류, 염험록 등)으로 나누고 있다. 책은 '②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관적 토대로 수용한 창작 문학' 을 불교 문학으로 보고, 이를 연구 대상인 소설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불교의 사상이 일부 소개되거나, 불교의 단편적인 이미지(승려, 사찰, 불교 상징물, 설화, 경전)가 부분적인 소재나 배경으로 등장한 소설은 '불교소설' 로 분류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소설 전체의 주제가 일관되게 불교 사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을 '불교소설' 로 한정했다. 따라서 책에서 말하는 불교소설은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주제의식으로 내세운 창작 소설' 을 말한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네 가지 측면으로 고찰했다. 첫째, '연기(緣起)' 는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유식(唯識)의 제8식인 아뢰야식은 2천년 전에 프로이트의 '무의식' 을 설정했다는 점. 셋째, 대승불교 사상의 '위로는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 는 보살 사상이 현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된다는 점. 넷째, 선(禪)은 본래 내면에 갖추어진 본성으로서의 불성을 자각함으로써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견성성불을 내세우는데, 이는 현대 동양의 휴머니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네 가지 외에도 대승불교 사상에는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2장에서 연구 방법론으로 대승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보살사상, 무아사상, 선사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소설을 짚어보았는데, 해당 작품은 양건식의 〈석사자상〉, 〈한일월〉, 〈아의 종교〉, 〈오!〉와 한용운의 〈박명〉, 현진건의 〈무영탑〉, 이광수의 〈원효대사〉이다. 4장에서는 1960~1970년대의 불교소설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작품은 김동리의 〈등신불〉, 〈극락조〉, 〈미륵광〉, 〈눈 오는 오후〉, 〈저승새〉, 〈호원사기〉와 조정래의 〈대장경〉, 김성동의 〈만다라〉이다. 5장에서는 1990~2000년대의 불교소설을 분석했는데, 해당 작품은 고은의 〈화엄경〉, 한승원의 〈초의〉이다. 6장에서는 앞서의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불교소설의 불교 사상적 특징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불교소설의 근 · 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살폈다. 7장은 결론으로, 대승불교 사상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소설 분석, 불교소설의 근 · 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요약하는 것과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 마지막에 덧붙인 보론에서는 이광수 소설의 대승불교 사상을 조명했다. 춘원의 불교사상적 기원이 유아기에 있으며, 그의 일생을 통해 불교 사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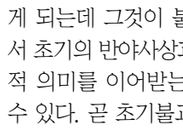
1910년대~ 현대까지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위상과 가치 조명
"리얼리즘 · 모더니즘이 못 다룬 종교 · 영성적 소재와 주제 다뤄"
작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줘

책을 통해 살펴본 불교소설의 근 · 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교소설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자랑한다. 또한 불교소설은 리얼리즘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이 다루지 못하는 종교 · 영성적인 소재와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소설이 기반한 대승불교 사상은 현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소설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불교 문화권의 '아시아 불교소설 문학' 을 정초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불교소설의 중심적 의미를 큰 관점에서 밝히고 있지만, 불교소설 작품을 하나씩 짚어보는 세밀한 과정도 놓치지 않았다. 불교사상을 친절히 설명하고 여러 소설작품과 연결지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깊이가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다는 점이 이 책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엔 지성의 발로인 '철학' 있어

지성불교의 철학

이태승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1만8천원



지성불교, 이 말은 필자가 붙인 말로서 '종교로서의 불교의 성격 가운데는 인간의 지성적인 요소의 발로 즉 철학적 성격이 짙게 담겨있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지성불교의 성격을 가지는 불교가 대승불교의 철학을 거쳐 본격적 그 체계가 정립된다는 의미로서 붙인 이름이 본서의 제목인 '지성불교의 철학' 이다.

지성불교, 즉 초기불교의 성격에는 인간의 정신상 중요한 기능을 지칭하는 지성의 역할이 그 창시자인 고타마 붓다에게서 극단적으로 발휘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고타마 붓다에게서 드러나는 지성의 발로를 담고 있는 사상적 개념이 다름 아닌 중도와 연기의 개념으로서, 이 개념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역사적 경과를 인도불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 중도와 연기의 개념은 특히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그 철학적 체계를 보다 완비해 가게 되는데 그것이 불교의 중요한 체계로서 초기의 반야사상과 나가르주나의 사상적 의미를 이어받는 중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초기불교에서 보이는 이러한 중도와 연기의 개념은 대승불교의 철학체계의 핵심 개념으로서 더욱 세밀하게 고찰되어지며 또한 그러한 고찰의 전통은 샨타라크쉬타에게서 보듯 인도불교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다시 말해 책은 '지성불교=대승불교=보살불교=중관불교' 의 개념적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교 속 '지성' =중도 · 연기
"오늘날 불교 철학적 의미 퇴색"

그렇다면 왜 지금 '지성불교' 를 논해야 하는가. 저자는 오늘날의 불교는 철학적 의미가 퇴색해 있다고 전제한다. 전통종교나 종교문화로서는 존재한다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뚜렷한 윤리적 이념이나 도덕적 실천을 주는 철학적 메시지로써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출간의 이유다. 따라서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보편적인 윤리의 입장을 전제하는 한, 동시대 불교철학자라면 불교의 사상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인 가치에서 지향 가능한 철학체계를 보여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초기불교에 나타나는 지성불교의 성격과 그 성격이 대승불교에 이르러 구체화되는 과정을 개설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지성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그 지성적인 성격으로서 불교를 의미하는 지성불교의 성격을 초기불교 속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전통이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지성불교의 의미를 갖는 중도와 연기의 개념을 초기불교의 경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의 철학적 토대가 나가르주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했다.

그리고 제4장에서 8장까지는 초기불교 이후의 지성적인 의미가 대승불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역사적 경과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지성불교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곧 대승불교의 실질적인 전승자로서 보살집단의 구체적인 실태와 대승불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전 속에서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곧 초기대승불교경전으로 간주되는 반야경전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반야심경〉속에서 그러한 중도와 연기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이 제6장 '범본 〈반야심경〉에 나타난 자성공의 의미' 이다.

세 번째로, 제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역사와 사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근거로 하여 재삼 지성불교의 철학과 의미를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대승불교의 중관철학에 의거해 중도와 연기의 개념이 더욱 체계화되고 심화된 내용에 근거해 지성불교의 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제10장에서는 대승불교의 전승자로서 보살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았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문명의 시작 '책판'

책판-나무에 새긴 문명

안준영 지음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펴냄 |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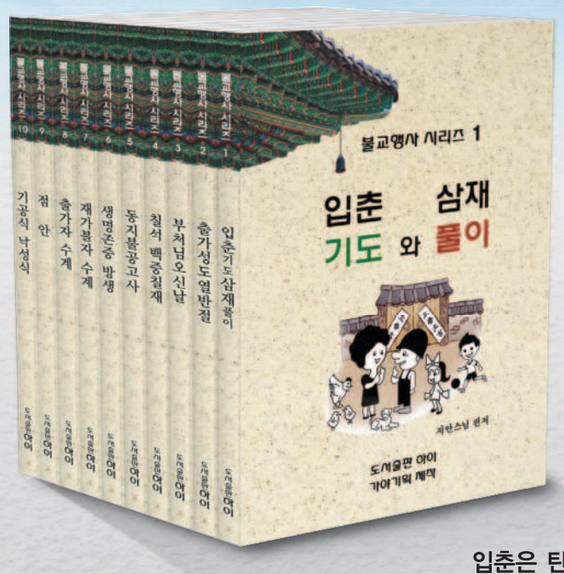
인류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기록' 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더욱 기울였고, 대량인출과 지속적인 인출을 가능하게 한 책판을 만들어냈다. 책은 그 '기록' 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책판' 을 조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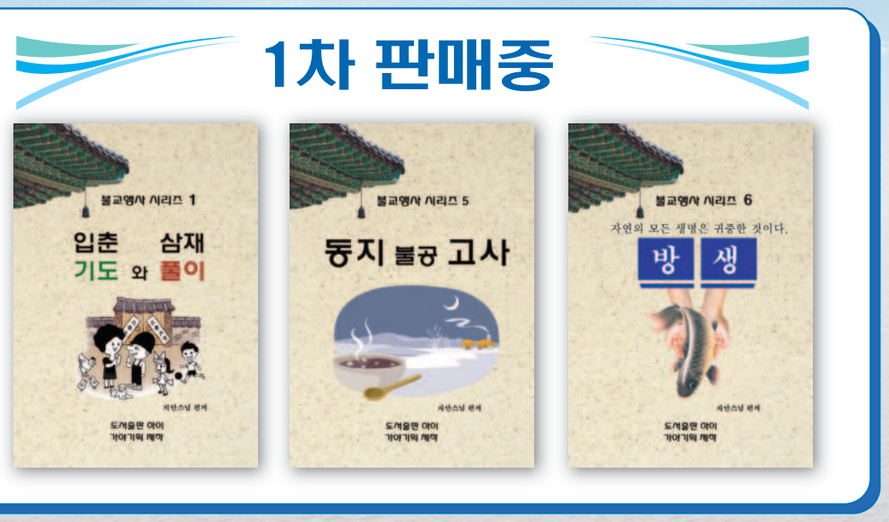
지식, 정보 축적을 가능하게 한 책판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전해져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책판은 대장경 등 불경과 유학 도서를 비롯하여 한글, 미술과 음악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기록문화의 꽃이다. 책판의 문화는 서지(書誌)와 장정(裝幀)문화까지로 확장됐고, 종이염색과 함(函)으로까지 확장됐다. 이러한 문화는 소명의식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 유통 전승됐다. 책은 이러한 전승문화를 오롯이 잇고 있는 대장경 문화학교 이산 안준영 대표가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형을 소개하는 책이다.


대장경 경판

책은 책판의 역사, 재료와 도구, 판각 도구와 과정, 책판의 인출 과정, 책의 장정과 제본 과정, 전승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책은 책판 제작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배워온 필자의 삶이 함께 담겨 있다. 책판과 관련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은 책판을 복원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복원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저자의 실제 경험과 문헌, 구전을 바탕으로 목판 인쇄의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땀과 노력이 묻어나는 책이다.

이 분야의 전문서적이 많지 않고 전통시대와 단절된 오늘날 판각에 대한 각 단계별로 이론과 실제, 현장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관련 분야는 물론 한국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불교행사 지침서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1차 판매중


입춘, 출가성도열반전,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름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청, 신중청,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어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팥죽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팥죽 예화등 수록.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내면 어둠만 이해해도 삶 변화 가능"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제임스 앨런 지음 | 장순용 옮김
판미동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은 생각의 방식을 바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잠언 형식으로 들려주는 책으로, '신비의 작가' 제임스 앨런의 첫 번째 저작이다. 이 책은 저자가 부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소모적인 삶에 번민하며 자발적 빈곤과 상하는 새로운 삶을 모색하던 시기(1901년)에 쓰였다. 따라서 당시 그가 겪었던 고민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정신의 깊이를 도모하는, 단순한 자기계발서 이상의 책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이 책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제한된 외부 조건을 극복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을 누리는 60가지 방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불행, 질병, 사악함, 재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악(惡)', 특히 자신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여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면의 생각이 외적인 결과, 예컨대 건강, 성공,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각의 본성, 활용법, 파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성공을 탐하기 전에 미덕 먼저 갖추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 탓하지 말기, 무익한 행위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이기적인 만족과 참된 행복감을 구분하기, 경쟁 법칙에서 벗어나 올바르다고 믿는 일 실천하기 등등 일견 쉽고 단순해 보이는 이 책 속의 잠언들은 곱씹을수록 그위력을 더한다.

'생각의 힘' 최초로 발견한 고전
지속적 행복 누리는 60가지 방법
잠언 형식으로 간결히 정리

이 책은 함축적으로 쓰인 고전이기에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들이 많다. 처음 읽었을 때에는 모호한 구절이 두세 번 곱씹을수록 위력을 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쉽고 간편한 텍스트 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함축적인 텍스트의 의미는 각별하다. '텍스트의 경제성'만 생각한다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텐데, 그러한 논리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진심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쉬어 가며 한 구절씩 음미하는 편이 이 책을 체화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제임스 앨런이 죽은 뒤 그의 아내 릴리 앨런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이론이나 작품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 메시지가 있을 때에만 글을 썼고, 그 메시지는 삶에서 직접 체현하여 좋은 점을 알아냈을 때에만 생겼다. 그는 실천하여 검증된 사실만을 기록했다."

저자는 정신적인 스승으로 모신 톨스토이의 저작은 물론, 불경, 철학서 등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들을 섭렵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밭에서 일하는 단순한 일과를 보냈지만, 매일 새벽 바닷가 언덕에 올라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등 정신적인 수련과 교류를 늦추지 않았다. 고로 이 책은 저자 자신이 묵상적인 삶을 살면서 동서양의 지혜를 생활에서 직접 체현해 보고 스스로 납득이 가능하고 효용성 있는 메시지만을 기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책을 음미해 나간다면, 독자들은 동서양의 교리를 뛰어 넘는 인생의 진리와 한 인간이 정직한 생애를 통해 가려 놓은 '생각의 정수(精髓)'를 만나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외적인 환경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을 때 뿐이다. 당신은 생각의 본성, 활용법, 파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본질은 곧 사랑이요 자비다

파워 오브 러브

브라이언 와이스 지음 | 윤민, 이강혜 옮김
윤앤리퍼블리싱 펴냄 | 1만5천원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좌절, 슬픔,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만 같다.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과일은 몇 점 들지 않은 과일 케이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족과의 불화, 깨져버린 인간관계, 망가진 건강,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남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쉽게 떨쳐내 버릴 수 없는 삶의 공허함 등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하게 된다. "왜 사는 거지, 산다는 게 이런 걸까,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등등.

넘어지고 배우는 지구학교 사랑수업

와이스 박사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하나의 '기회'이자 '수업'이다. 지구가 우리의 학교이고 인생이 우리의 수업이며 사랑이 이 학교의 핵심 교과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 모두 '생생한 현장학습'을 위해 사전에 계획해 놓은 '장치'이며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이라는 교과목의 본질을 온전히 소화하고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두려움 극복 방법 등 제시해
'사랑' 개념 실생활 적용법 설명
구체적인 사례와 메시지 소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들 하지만, 사랑이라는 실기수업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길 잃은 날에 만나는 인생의 나침반

저자는 이 책에서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루 조명함으로써 독자가 현재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사건을 겪고 있든 '사랑'이라는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 또한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메시지를 제시한다. 임산부라면 예상치 못했던 아기와 나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 오를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함께 있으며 결코 영원한 헤어짐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결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진정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의 소중함과 자기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치유자로서의 역할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 깨달음의 길에서 진정한 스승을 찾고 싶은 사람, 직관을 계발하고 싶은 사람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본질 깨달을 때 명확해지는 삶의 방향

한 알의 씨앗은 그 안에 한 그루의 나무를 품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품은 불멸의 영혼이다. 우리의 본질이 곧 사랑인 것이다. 〈파워 오브 러브〉에서 와이스 박사는 다양한 사례와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준다.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써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군에 간 아들에게 보낸 그림편지 100여통

아들아

장건조 지음 | 무량수 펴냄 | 1만5천원



몇주전 후배가 책 하나를 건넸다. 하지만 '아들아'라는 제목을 처음 보고는 눈에 띠는 불서가 아니기에 후순위로 밀어놨다. 매주 내 책상 위에는 지면에 간택받길 바라는 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조금은 진지하게 읽고 싶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어느 극성맞은 아버지의 부정(父情)쯤으로 여겨서다. 그 오판은 몇 장의 책장을 넘기며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히려 책장을 넘길때마다 묻어나는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사랑에 저자의 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시종일관 했다.

올해에는 유난히 군대에 사건사고가 많았다. 지난 4월 경기도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비롯해 동부전선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군을 신뢰한 전 국민들의 가슴을 한순간에 멍들게 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펜을 들어 편지지에 정(情)이 듬뿍 담긴 위문편지를 병사 아들에게 보낸다면 분명 그 아들이 큰 감동과 위안을 받고 고된 군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의 매주 한 두통 그림 편지는 부산 해운정사 진제 종정 예하 큰 스님 지도하에 참선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계기가 됐다. 진제 큰 스님은 저자에게 '처처작주(處處作主)'의 격려 법어를 손수 써주시면서 다른 훌륭한 분들의 격려 글을 그림 편지와 함께 군에 간 아들에게 보내면 좋은 기운이 전해져 장차 아들도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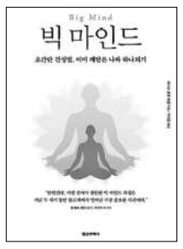
저자인 서양화가 장건조 화백(65)은 아들 장진혁씨에게 입대한 2012년 8월부터 전역한 올 4월 1일까지 총 100여통의 편지를 보냈다. 저자는 평소 아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 나는대로 그 내용을 색연필로 A4용지에 그렸다. 군생활에 대한 조언은 물론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김연아 선수의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 소식 등 시사적인 내용도 아들과 서신으로 공유했다. 한글자 한글자 정성들여 꾹꾹 눌러쓴 편지글에는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한 염려보다는 저자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참 깨달음을 인생 선배로서 오롯이 전했다. 이렇게 정성스런 그림 편지를 쓰다보니 아들의 군부대에서는 저자가 스타가 되었다. 각 입대한 이등병부터 부대장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의 지극정성에 대한 아들의 화답은 과연 몇 통 정도였을까? 무척 궁금했다. 저자의 아들은 지금까지 6통 정도의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저자는 "요즘 스마트폰 세대라 종이에 편지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보니 그것도 감지덕지"라며 웃는다.

김주일 기자

참나에게 질문 던지면 그 '나'가 대답

빅마인드

데니스 겐포 머젤 지음 | 추미란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2천원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다. 내 삶에서 주인공 행세를 하는 '나'도 있고, 그 반대편에 버려진 '나'도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깨달은 나'(빅 마인드)도 있다. 이것은 모든 성인과 선사들이 한목소리로 증언해온 분명한 진실이다. 빅 마인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방치된 마음, 가면 뒤의 자아, 상처입은 어린아이부터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더없이 간단하다. 그들에게 말만 걸어주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저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70년대부터 선(禪) 수행자이자 교사로 활동해온 머젤 선사. 남캘리포니아 대학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인명구조직과 교직에 종사하다가 1973년 타이잔 마에즈미 선사 밑에서 선승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마에즈미 노사의 두 번째 법 계승자가 되었다. 1982년부터 전 유럽에서 선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간제온(Kanzeon: 자비) 승가라는 이름의 국제단체를 창설했다. 간제온 승가는 현재 미국 유타 주 솔트 레이크 시에 그 본사를 두고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몰타, 네덜란드에 말사를 두고 있다. 1996년 버니 글라스만 노사로부터 선사(Zen Master) 인가를 받았고 그것으로 동시에 조동종과 임제종 양쪽의 정통 계승자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서양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겐포는 마에즈미 노사의 모든 법 계승자와 그들의 후임자들로 구성되는 세계적 단체인 화이트 플럼(White Plum) 승가와 그들이 이끄는 다른 많은 단체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력의 저자는 우리 안의 '수많은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심리치료 기법을 구도와 수행의 목적에도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아주 간단한 견성법인 '빅 마인드 과정'을 개발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에고에게 질문을 던지면 에고가 대답하고 참나(빅 마인드)에게 질문을 던지면 참나가 대답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약간의 요령을 익힘으로써 '이미 깨달은 나'를 불러내어 만나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경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명상과 좌선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빅 마인드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빅 마인드입니다. 나와 분리된 것, 별개인 것, 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작도 끝도 없고 탄생도 없으며 따라서 죽음도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죽지도 않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는 그 하나의 마음입니다.

김주일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분별·망상 부수니 '眞空妙有'의 진리가

불교로 읽는 古典

김만중의 〈구운몽〉



장영우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의 소설로 널리 알려졌다. 소설(小說)을 "시중에 떠도는 자질구레한 이야기(街談巷語 道聽塗說)" 정도로 낮게 평가했던 조선조에서 사대부가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김만중은 두 편의 소설을 썼고, 그 두 편의 소설은 박지원의 작품과 함께 한국소설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 그는 〈서포만필〉에서 "마을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긷는 아낙네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비록 상스럽다 하지만, 그 참됨을 논한다면 사대부들의 시부(詩賦)보다 낫다(閭巷間樵童汲婦 譸而相和者 雖曰鄙俚 若論眞 則固不可與學士大夫所謂詩賦者)"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제 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배우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今我國詩文 捨其言而學他國之言 設令十分相似 只是鸚鵡之人言)"는 등 조선 사람은 조선의 말로 글을 써야 한다는 주체적 문학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소설은 모두 창작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인 숙종의 총명을 일깨우고자 〈사씨남정기〉를 지었다거나, 귀양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구운몽〉을 창작했다는 속설이 그것이다. 그의 시호(諡號)가 '문효(文孝)'인 것만으로도 그의 효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구운몽(九雲夢)〉은 성진(性眞)이란 승려가 꿈에 양소유(楊少遊)란 인물로 태어나 온갖 부귀향락을 누리다가 그것이 허망함을 깨닫는 순간 다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흥미로운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의 주제에 대해서는 '일장춘몽', '삼교융합(三敎融合)', '불교의 공(空)사상', '사대부 이념과 욕망의 표현'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거니와, 이 작품을 '음란·불효소설'로 보는 과격한 주장도 대두된 적이 있다.

그것은 양소유란 작중인물이 여덟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결혼을 할 때도 어머니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이해조가 "〈춘향전〉은 음탕교과서, 〈심청전〉은 처량교과서,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라 평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소유가 여덟 부인을 둔 것은 그가 음탕해서가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결과이고,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 이름을 널리 떨친 것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구운몽〉의 내용 파악이 불교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유교적 측면에서의 견해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이 작품의 액자식 구성과 관련된다. 이 소설은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수행하는 성진의 번뇌와 각성이 앞뒤로 배치되고, 속세에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승상(丞相)으로 출세한 양소유의 삶이 중심서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어느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대부의 이념과 욕망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액자 속이야기인 양소유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액자소설의 경우, 겉이야기와 속이야기는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하나의 통합 서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액자틀과 속 내용을 분리해도 그림을 감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회화의 예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러므로 〈구운몽〉은 성진의 수행담과 양소유의 성공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이야기가 합쳐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성하는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구운몽〉은 세속에서의 화려한 성공보다 불교적 수행이 더 값진 삶이란 주제로 나아간다.

〈구운몽〉은 제목을 이해하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다. 제목의 첫 글자인 '구(九)'가 '한 명의 남성 주인공과 여덟 명의 여성 주인공'을 뜻하는 것이란 해석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구름(雲)'과 '꿈(夢)'의 상징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이다. '구름'은 흔히 '정처 없고, 덧없으며 허무한 것'의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고, '꿈' 또한 현실과 상반되는 이상이나 환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강경〉의 "온갖 망상으로 일으킨 차별현상은 마치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는 구절은 '꿈'의 본질을 적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규봉 종밀(圭峯 宗密)은 이를 더 세분하여 "온갖 망상으로 일으킨 차별현상은 마치 별, 무지개, 등불,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 같다(一切有爲法 如星霓燈 露泡夢電雲)"고 설명한다. 여기서 물거품이나 그림자, 또는 이슬이나 번개는 생겼는가 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 혹은 만지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처럼 〈구운몽〉은 그 제목부터 〈금강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속 육관대사는 〈금강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미몽에서 깨어난 성진에게 이 경전을 강독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구운몽〉은 소설 속 인물이 일으킨 망상 또는 분별심이란 의미로 해독할 수 있고, 그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조선 후기 문인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도상화 한 〈구운몽도〉. 경기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다 불도 귀의하며 다시 승려로 돌아오는 〈구운몽〉은 불교의 공(空) 사상을 만날 수 있는 고전이다.

수행승 성진의 꿈 이야기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
부귀영화 누리다 불교 귀의

성공보다 내면 수행에 주목
작품 곳곳에 '空' 사상 내포
분별심 끊고 '자아찾기' 여정

〈구운몽〉은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팔선녀를 본 뒤 미혹에 빠져 스승에게 쫓겨난 뒤 양소유란 인물이 되어 부귀영달을 누리다 꿈에서 깨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꿈과 현실,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상상력은 대단히 웅장하고 드라마틱하다.

이 소설에서 양소유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한 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란 승상(丞相)의 지위에 오르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덟 여성을 처첩(妻妾)으로 거느리면서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다. 그의 일대기는 입신양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유교 사회에서 남성이 도달할 수 있는 성공의 극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시대 사대부들의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란 해석이 공감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에 이른 양소유가 유불선 삼교 중 불도(佛道)가 최고라 여겨 밤마다 참선하고 스스로 불가(佛家)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반감된다.

이 소설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이 양소유의 화려하고 극적인 성공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성진의 출가와 수행이 전생의 연기(緣起)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서사적 구성일 뿐이다. 다시 말해 성진이 잠깐 미혹에 빠져 관(觀)한 영웅의 장대한 삶은 그의 전생(前生)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양소유의 삶을 성진의 내생(來生)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현생의 수행자가 내생에 세속적 성공을 거두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오히려 양소유가 말년에 참선하는 것은 미래의 삶(來生)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성진이 꿈속에 본 양소유의 삶이 한 인간의 평생이란 긴 세월 같아도 실제로는 짧은 시간의 소풍과 같은 찰나적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꿈속 인물의 이름이 '소유(少遊)', 즉 '잠깐 동안의 나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명명된 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양소유의 삶은 길지만 짧고, 성진은 잠시 미혹에 빠지되 마침내 참된 본성을 깨닫는다(性眞)는 작품의 주제가 작중인물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성진이 동정호 용왕 위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 팔선녀의 미색에 현혹되는 것은 출가자의 수행에 가장 큰 장애가 주색(酒色)임을 강조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청정비구인 성진이 처음으로 주색을 경험하자 온갖 잡념이 그의 수행을 방해하는데, 양소유의 삶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망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양소유는 소년급제한 뒤 단 한 번의 굴절이나 부침(浮沈) 없이 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여덟 명의 부인을 두고도 처첩 혹은 부부 관계가 평등하여 집안은 늘 화평하다.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망상과 번뇌에 깊이 빠져드는데, 그 속에서는 모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속의 암중모색과 이전투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출가 수행승 성진은 망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한껏 확장시킨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이룬 순간 그 허망함을 깨닫는다는 사건의 전개는 전형적인 불교 서사의 구조를 따른 것이다.

양소유가 불교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 순간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결말 부분은 성진과 양소유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성진' / '꿈(망상)-양소유'의 관계가 대립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 즉 현실이 꿈이며 꿈이 곧 현실이라는 불교적 진실을 함축한다.

호승(胡僧)이 석장을 휘두르자 구름이 일어나 주위를 분간하기 어렵게 되매 양소유는 "사부는 정도(正道)로 인도하지 않고 왜 환술로 희롱하느냐"고 항의하는데, 바로 그 순간 모든 환영이 사라지고 성진이 나타난다. 여기서 '구름'이 일어나고 걷힌다는 것은 성진이 '망상' 또는 '꿈'에 들었다가 제정신을 찾는다는 뜻으로, 소설 제목의 '운몽(雲夢)'이 동어반복의 의미 쓰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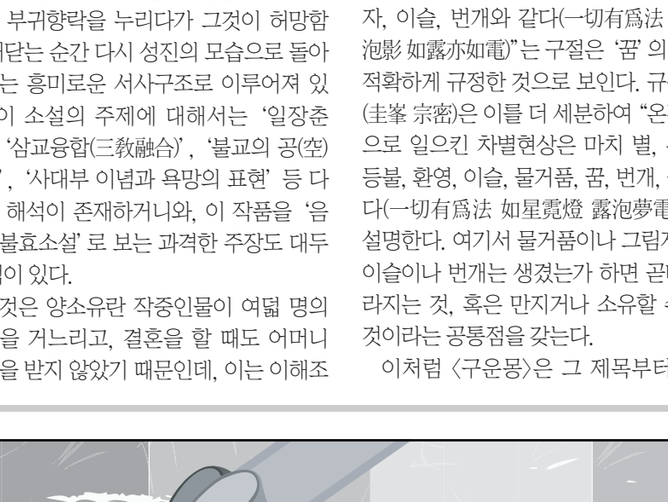
망상에서 깨어난 성진은 인간세상과 꿈을 분별하여 말함으로써 육관대사에게 "성진과 소유가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는 호된 질책을 받는다. 성진이 "꿈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깨닫게 하소서"라고 거듭 간청하자 육관대사는 성진과 팔선녀에게 〈금강경〉과 〈장자〉의 '호접몽'을 설한다. 그의 설법은 결국 꿈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不二?不異),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이었을 터이다. 존재하는 것은 공하며 공한 것은 존재한다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사상이 야말로 성진과 양소유의 서로 다른 삶이 보여준 가장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구운몽〉의 주제를 '일장춘몽'이나 '공(空)'으로 요약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일장춘몽'·'공(空)'의 주제는 삶에 대한 허무와 체념으로 축소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운몽〉은 성진이 양소유의 몸을 빌어 세속의 향락과 영예를 누린 뒤 불가에 귀의하는 것으로 그려져 어느 한 편의 삶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다만 양소유는 유불선(儒佛仙) 가운데 불도가 가장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성진이 선택한 수행적 삶과 연결되어 작품의 대주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진이 주색에 미혹되어 체험한 양소유의 삶은 그의 전생이었고, 그러한 전생의 인연 때문에 팔선녀를 만나는 순간 미혹에 빠졌으나 곧 본래의 청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진에게 양소유의 삶은 참이면서 거짓이고, 거짓이면서 참이다. 불교적 관점에 따르면 현생의 우리는 전생의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현생의 연기로 내생이 만들어진다.

양소유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뒤 불가에 귀의하는 서사구조는 싯다르타 태자가 궁성을 나와 출가하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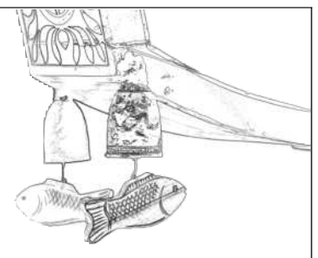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죄, 복, 인연이 그것이다. 이 일곱 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다음검색 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병고액난 상담치유

-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 병원에서 답이 없는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 칠성줄(조상줄)로 인하여 갈 길을 못찾는 분
  * 불광사에 오시면 답이 있습니다
  * 산소로 인한 문제도 상담합니다

불광사 법공스님 010-7321-0404



사주 배우실 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양산 보성정사)
010-3844-0646 동명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 제 유 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네팔 룸비니와
인도 사대성지 순례포함
스님과 재가불자님
* 네팔 카투만두 타멜에 한국식당 및 호텔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호스님 010-6267-3435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033-482-3382

천등산 조용한 산사에서 휴양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43-853-4741
010-4799-5699

함께 사실 가족을 모십니다

임술생,경신생,정자생, 계축생,
임자생의 건강한 처사님
도반스님은 안됨
010-8030-9102

구합니다

전남 목포시 인근
토굴이나 포교당
구합니다
010-9765-7754

당신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 인생의 길흉화복이 이름과 주역속에 있다. 바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마라! 반드시 한글, 한문을 주역괘로 해석해야 이름의 본질과 성공여부 등을 알 수 있다.
- 실패! 고통! 고민! 병고! 막힌 운 뚫어 개운할 수 있다.
- 개인지도 : 주역성명학, 운세 등 사주풍변에 도움됨.

효 도 역 학
010-4007-9057
02)416-2537
(신천역 4번출구 버스 정류장 앞 골목길 50m 큰손닭한마리 2층)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특수한(로단기도) 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 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보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 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달마스님의 칼국수집

본점 및 체인점을
운영할 비구니스님을
모집합니다
* 투자금 : 1천 - 2천만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25 - 45세
011-301-4949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종무소 직원 구함

○ 남녀 불문 ○ PC 가능자
○ 사찰에서 숙식조건 ○ 급여는 상담 후 결정

(충남 부여)
010-5424-55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50대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3일 휴가 / 초보자도 가능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055-645-5324 (24시간 상담)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1시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미국동양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육임술 제2기를
12월 1일(월요일) 저녁 6시에
개강합니다.

■ 강사진 :
김영배 AOU총장(한국육임학회 총재)
이내각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초빙교수 (한국육임학회 회장)
신성빈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교수 (한국육임학회 경기북부지회장/AOU 평생교육원장)

- 육임귀신술 동영상 핵심 24회 수강가능
- 육임사주술 동영상 핵심 5회 수강가능

미 국 동 양 학 대 학 교
www.aou.ac
총장 김 영 배 (효사)
☎ 02)738-868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배우기 좋아하는 이를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오직 보배로운 지혜를 지닌 이,
그를 도인이라 한다"

- 법구비유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중랑구 산책로 사찰 양도
- 2층건물2층법당1층요사채단청됨
- 시유지포함1.000㎡, 산책로입구
- 역세권. 전망 좋으며 주차장 있음
- 양도금액 : 5억 2천만(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858-833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6303-23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남 ◎ 위치:수도권
◎ 부지:1000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50평,전각2채 ◎ 법당:50평
◎ 요사:50평 ◎ 요사:60평
◎ 양도:10억 ◎ 양도: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망우동 2층 건물 사찰 양도
* 2층 법당 1층 요사채140㎡. 토지 약 150㎡
* 주택 상가지역이나 포교에 좋은 사찰
* 양도금액 : 4억 4천만 (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 안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부천시성무로 21번길 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1,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답사 후 조정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구산면 소재
- 평수 128평, 법당 32평 (아미타, 지장, 관세음)
- 원불 500불, 인등 1,500등, 구위패 300위
- 산신 칠성 18평, 용왕 3평, 공양간, 신도방 3개(스님방 2개, 거실)
- 절입구 아파트 1만세대 조성중
- 가액 : 3억 가격절충

010-2567-136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서울강남임법당(급)안내

- 위치 : 강남 양재역 부도 대도로변을 안고 있는 유동인구와 상담 왕래 왕성한 위치 입니다
- 저렴한 임대료와 운영에 불편함이 없으며 방편에 따라 얻기 힘든 자리입니다
- 구조: 법당 및 상담실 1개, 살림방1개, 주방, 샤워실, 냉장고1, 세타기1, 에어컨1, 정수기 등
- 가액 : 3,200만원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포함) 전화주시면 절충 하겠습니다

총무 010-3577-285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9278-598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 1, 종무소, 공양실 1, 화장실 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황토집 임대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12평(거실겸 주방, 방1칸, 화장실)
- 밭에 온갖 약초 재배중 (필요하면 취식가능)
-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지내실 분 연락주세요

010-8591-1076

사찰 수련장 명상센터

- 위치: 대구 -청도 중간 대구시내 25분거리
- 부자마을 앞, 뒷산 수려
- 주차 20대 가능
- 대지 265평, 건물 3동 40평, 건축 가능
- 가격 : 3억(절충가능)

010-6300-1782강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조용하고 전망좋은 추후 불사하기 좋은 인법당
- 마당, 텃밭, 주차가능
- 법당, 공양간, 약사대불, 방 4
- 대지 281㎡
- 가액 : 3억 7천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사로 66-5번지
- 총 532평중(종교부지, 308평) 요사채 55평
- 목조 전통기와 단청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 산밑에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집기일체
- 가액 : 3억 5천

010-9944-1618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절터.납골당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 임야 : 약 17,000평
- 형질변경 약 1,700평
- 건축허가 3동 1,500평
- 납골당 기초공사 1동
- 1층 108평(총 3층 324평 중)
- 영천땜 밑 남향 명당자리
- 가액: 12억

010-7688-333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2분거리 (거제시장 2층)위치좋음
-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평수 : 40평, 방3, 주방, 법당, 방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 월 35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9421-0772
011-488-03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사 찰 임 대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동 무지개 폭포 마을
- 1층 슬라브, 대지 84평, 건물 24평
- 삼존불, 후불탱화, 집기일체
- 비품비 총 15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15만원

011-862-270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법당 25평, 요사채 2개
- 공양간 2, 스님방 1
- 총평수 2,000평
- 가액 : 양도 3억 5천 전세 3,000만 월 30만

051-468-9890
010-4741-344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큰시장 신협 옆 (역세권:공항, 열차, 지하철, 버스 3-10분거리)
- 대지 : 145평, 건물 2층 50평, 주차장 약 40평(옥상단독사용)
- 주차장:영업 주차비 단독관리(입시 일일, 월주차)
- 법당:25평 석가, 관음, 대세지, 지장, 신중, 칠성(소불 200)
- 요사:25평 친견실, 공양간, 거실, 방2남, 녀 해우소)
- 가액:보증금 2천만, 월40만(시설비:1,550만원) 현재 사찰운영, 좋은인연 성공을 빕니다. 몸만오세요!

010-4535-2568
(기도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못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시청 2분거리 (거제시장 2층)위치좋음
-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평수 : 40평, 방3, 주방, 법당, 방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 월 35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9421-0772
011-488-03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시장 인접 최적지
- 평수 : 60평
-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271평 중 법당 22평
- 칠보 5존불(석가, 미타, 관음, 지장, 약사) 칠보 호신불 204불
- 시청, 은행 등 모든 관공서 도보 10분거리
- 투자가치 높은 지상공원 확정, 빌라지역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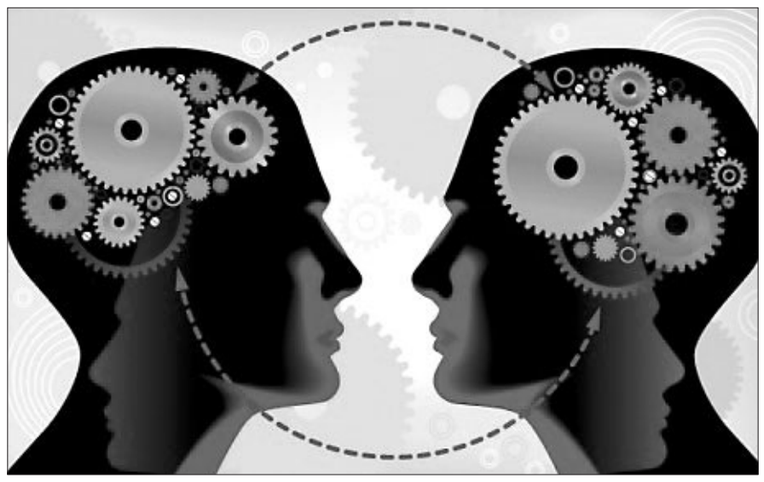
010-5019-5385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샤론 샐즈버그 · 로버트 서먼

〈3〉 세 번째 승리: 은밀한 적

이타적 '타인몰두'는 마음 개조의 동력



'나는 어떻지? 무엇을 얻게 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는 자기몰두는 파멸 이끌고 타인과의 연결 불가능 하게 해

자기 몰두와 자기 사랑

일종의 내적 반응 양식인 은밀한 적은 불교 심리학에서 '자아 습관' 이라고 부르는 것과 철저히 엮여 있다. 이 자아 습관은 욕망과 분노와 망상의 가장 깊은 뿌리이다. 그 자아 습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은밀한 적은 자기몰두(self-preoccupation)라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나는, 나는 지금 어떻지?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게 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내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듯 쉬지 않고 종알대는 자아의 이 집요한 목소리에 우리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자기 몰두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이 강하고 교활한 적은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인척 가장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멸의 길로 이끈다. 이 적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는다. 이렇듯 은밀한 적은 그림자 속에 살면서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도 모르는 비밀로 존재한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달라이 라마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기 몰두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자기에게 몰두한다는 말은 보통 자기가 또는 자기 인생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자기에게 몰두할 대는 실존 자체가 적이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게 된다. 내면의 쉼 없는 독백 때문에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 만난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아 보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은 나를 혐오해. 내가 멍청한 말을 했거든. 이건 문제가 있어.' 자기 몰두의 방에 갇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거나 연결되기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자기 이미지를 다지고 암울하고 공허한 느낌을 없애는 데 치중한다.

내적 세계 및 주변 세계와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자기 몰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비관론자와 훼방꾼, 비판가 등의 수많은 목소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몰두는 그들의 분노와 경멸을 촉발하고 이는 당연히 갈등으로 이어진다.

상호 연결돼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함께 해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 그들 사고는 '저기' 가 어디든 간에, '저기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 케케묵은 생각은 이젠 아무 쓸모가 없다. 일상생활이 이 세계와는 상관이 없다거나 저기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저곳의 문제일 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겨운 시대에 '타인' 을 사물화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윈-윈 해결책을 추구하는 사회변혁 행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을 만드는 것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특별히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 자연환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다. 역학(疫學)은 국경이 관념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거듭 입증함으써 상호 연결 및 상호의존관객의 진리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우리가 매 순간을 알아차릴 때 삶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진리는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곤경에 처할 때,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지는 생계에 직면할 때,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낯선 사람을 기꺼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호 연결의 진리를 깨닫는다.

은밀한 적은 우리의 뿌리 깊은 자아 습관, 즉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을 딛고 굳건하게 서 있다. 그런데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이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나' 가 항상 똑같은 사람, 즉 고정된 주체라는 느낌 또는 '나' 의 정체성이 일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똑같을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느낌이 바로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이다.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볼 때 지금의 '나' 가 그 '어린 나' 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온몸의 세포 한 개도 그때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잠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 느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느낌을 우리는 습관적 정체감 또는 가장 깊은 무의식에 있는 '본능적 정체감' 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내가 항상 똑같은 자아라는 느낌이 습관적 정체감 또는 본능적 정체감을 이룬다. 그 느낌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신의 '진짜 자아' 를 지각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여기 있다' 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 '나'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심, 나의 소유욕-에 대한 지속적인 몰두의 기반이 된다. 자기 몰두의 이 기반은 겉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우리를 끝없는 좌절과 불만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몰두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며 충분히 나답지 못하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습관적 자아감을 탐구하면서 자기 몰두 성향을 되짚어 본다면 '진짜 나' 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들을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 몸의 각 부위와 그 변화를 자각할 수 있다. 감각과 생각과 의견이 매 순간 스치듯 오가는 것을 자각한다. 단어와 이미지가 떠오르고 소멸하는 것을, 느낌과 감정이 그 감각과 단어와 이미지와 서로 엮여 있는 것을 자각한다. 나는 자각 그 자체를 자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계속 자각하며 때로는 주의가 흩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상상한 구체적이고 고정적이며 독립적인 자아를 나는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한다.

더 깊이 파헤칠수록 나의 자아감이 망상, 즉 오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한다. 자아감이 망상이라는 인식에 주의를 집중함에 따라 나의 자기 몰두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의 격렬한 흐름이 점차 잔잔해진다. 나의 자아감이 몹시 투덜대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이 미쳐 가고 있다고까지 느낀다. 그리고 그 틈틈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잠깐씩 잊어버리면서 주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완고한 자아감에서 잠깐 벗어날 때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것들과도 연결돼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란다.

은밀한 적은 무의식의 구성물로서 강한 본능이지만 의식적 수준에서는 습관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적은 제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오직 자신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은밀한 적은 내면을 단단히 움켜쥐고 자기가 견고한 구조물이라는 환상을 강화한다. 하지만 그 적은 신발끈의 매듭과 비슷하다. 아주 단단히 묶인 것처럼 보여도 끈의 양 끝을 당겨 풀 때 우리는 그 매듭이 절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부처님의 위업중 하나는 고정된 자아감이라는 견고한 매듭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풀어내서 그 견고함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외관상 견고해 보이는 자아가 일으키는 환상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과 자기 몰두라는 의식적 습관에 더 이상은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능력을 말한다. 이 공감의 발달 과정에 대해 과학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준다. 1990년대에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라고 부르는 뇌세포가 발견됐다. 이 과학적 발견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다. 현대 과학자들은 겨울 뉴런을 개인이 각자의 환경과 화합하는 데 필요한 뇌의 하드웨어로 간주한다. 거울 뉴런의 목적은 우리가 관찰한 타인의 행위를 우리의 뇌에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관념적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생각함으로써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써 이해하는 거죠." 거울 뉴런을 발견한 연구를 이끈 자코모 리졸라티의 설명이다.

신생아는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출생 후 한 시간 내에 어른들의 얼굴 표정을 모방할 수 있다. 아기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엄마의 눈빛을 통해 최초로 연결과 관심과 애정에 대한 무언의 가르침을 배운다. 그리고 무시당한 경험이 그 좋은 느낌들을 없애 버린다는 것도 배운다.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하품을 하고 누군가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 우리도 움찔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면 우리도 따라 웃게 되는데 모두 거울 뉴런 때문이다.

실제로 하품에 '쉽게 전염' 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한다. 거울 뉴런의 존재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이 때때로 독감처럼 널리 빠르게 전염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분리된 나와 너를 잇고 상대방의 마음을 마치 내 마음처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창조된 것 같다.

연구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은 이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그 견해는 그녀가 '긍정성이 공명하는 찰나적 순간' 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 찰나적 순간들이 모여서 사랑을 이룬다고 바버라는 말한다. 그 모든 사람들에는 직장 동료와 커피숍 웨이터, 심지어 낯선 사람도 포함된다. 바버라가 연구한 행동 방침은 자애명상이다. 바버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좋은 느낌과 상호 관심의 생물학적 파장이다. 이 출렁이는 파장이 둘 이상의 육체와 뇌를 동시에 즉각 관통한다. 육체는 긍정성이 공명하는 이 찰나적 순간들을 필요로 한다. 영양가 높은 음식과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찰나적 순간을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더욱 행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현명해진다."

바버라는 우리와 타인들 사이를 흐르는 이 긍정적 감정의 "격렬한 파장이 유대를 형성하고 바로 그 유대가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긍정성이 공명하려면 거울 뉴런과 옥시토신 호르몬과 미주신경 활성화(vagal lone)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과정이 필요하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많이 신뢰하게 해 준다. 이것은 유대와 애착의 호르몬으로 사랑을 느끼는 찰나적 순간에 분출한다. 미주신경은 뇌를 심장 및 그 밖의 기관들과 이어 주고 개인이 사랑을 느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바버라가 설명하듯이 "미주신경은 작은 얼굴근육을 자극해서 상대방과 눈을 더 잘 맞추고 얼굴 표정을 상대방의 표정과 더 잘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미주신경은 귀의 미세 근육까지 조정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배경 소음을 물리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더 잘 따라갈 수 있다."

뇌와 신경계와 호르몬 들은 공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하다. 공감, 심지어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 개조 과정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물이 상호 연결돼 있으므로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이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더 많이 깨닫고 더 친절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린다면 그 특성이 우리에게 옮겨 온다. 부정적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자와 친하다면 우리는 그를 닮아 간다. 무엇보다 은밀한 적, 즉 습관적인 자기 몰두와 어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기 몰두는 결코 사귀지 말고 필히 절교해야 할 최악의 친구다. 자기 몰두와 절교하거나 차차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타인 몰두로 대체하는 것이다. 항상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 염려한다. 이와 같은 이타적 생각의 흐름은 이전의 습관적이고 자기 몰두적인 생각의 흐름을 밀어낸다. 사려 깊은 행위의 결과로 차차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을 개조하는 동력이 된다. 이 명상 수행을 '자아와 타자 맞바꾸기(the exchange of self and other)' 라고 부르며, 매일 실행해야 한다. 이 명상은 샨띠데바와 다르마라크시타의 핵심 수행법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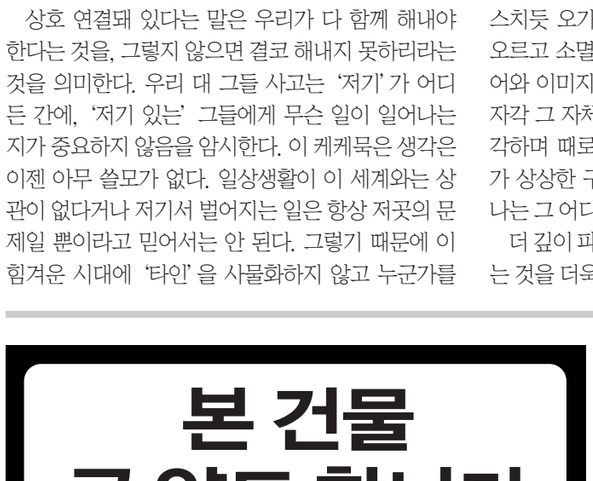
이 글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담앤북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 건물 급 양도 합니다

국내산 금강송과 홍송으로 지은 정면 5칸 (이익공) 집으로 완공한지 4년 되었으나 갑자기 도로로 편입되어 급 양도합니다.

◆ 용도 : 대웅전, 요사채, 천불전, 관음전, 극락전, 명부전, 전통식당, 찻집 등
◆ 평수 : 35평 (가로 15m × 세로 7.5m) / 삼문 - 가로 6m

※ 원형그대로 옮겨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10-5530-6814

영남 범음. 범패 제 4기 학인모집

본 범패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작법무-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각사물 등..
- 교육과정 : 6개월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황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범패 원장 재봉 합장

원네스치유명상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삶에 참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법화선원에서는 원네스 깨어남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깨 어 남 여정코스
원 네 스 치유명상
쿤달리니 명상수련



인원제한이 있어 선착순 모집합니다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66-26
문의 : 010-4740-3001

법화선원 혜웅 법광 합장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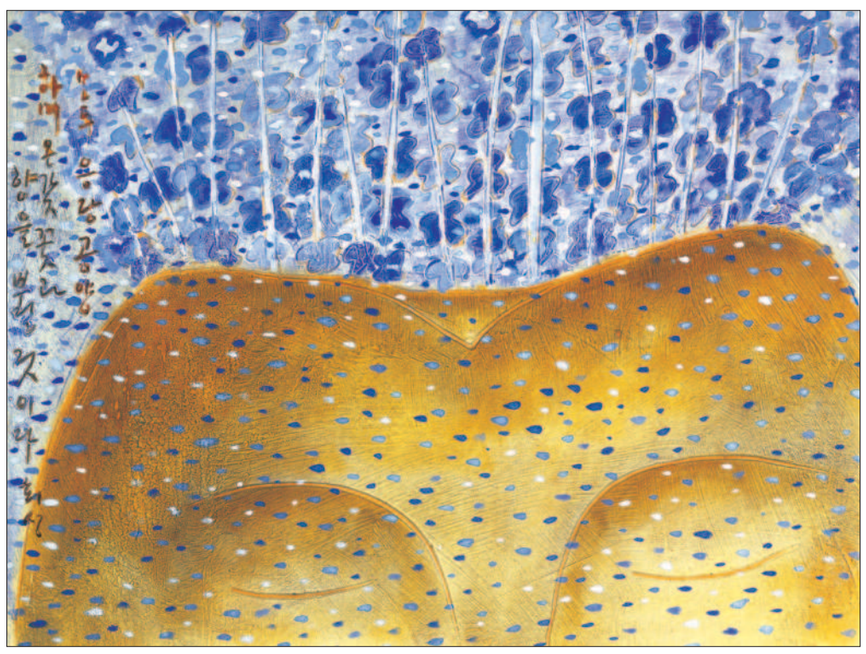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갤러리 색즉시공



마음 모아 합장합니다

당신은 응당히… 공양 받으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눈 밝은 종사(宗師)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의 덧없음을 잘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을 잘 조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마음 모아 합장합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차 한 잔도 지구를 굴리는 축인 양 천천히…”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틱낫한 스님에게서 배운 것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마음은 깨어 있으라”

일주일에 하루는 수행의 날로

틱낫한 스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마음챙김의 날’로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하루의 주인이 될 것을 권한다. 생활이 아무리 절박해도 한 주에 하루를 수행의 날로 정해서 석 달 만 정진하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화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세포는 100일이면 바뀐다고 한다. 우리가 심기일전을 바랄 때 백일기도를 하는 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스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아침에 잠을 깨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고요하고 길게 쉬는 숨에 의식을 모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안하게 모든 동작을 마음챙김과 함께 해보았다. 소리 없이 고요하게 모든 동작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졌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의식을 집중했는데, 평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동거리거나 서두르지 않는 성격이어서 어렵지 않게,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고요해지면 말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면이 더욱 깊어지고 넉넉해짐을 느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맑아졌고 맑아지니 밝아졌고 밝아지니 중요한 것이 보였다.

스님께선 “차 한 잔을 마셔도 지구를 굴리는 축인 양 천천히 차분하게 마시라”고 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일을 할 때도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천천히, 온전히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에 한 번도 “빨리 빨리”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던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거칠어 보이고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나는 아이들과 전철을 탔을 때, 내려야할 역이 가까워졌는데도 아이들이 잠이 들어있을 때는 깨우지 않았다. 어느 때는 한 바퀴를 다 돌고 내린 적도 있었다. 본래 나의 성품도 그러했지만 마음챙김 수행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지구를 굴리는 축인 양 천천히 차분히 하라”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키우고 대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천천히 차분히 한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것이고, 조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고른다는 뜻이다.

나는 마음챙김 수행법을 통해 우리가 화를 낼 땐 우리 자신이 ‘분노’이며, 우리가 행복할 땐 우리 자신이 ‘행복’이라는 말씀도,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 자신의 언행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집중력으로 인한 내면의 고요함과 청정한 기운은 내가 처해 있는 일을 더 밝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미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더 깊고 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수행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 좁은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나누고(보시), 다정하고 둥근 말을 하고(애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이행),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과 그 일을 함께 나누는(이행) 삶이 살아 숨쉴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보살이라고 생각했다. 편안하면서도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 마음집중이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따라가며 명상을 하니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나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현존하고 있었다.

틱낫한 스님과 함께 한 3일간의 수행

10여 년 전, 틱낫한 스님이 두 번째 방한했을 때 틱낫한 스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참석한 300명의 수련자들과 함께 천안 국립청소년수련관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던 정진시간을 돌아본다. 틱낫한 스님의 〈화〉라는 책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을 즈음이어서인지 책을 읽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참석한 나는 화를 푸는 방법을 실제로 가르칠 때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하고 실참을 해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어느 잡지사 사진기자가 그 모습을 찍어 잡지에 실었다.

수행기간 내내 모두 침묵을 지켰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들과 수행 마지막 날의 순서였던 5계 수계식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계를 받던 장엄한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줄곧 영어로 말하던 틱낫한 스님이 수계식을 할 때는 베트남어로 〈반야심경〉을 외웠는데, 모국어로 독경하시는 틱낫한 스님의 목소리가 참석한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수행의 마지막 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법문 시간에 참석자 가운데 누군가 물었다.

“사람들은 스님을 살아 있는 부처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틱낫한이나 달라이라마에게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틱낫한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그 끝은 실망입니다. 자기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자기 안의 부처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데 익숙해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내내 헤매면서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정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거나, 그 어느 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 바로 정토입니다.”

틱낫한 스님과의 명상수행은 쉽고 단순한 것이었다. 쉽고 단순한 가운데 삶의 깊은 이치가 큰 울림으로 참석자들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참석자들이 스님께 배운 수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잊고 사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깨우는 연습이었다. 숨쉬기, 걷기, 말하기, 밥 먹기, 웃기 등을 비롯해 컴퓨터하기, 자식 키우기, 듣기, 운전하기, 전화하기 등을 배웠다. 입을 닫기, 귀를 열기, 나를 일깨우기, 부모와 화해하기 등의 수행은 그 동안의 정진을 더 견고히 해주었다.

스님은 낯선 수행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다만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주는 데 집중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단지 잃었기 때문이라고 틱낫한 스님은 일깨워 주었다.

틱낫한 스님의 프랑스인 수제자 Peggy 스님이 설법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열했다. 새만금 갯벌의 무수한 생물종이 처한 위기를 얘기할 때와 지하철에서 일어난 참사와 그 혼령들에 대해 말할 때 가슴이 미어져 왔다. 프랑스 스님의 애절한 기도가 한반도의 분단에서 빚어지는 고통에 이르러 꼭 통일을 이루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어질 때 조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듣는 사람 모두가 울었는데, 그날 이후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통일은 중요한 나의 기도 중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아마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스님의 명상수행의 핵심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며, 지금의 여기란 바로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길을 걷고, 공부를 하고, 살림을 살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수행 끝에 우리가 도달하는 곳도 결국은 ‘지금의 여기’이며, 지금의 여기에 온전히 당도하는 것이 바로 정토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기’에는 어떻게 집중 할 수 있는가?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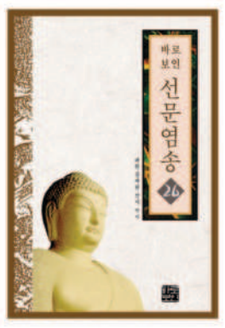
“깨어있기 위해 ‘지금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편을 들이 쉬는 숨과 내 쉬는 숨을 잘 알아채고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불러 오는 것을 잘 바라보고 내 쉬면서 배가 꺼지는 것을 온전히 보십시오. 들이쉬면서 알아채고 내쉬면서 이완하십시오. 들이쉬면서 평화를 이루고 내쉬면서 미소를 지으십시오. 들이쉬면서 발을 내 딛고 내쉬면서 발바닥으로 대지와 포옹하고, 온 발바닥이 온전히 대지에 접촉되도록 걸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내 가슴의 빈 공간을 바라보라고, 내쉬면서 무한한 자유로움을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내쉬면서 내 인생에 미소를 보내세요.”

깨어있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 메모해 둔 말씀들이다.

〈여여원 원장〉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싸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우리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현실적 의미

질문: 반야심경은 대승 불교의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첨단의 시대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고색창연한 반야심경의 문구가 우리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지은 업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고달픈 저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불자로서 공부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육신 자체가, 반야심경에 있는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러한 말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대로 공(空)이자 색(色)입니다. 색이라는 소리 할 것도 없고 공이라는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공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은 항상 변모되고 있고 마음도 항상 변모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을 잘 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항상 내 육신이 그대로 있을 것도 아니요,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전부 나라고 할 수 없이 변모가 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변모돼서 다른 걸로 화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딴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을 만났을 때는 엄하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다스리지만 아내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자비하고 남자로서의 아주 참,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모해서 돌아가는, 화해서 돌아가는 이치를 아시게 된다면 그대로 공이자, 그 공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한생각을 내면 법이 되는 겁니다. 수차에 이런 말을 해 드렸지마는 그것이 실천이 안되니까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생각 해서 그 한 생각이 그대로 법이 됨으로써 육신이 움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움죽거리게 되는 그 자체, 자기 중심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다 되놔라.' 이런 뜻입니다. 둘이 아니다. 몸이 일할 때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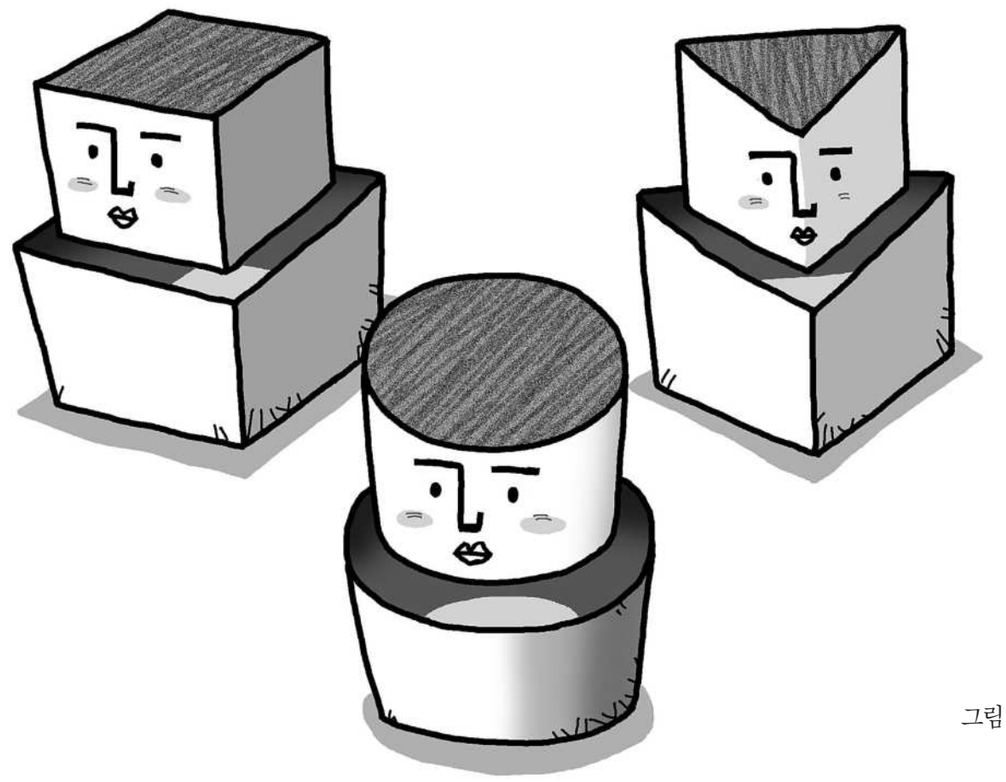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부(父)와 자(子)는 어디 있는가.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만 되는가. 부가 부처라고 한다면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는 부가 자로 돼 주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가 부로 돼 줍니다. 그러니깐 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자체는, 짤막하게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몸이 돌아가는 거는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건 생명으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자, 승보인 몸뚱이. 부와 자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이 몸뚱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움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없어도 아니 되죠. 우리가 마음내는 분별이 없어도 목석일 것이고 우리 몸뚱이가 없어도 남 보기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건 무효고,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삼위일체로 구성돼서 회전을 하니까 주인공, 어떤 거를 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인공이라고 한 거고, '공(空)이다' '없다' 고 한 겁니다. 반야심경에도 역시 꽉 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다' 라고 했지 없어서 공이라고, 허공을 가지고 그냥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것이고, 그 까닭에 공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숨쉬기를 '만든다' 하면은 벌써 그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연적으로 생명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고 나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쓰는 데에서 전체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거기서 다 나옵니다.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어떤 업덩어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거로부터, 과거의 인연줄로 인해서 좇아 나온 것이니 좇아 나온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금 거기다 놓는다면 그것이 묵살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이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고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자비한 도리인지 모를 겁니다. 요만큼 하나도 틈이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것은

질문: 스님 법문 중에 가축이 인간 옆에 살면서 '인간이 되고 싶다.' 하고 한생각을 냈을 때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업이 많아 가지고 축생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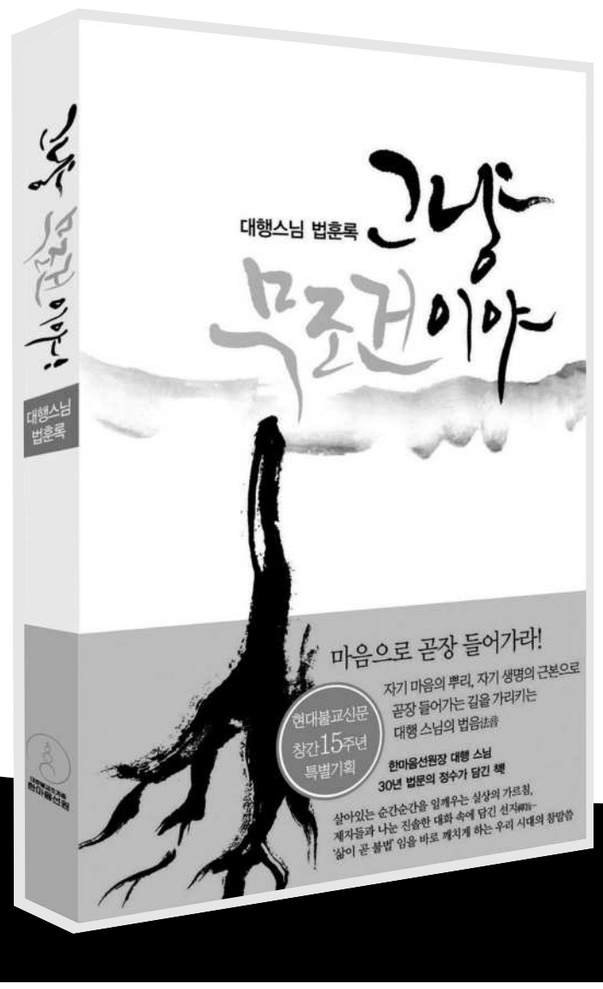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답변: 내가 법문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축생이 사람 되고 싶어 하면 사람이 전부 된다고 그랬나요?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그 뜻을 설해 놓으셨으니까 부처님 그 뜻을 알 양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축생들도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기네들도,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는 그 능력을 보고 감탄하면서 자기도 그런 거를 공부하려고,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마는 마음으로 아주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자꾸 지혜를 넓히면서 축생들도 사는 겁니다. 인간이 되려고 말입니다.

그것 또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도 인간의 이 모습을, 이 모든 얽히고설킨 것을 벗어 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모습은 타고났다 할지라도 전자의 축생이 하던 습, 짐승이 하던 습, 자기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던 습을 놓지 못한다면, 그대로 인간이 돼 가지고도 그 습을 가지고 놓질 못한다면 다시 그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밖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마음 자체를 자비스럽게 생각하라. 높은 걸 보고도 높다 생각하지 말고 얕은 걸 보고도 얕다 생각하지 말라. 미운 걸 보고도 밉다 생각하지 말고 예쁘고 잘생긴 걸 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르게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가 잘생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틀을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모든 만백성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틀을 잘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틀을 잘해 가지고 나와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틀도 잘돼서 여러분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보살과 더불어 법신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머리 깎고 목탁을 쳐야만이 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서, 저런 데 나가서 무슨 큰 회사를 하든지 지금 큰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도 유(有)의 법으로나 무(無)의 법으로나 지혜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 주면서 살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꽃을 들었으면 벌써 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 29면에서 계속

다면, 그리고 건져 준다면, 그리고 육으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모든 것을 그렇게 적합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방 거사고 방 거사가 유마힐 거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모습만 보고서 찾지 말라는 그 뜻을 역력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몰라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선 생활하는 데 급급하니까, 생활하는 데 급해서 만약에 어떠한 병자 하나를 위해서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닭을 잡는다든가 토끼를 잡는다든가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각각 두고 살생이 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살은 내 살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라는 그 공생 공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체로써 공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람사람이 모두 마음으로써 '아이고, 저걸 죽였으니 지장보살! 저것 좀 천도해 주십시오.' 누구더러 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 놓고 누구더러 해 달라는 거예요? 대답하던가요, 누가? "어, 내가 천도시켜 주마." 그러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과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 좋게 했으면 좋게 한 것만치 나쁘게 했으면 나쁘게 한 것만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가 하는 것이지, 누가 잘 풀어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계속 교회에 다녀도 되는지

질문: 저는 미국의 한국계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하게 된 불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데 정직원도 아닌 제가 혼자만 절에 다닌다고 하니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니는 곳에 다닌다면서 같이 교회에 자가고 회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스님의 법문 중에 피치 못하게 교회에 가더라도 남들이 주(主)를 찾을 때, 내 안의 주인인 심주(心主)를 찾기만 한다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심주를 찾으면서 계속 교회에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의 영원한 자기의 신을 모르고, 나부터 알아야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부처님 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가톨릭교나 기독교를 믿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더라도 주처는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데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이러니 이거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 믿으러 갈 게 없지,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이러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몸도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아주 한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법당에 가더라도, 만불(萬佛)이 놓여 있더라도 내 한마음의 일 불(一佛)입니다.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 둬야 되겠습니다.

칠성이니 관세음이니 지장이니 약사니 아촉이니 아미타니 미륵이니, 다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름은 여러분도 각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이름, 할머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는데, 남편 따로 아버지 따로 이름을 각각 꼬리표 붙여 놓듯이 해 놓고 거기다가 따로따로 하면서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한 부처님이지 만 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들어 있어도 한 분이지 그 만 분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따로 있죠. 따로 있긴 하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부르는 한 이름입니다.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지만 한 분입니다. 한 몸, 한 분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몸도 그래서 '한 분, 한 마음, 한 생명'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따로따로, 약사 따로 미륵 따로 아촉 따로 관세음 따로 지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따로따로 부른다면 그냥 생활을 하면서 찰나찰나 앞에 닥치고 찰나찰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다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빌어야 하고 여기다가 빌어야 하고 저기다가 빌어야 하고 정신없죠, 뭐. 닥치는 대로 말입니다.

한 분의 이름만 불러도 만약에 그 마음만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한다면 거기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 사대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알고 한마음으로 따라 줘요. 이것은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를 무시하면 물질적인 이 육신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어디가 어떻게 쓰러진다 하더라도 대치를 할 수가 없죠.

내 한마음의 한생각의 통신이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이 안에서 다 알고 작용을 해 줄 텐데 통신이 안되니까 대치할 수가 없는 거죠. 바깥으로만, 안의 자기는 쑥 빼 놓고 바깥으로, 부처님이 높이 앉아 계신 줄 알고 '부처님, 부처님! 나를 잘살게 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삼재 없이 해 주세요. 번뇌가 끊어지게 해 주세요.' 별 타령이 다 많지만 절대로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밥 먹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잠자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아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죽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깨치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현 시대에, 이렇게 밝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밝게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밝게 마음을 발전시켜서 위로는 조상들과 아래로는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빈 손이 되고 빈발이 돼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함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이세, 그 낳아 놓은 자손들을 세세생생에 멋진 사람으로서 빛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학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진실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질문: 석가모니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웃었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대목에서 가섭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뭘 웃느냐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까닭이 없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우리가 공생 공심 공용으로 돌아가는 것도 까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까닭' 때문에 모두들 헐뜯고 뜯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그 괴팍함이지 까닭이 있어야 성사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까닭 없이 무슨 성사가 되나요? 그러면 장속 안에 넣어 놓고 그냥 있는 셈이니 다른 혹성에서 계발 못하고 무용체로다가 그냥, 무용신으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까닭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꽃을 들었으면 벌써 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또 웃었다 할 때는 그것도 꽃이다 이겁니다. 이쪽도 꽃을 들고 저쪽도 꽃을 들었다 이겁니다. 생면부지인데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서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데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거를 들었지 아니, 물질을 든 겁니까, 이게? 그래 마음에 까닭이 있으니까 이걸 든 것이지요. 마음에 까닭이 없는데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쪽도 마음에 까닭이 있으니깐 웃은 겁니다.

근데 왜 들고 웃는 걸 가지고 말을 하죠? 왜 석존이 꽃 든 거는 탓을 안 합니까? 웃는 것은 탓을 하면서. 그렇게 까닭도 모든 게 없다 하면 '왜 꽃은 들었느냐?' 그러고 탓을 하시지요, 왜. '왜 팔만대장경을 내놓고 왜 말을 했느냐?' 이러시지. '아예 본래부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해 놓고 사람 속을 썩이느냐.' 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떤 분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석가모니의 사지를 찢어서 개나 줬을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던데 말입니다, 또 사지 찢을 게 뭐 있습니까? 사지 찢을 게 있나, 찢게? 그러나 만약에 그만큼 그래도 선지들이 나서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발이, 모든 혹성들이, 전체 계발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데 때로는 신도들이, 이게 우리 있는 얘기를 하지 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감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참 무궁무진한 그 이치를 어떻게 다 말로 하리까? 모르는데 어떻게 말로 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실 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마음속에서 푸뜩 나오는 대로 그냥 하세요. 학교를 넣는 것도 그렇고. 마음속에서요, 이게 분수를 지켜요. 언제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자기를 속일 수 없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선 일러 준다고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간다고요.

그렇게 일러 주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아이고, 스님!" 시골 참, 저런 데서 와 가지고서 지금 간질을 앓아서 죽게 됐다고, 무슨 그것만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외려 모르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네에." 하고 심부름꾼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는 뭐 정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분이라면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것만 하나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럼 일가 집까지, 저 마을의 동네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스님이 꼭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땐 "알았어요." 이 대답밖에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면 쳐다보고 "네, 알았어요." 그러고 웃을 수밖엔 없는 거죠.

웃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언제나 제일 아래, 하에 있는 사람, 제일 하에 있는 그 계발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진실한 건 더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진실한 거. 요리 생각 조리 생각 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저 미련스럽게 그냥 뚫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단 얘기죠. 그럼 심부름하긴 쉬워요. 이것도 여러분과 나와, 그분과 나와 그럭할 때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벌써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돈독하면 그렇게, 얼마나 자기를 믿고 둘이 아니라고 믿었으면 왔다가 얘기만 하고 쏜살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이에요.

꼬투리 잡으려면…. 육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네가 없는데 뭐, 거울이 어디 있고 거울이 없는데 먼지 앉을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해 버리는 것도 거기까지 가야, 그렇게 물질로 나오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무찔러 주고, 또 그 공부를 웬만치 해 간 사람 앞에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때 환경에서는 육조 스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학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진실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항공 (8M AIR)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6일 179만원

– 꽃보다 청춘 라오스 (인천 및 부산 출발가능)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6일 149만원
(특급호텔 진행)

– 세계문화유산 정통 스리랑카 순례 6일 199만원

※ 모든 일정은 10인 이상시 출발, 여행자 보험 가입,
각국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전일정 각국 비자수수료 포함.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불자 세상보기

대한항공 부사장의 어이없는 '갑질'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이른바 '갑'의 횡포가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야기다. 그녀는 지난 5일 미국의 JFK공항에서 이륙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자사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예정보다 20분이나 늦게 출발시키는 월권을 휘둘렀다. 당시 1등석 승객신분이던 조 부사장은 담당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츠라는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빙하지 않자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러 해당 서비스의 절차에 대해 물었고, 당황한 사무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큰 소리로 비행기에서 '내려' 라고 명령한 뒤 일어난 일이었다.

이 와중에 250여명의 승객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소리와 함께 당황하는 승무원들을 영문도 모른 채 지켜보아야만 했다.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현실의 권력 앞에서 졸지에 '을'의 입장이 되고 말았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순간 비행안전수칙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현아 부사장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기업 오너 3세 공주의 '슈퍼 갑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 차원의 해명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태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조현아 부사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기업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이었다. 물론 대한항공 내에서 기내 서비스 및 호텔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승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질책했을 뿐 다른 승객을 불편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등의 항변 말이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으로 대한항공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정서적 반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SNS 시대에 기업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그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행객들이 혹시라도 대한항공 탑승거부운동을 벌인다고 가정해 보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흥망성쇠도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법이다. 벌써부터 외신에서는 차라리 북한의 고려항공을 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일 조현아 부사장이 관련법규를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어이없는 갑질 행위는 비단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형성된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사회현상의 한 단면일 것이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자. 국내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 가운데 하나인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나이 지긋한 대리점 업주에게 사재기 강요와 폭언을 일삼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1년 만에 주가 총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보도를 기억한다.

그 외에도 최근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갑질 사건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도덕상황이 얼마나 경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3년 4월의 '라면상무' 사건과 2013년 9월의 '신문지 폭행 회장' 사건, 2014년 9월의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사건 등은 한결같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들에 속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수들의 성추문도 본질적으로는 힘 있는 자들의 갑질과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이다.

그러나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교에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갑과 을의 관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오늘의 갑이 내일의 을이 되고, 내일의 을이 다시 오늘의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행무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갑이니 을이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다르마의 법칙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화합중(和合衆)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희망을, 아직은 버리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가사체 금강경' 왜 필요한가



조현춘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장

필자는 40년 전에 서양의 심리상담에 실망하여 동양 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이동식, 김종서, 이종익 선생님들과 〈금강경〉 공부하며 동양 사상 공부를 시작했다. 교수로서의 첫 논문은 〈도덕경〉이었으나, 주로 '불경과 심리상담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썼다. 지금은 〈가사체 금강경〉이 심리상담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의 대표정신을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세는 불교이다. 〈금강경〉은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며, 팔만대장경 중에서 유일하게 조계종 종헌에 나오는 경전이다.

정신치료 · 심리치료 · 심리상담 · 특수교육 · 미술치료 등의 최종 목적은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전부가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다.

사실 한글 세대인 내가 한문본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한자사전과 씨름한 시간은 참 지난했다. 특히 전통적 번역인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한다' 등의 구절에는 좌절해 한때 〈금강경〉공부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동양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교수 10년차에 다시 선배 동학들과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을 저본으로, 여러 범본 등을 대조해 100여 곳(한문 472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구마라집 32장의 게송에는 육유가 있으나 다른 분들의 게송에는 모두 구유가 나온다. 중요내용이 덩어리로 누락된 부분도 제법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한 금강경을 바탕으로, 이 시대 최고 강백인 무비스님과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학자님들께서 10여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번역했다. 10여년 동안 교수와 박사들이 매주 몇 시간씩 공부하는 모임은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스님까지 대동해 공부를 해왔고, 결과물로 〈가사체 금강경〉을 내놨다.

〈가사체 금강경〉의 특징은 번역이 고어(古語)가 아닌 현대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비 스님과의 연구회의 첫 만남에서 전통적 번역인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한다'를 '장엄하되 장엄했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장엄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번역했고, 스님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무비 스님은 한 문장 한 문장 지도해 주시고는 "독송용으로 출간하라"까지 격려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과학적 육하원칙(Scientific 5W 1H)에 근거한다. 일제강점기까지의 〈금강경〉 현토본은 대부분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재사위국 하사'로 되어 있다. 즉 '여시아문'과 '일시에'가 한 문장에 있었다. 그리고 〈금강경〉의 대표 한글 번역자라고 할 수 있는 용성 스님과 백성욱 박사, 대강백 탄허 스님은 모두 '여시아문'과 '일시에'를 한 문장에 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시아문'과 '일시에'가 한 문장에 있지 않고, 별도의 문장이 되어버렸다. 부처님의 과학적 육하원칙이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부처님의 과학적 육하원칙은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누가 직접 듣고 보았는가'이다. 조계종 표준본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천이백오십 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로 되어 있다. '어느 때~계셨다'는 '이와 같이'에 포함돼 버린다. 따라서 과학적 육하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필자는 지식 수준의 깨달음 밖에 이루지 못했다.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수행에 대해서 물으면 거의 전부가 〈금강경〉을 독송하라고 한다. 〈금강경〉 안에서도 독송의 공덕이 참으로 크다고 한다. 특히 함께 독송하면 참 좋다. 〈가사체 금강경〉의 경우 4자-4자-4자-4자 즉 16자씩 덩어리로 되어있어서 합송하기에 참 좋다. 7~8명만 합송해도, 웅장함과 거룩함이 영혼을 흔든다. 많은 대중들이 계속 염송하여 체화하기를 축원한다. 체화되는 그 순간에 온 몸에서 빛과 향기와 행복이 넘칠 것이다.

社說

불교 유치원 활성화, 미래위한 투자

매년 11~12월이 되면 유아를 둔 엄마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룬다. 마음에 드는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전형일 꼼꼼히 살피고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고 추첨에 운명을 건다. 유치원 입학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세간의 우스갯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인성 프로그램 등을 특화한 종립 유치원이 인기가 좋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 취재원은 "종립 유치원이 일반 사립 유치원보다 신뢰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사)동련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 유치원은 264곳, 불교 관련 어린이집은 27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나 불교 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색책을 가질 수 없다. 불교적 심성을 영유아 시기부터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교 종립 유치원'이다.

실제 청도 운문사가 2008년 개원한 부설 운문유치원은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인성교육 유치원으로 꼽혔다. 운문유치원은 다도명상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음율 교육을 비롯해 운문사 수목원에서의 숲 체험활동, 유아 체육, 영어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다. 아이를 당장 불자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불교에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일선 사찰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유치원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 양성과 교재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역 불교 유치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불교 유치원 활성화에 사부대중의 노력을 모을 때이다.

이해못할 석굴암 앞 석등 하대석 매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 석굴암 보호각 보수공사가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석굴암은 최근까지 보호각 보수공사를 위해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으로 덮혀 있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가설 덧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졌다. 이 콘크리트 바닥 구역에는 석굴암 앞의 석등 하대석의 위치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석굴암 석등 하대석 부분을 남긴 뒤 주위를 콘크리트로 덧집 기단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 하대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석굴암을 찾은 강우방 前국립경주박물관장은 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석굴암 석등은 석굴암의 전체 구조물 중 일부"라며 "보호각을 보수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하단부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석등의 하대석을 묻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사실 석굴암에 가설 덧집이 세워질 때부터 문제 제기는 있어왔다. 지반 약화, 진동 등으로 석굴암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한데 굳이 강철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구조물의 시멘트를 제거할 때 석굴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문화재청은 현재 석등 하대석은 나무로 덮은 다음 보호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 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철거도 현재 무진동 공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알아서 조치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무부처의 장담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은 '그동안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져 왔던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할 수 없거나 복원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된다. 정말 필요한 작업인지 아닌지를 최대한 살피면서 보수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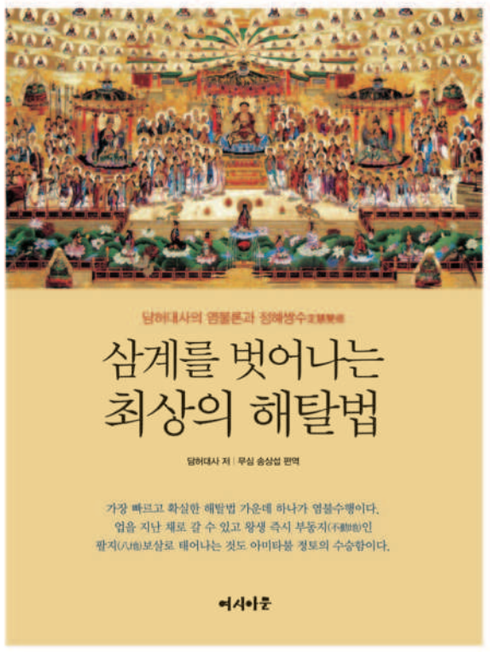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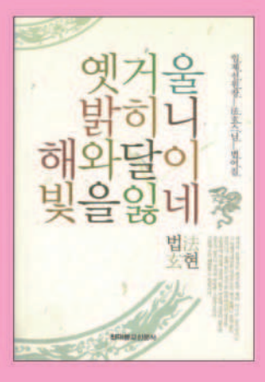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